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한 영 옥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고은 시의 교육적 가치와 교수-학습
방안 연구

2011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김 현 자

한 영 옥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고은 시의 교육적 가치와 교수-학습
방안 연구

2011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김 현 자

고은 시의 교육적 가치와 교수-학습
방안 연구

한영옥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김 현 자

인 준 서

김현자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문학 교육의 관점, 특히 시 교육의 일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고은의 시들이 지닌 가치가 무엇인지 밝히고, 실제 중고등학교 시 교육의 현장에서 그의 주요 작품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를 논하였다. 고은 시의 작품들이 서정시로서 수준 높은 문학적 성취를 보였음은 물론 국어 교육의 자료로서의 의의 또한 갖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아울러 고은의 삶과 작품을 함께 살펴볼 때 찾을 수 있는 그의 시 정신을 규명하여 그것이 지닌 시 교육적 의의 또한 찾아보고자 하였다.

다양한 문학 교육적 목표들을 ‘언어 사용 능력의 증진’, ‘인지적·정의적 영역의 발달’, ‘삶의 고양(高揚)’으로 정리해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사항들을 바탕으로 고은 시가 지닌 문학 교육적 의의를 찾았다. 또한 위에 제시된 각각의 항목과 관련하여 고은 시에서 찾을 수 있는 세부적인 시 교육적 의의를 찾은 후 이를 잘 실현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였다.

고은은 위악적 현실에 대한 부정과 개방의 정신을 통해 의식의 한계를 극복하며 창조적이고 역동적으로 자아를 조형하는 시인의 자기 형성의 과정을 보여준 한국 문학계의 대표적 작가이다. 시인이 등단하던 1950년대 후반은 문학계가 한국전쟁이라는 정신적 참상 속에서 절망감과 허무의식에 빠져 있던 시기이다. 민족의 생존 자체가 위기에 몰려 있었기에 전쟁의 비극성과 그로 인한 인간의 실존적 고민을 내면화할 정신적 여유를 갖기 어려웠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 ‘전후파’를 중심으로 기존의 침체된 문단에 새로운 활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시의 언어와 형태에 새로운 실험을 시도하면서 전통의 변혁에 주력하였고 또한 사회적 인식과

현실 문제를 시 속에 포괄함으로써 인식의 확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받았다. 1950년대 이후 40년간 한국 문학계의 중심 공간에서 활동하면서 호방한 상상력과 빛나는 직관력, 독특한 언어구사를 바탕으로 시인의 감수성을 시대와 현실에 긴밀하게 결합시킨 채 자신의 시세계를 다양화, 심화시켜 왔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볼 때 시 정신과 새로운 시의 형식과 방법론의 면에서 고은 시가 지니는 교육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몇 편의 작품만이 다루어지고 있어 폭넓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한계도 있었다. 그래서 7차 고등 문학교과서와 2007 개정 중학교 교과서의 수록된 고은 시의 학습 활동을 고찰하였고 고은의 다른 시편들 중에서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작품을 선택하여 논의해 보았다.

교과서 수록 작품 중 「문의 마을에 가서」, 「눈길」은 ‘길 이미지’를 통해 그의 비유적 표현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길 이미지’가 드러난 다른 고은 시들을 감상함으로써 고은 시의 이미지 제시 특성을 익히고 학생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시로 표현하는 기회를 갖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은의 시에 나타난 세련된 수사법과 이미지의 형상화 기법은 세계에 대한 인식 능력과 이를 언어로 표현해 내는 언어 감각의 향상을 위해 적절한 시 교육적 소재들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고은의 시에 나타난 주제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주제들을 주체적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학습 활동이 필요하였는데, 이는 고은의 시들을 감상하고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고은 시에 나타난 삶과 죽음의 문제들을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학습활동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바

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지적·정의적 능력을 함양하게 된다.

다음으로 물질적 풍요로 인해 인간다움을 상실해 가는 요즘 시대 상황에서 진정한 ‘시성(詩性)’을 지닌 작품들을 접하는 것이 인간의 품격을 높이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였다. 바로 여기서 고은의 시들은 시 교육을 통한 ‘인간 품격의 향상’이란 시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소재로서도 적합하였다. 특히 고은은 그의 삶과 그의 작품을 함께 다루어 볼 때, 그의 시정신을 깊게 느낄 수 있는 시인임을 알 수 있었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사	5
3. 연구 방법	11
II. 고은 시의 교과서 수록 현황과 학습활동	17
1. 수록 현황	17
2. 교과서에 수록된 고은 시의 학습활동	22
III. 고은 시의 교육적 가치	39
1. 표현기법과 교육적 활용	39
1) 문학 교육과 언어사용능력 증진	39
2) 이미지 구사와 형상화 기법	45
3) 비유적 표현을 통한 시 창작 교육	53
2. 감수성의 확충과 주제의식 탐구	61
1) 인지적·정의적 발달 촉구	61
2) 통과제의적 죽음의 이해	70
3) 비평적 글쓰기를 통한 내면화	80
3. 삶과 시를 통한 시정신의 함양	91
1) 문학 교육과 삶의 고양	91
2) 참여와 순수의 조화	96

3) 텍스트를 통한 재생산 능력	103
IV. 고은 시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	109
1. 표현 기법과 창작 교육	109
2. 주제의 내면화와 비평적 글쓰기	114
3. 텍스트 재생산과 창의성	120
V. 결론	127

참 고 문 헌

ABSTRACT

I. 서론

1. 연구목적

본 논문은 문학 교육의 관점, 특히 시 교육의 일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고은의 시들이 지닌 가치가 무엇인지 밝히고, 실제 중고등학교 시 교육의 현장에서 그의 주요 작품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를 논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고은 시의 작품들이 서정시로서 수준 높은 문학적 성취를 보였음은 물론 국어 교육의 자료로서의 의의 또한 갖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고은의 삶과 작품을 함께 살펴볼 때 찾을 수 있는 그의 시 정신을 규명하여 그것이 지닌 시 교육적 의의 또한 찾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것들을 규명하기 위해, 먼저 문학 교육 및 시 교육이 지닌 의의에 관한 이론들을 살필 것이다. 문학의 교육적 가치와 관련된 학자들의 견해를 검토하여 문학 교육이 지닌 가치, 시 교육이 지닌 의의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그러한 가치들이 반영된 시 교육에서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과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궁금해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학이란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그 속에서 느끼는 감정, 인간이 지향해야 할 가치 등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문학이기 때문이다. 이에 “문학 교육은 본질적으로 문학 능력의 향상을 통하여 인간다움을 성취하는 교육 활동”¹⁾으로 규정하고 있다.

1)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34쪽.

문학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견해들 중 핵심적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문학적 문화의 고양’, ‘상상력의 발달’, ‘삶의 총체적 이해’, ‘심미적 정서의 함양’, ‘민족정서의 이해와 습득²⁾’과 ‘언어 능력의 증진’, ‘개인의 정신적 성장’, ‘개인적 주체성 확립’, ‘문화 계승과 창조 능력 증진’, ‘전인적 인간성 함양³⁾’등이다. 이러한 다양한 문학 교육적 목표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보면, ‘언어 사용 능력의 증진’, ‘인지적·정의적 영역의 발달’, ‘삶의 고양(高揚)’과 같은 목표들로 요약될 수 있다.

문학 작품은 언어로 이루어진 것이다. 문학 작품은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소재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모두 언어로 표현된다. 따라서 문학 작품을 창작하고 감상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언어 사용 능력의 발달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학 작품에서는 수많은 인물들의 생각과 그들이 당면한 갈등 등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관련된 것들을 이해, 공감, 판단하는 과정에서 인지적·정의적 능력은 발달될 수 있다. 아울러 독자들은 문학 작품 속에 등장하는 사건들 속에서 인물들의 말과 행동 등을 접하면서 인간에게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인간이 지향해야 할 바는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시는 일반적으로 다른 장르와 달리 언어 사용이 더 정확하고 섬세하다. 시적 화자의 상황과 그에 따른 감정과 지향점 등을 많은 이야기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비유와 상징이 사용된 간결한 언어로 풀어내기 때문이다.

언어에 대한 섬세한 감각으로 시적 화자는 처한 상황과 정서를 표현하는 시는 읽는 이들에게 정서적 공감 능력을 길러준다. 또한 시에 담긴 의

2) 최현섭 외, 『국어교육론』, 삼지사, 2002, 433-438쪽 참조.

3)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38-67쪽 참조.

미를 파악하고 시적 표현의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독자들의 인지 능력은 향상될 수 있다. 아울러 시를 읽으면 세상과 사물과 인간에 대한 시인의 섬세한 감수성과 인간의 당면한 실존적 문제 상황도 인지할 수 있다. 시인이 보여주는 다양한 시세계를 통해 독자들은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 참기쁨과 슬픔을 느끼는지 공감하고 이해하게 되며 이를 통해 인간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깨닫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 교육의 목표와 관련하여 ‘언어 사용 능력의 증진’, ‘인지적·정의적 영역의 발달’, ‘삶의 고양(高揚)’과 같은 일반적인 사항들을 바탕으로 고은 시가 지닌 문학 교육적 의의를 찾고자 한다. 또한 위에 제시된 각각의 항목과 관련하여 고은 시에서 찾을 수 있는 세부적인 시 교육적 의의를 찾은 후 이를 잘 실현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고은(高銀, 1933-)은 1958년 시 「폐결핵」이 한국시인협회 기관지 <현대시>에 발표되고 이어서 서정주에 의해 「봄밤의 말씀」, 「三月寺韻」, 「눈물」 등 5편의 작품이 <현대문학>에 단회로 추천 완료됨으로써 문단에 등단하였다. 등단한 이래 지금까지 가장 많은 작품을 써 왔고, 그의 방대한 작품 활동은 양적인 확대를 넘어서 선시와 서사시를 아우르는 다양한 형식과 장르 실험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불교적 사유를 바탕으로 둔 직관과 통찰력은 시적 인식의 깊이와 풍부성을 가져와 우리 시의 질적 성숙의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

고은은 부정적 위악적 현실에 대한 부정과 개방의 정신을 통해 의식의 한계를 극복하며 창조적이고 역동적으로 자아를 조형하는 시인의 자기형성의 과정을 보여준 한국 문학계의 대표적 작가이다. 1950년대 이후 40년간 한국 문학계의 중심 공간에서 활동하면서 호방한 상상력과 빛나는 직관력, 독특한 언어구사를 바탕으로 시인의 감수성을 시대와 현실에

진밀하게 결합시킨 채 자신의 시세계를 다양화, 심화시켜 왔다. 시인이 등단하던 1950년대 후반은 문학계가 한국전쟁이라는 정신적 참상 속에서 절망감과 허무의식에 빠져 있던 시기이다. 민족의 생존 자체가 위기에 몰려 있었기에 전쟁의 비극성과 그로 인한 인간의 실존적 고민을 내면화할 정신적 여유를 갖기 어려웠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은 문학계가 한국전쟁이라는 정신적 참상 속에서 절망감과 허무의식에 빠져 있던 시기이다. 민족의 생존 자체가 위기에 몰려 있었기에 전쟁의 비극성과 그로 인한 인간의 실존적 고민을 내면화할 정신적 여유를 갖기 어려웠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 ‘전후파’를 중심으로 기존의 침체된 문단에 새로운 활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시의 언어와 형태에 새로운 실험을 시도하면서 전통의 변혁에 주력하였고 또한 사회적 인식과 현실 문제를 시 속에 포괄함으로써 인식의 확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김춘수, 김수영, 김규동 등과 함께 고은도 전후 시단의 주축을 이루었다.

고은의 시는 1950년대 시인들이 보여준 허무의식과 패배주의 등 부정적 의식의 연장성 아래 놓여 있으면서도 부단한 시적 갱신을 통해 그 극복을 시도하고 있다. 시의 영역이 지나치게 사사로운 세계로 한정되거나 감정적 편향에서 벗어나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다. 또한 부사어나 보조사, 어말어미의 교묘한 선택으로 환기되는 시적 의미의 다의성, 시에서 감각적으로 체험되는 풍부한 이미지성, 의성어 의태어의 효과적인 사용, 다양한 화자의 교체로 인한 극적인 효과, 선적 직관에 의해 일상 언어 담론을 넘어섬으로써 일어나는 존재론적 깨달음 등은 한국 현대시의 미학적 인식적 지평을 확대해 주고 있다.

그의 시세계는 시적 인식과 미적 형상화 방식에 따라 전기, 중기, 후기의 세 단계로 구분이 가능하다. 초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자아의식과 언술의 구조가 질적으로 변모되고 있다.⁴⁾

전기에서 중기로의 중요한 변화는 시적 세계의 확대(개인적 서정에서 공공의 세계로), 허무의식의 질적 변용, 수사법과 시적 형태의 변모에서 찾을 수 있다. 중기 1, 2기를 나누는 기준은 대사회적 의식이 시적 형태와 맞물리며 내면화되는가, 시 형식의 전면에 대두되는가의 문제이다. 후기는 다양한 시적 실험, 본래적 서정성의 세계로의 회귀, 언어의 압축성 등의 특성을 보여준다. 등단 이래 끊임없이 변모되어 온 고은의 시세계가 한국 현대시의 정신사와 다양한 방법적 전개를 포괄하고 있다.

이상의 특징을 바탕으로 본다면 시 정신, 새로운 시의 형식과 방법론의 면에서 고은 시가 지니는 교육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몇 편의 작품만이 다루어지고 있어 폭넓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7차 고등 문학교과서와 2007 개정 중학교 교과서의 수록된 고은 시의 학습 활동을 고찰해보고 고은의 시편들 중에서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작품을 선택하여 논의를 전개해 가고자 한다.

2. 연구사

고은 시에 대한 논의는 다방면으로 풍부하게 진행되어 온 것에 비해 문학 교육 측면에서 고은 시를 검토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시 교육 현장에서 고은 시의 미학적 특징들이 제대로 교수-학습 되고 있는지에

4) 전기-피안감성, 해변의 운문집, 신·언어의 마을
중기-1기: 문의마을에 가서, 세노야, 復活, 入山

2기: 새벽길 이후

후기-만인보, 백두산 이후, 아침이슬 이후

(강현정, 「고은 시 연구: 이미지 구조와 존재론적 전이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대한 검토나 효과적인 교육적 활용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문학 교육의 측면에서 고은 시의 미학적 특질들을 살펴보고 그 문학 교육적 가치와 교육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고은 시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전기론적 접근과 시적 변모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이미 지나 의식의 변용을 다룬 연구, 대사회적 현실 인식과 결부된 평가, 시적 인식에 대한 불교적 접근 등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과 관련된 연구 업적은 ‘시세계의 변모과정’과 ‘형상화 방식’에 초점을 둔 논의들이다. 먼저 시세계의 변모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논의에 대해 살펴보겠다.

김종철⁵⁾은 『文意마을에 가서』를 시적 변모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파악한다. 그 근거로 초기 시의 사사로운 세계가 중기 『文意마을에 가서』에 이르러선 공적인 세계로 확대되고 일관되게 흐르는 시적 정조였던 허무의 감정을 확대하고 심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주연⁶⁾은 『入山』이전의 고은이 보여준 허무는 자신을 감각적으로 분해하여 거기서 생기는 주체할 길 없는 슬픔이 만든 것으로 인간 그 자체에서 유발되는 비극으로 본다. 그러나 중기에 이르러선 모호한 내포로서 사용했던 일련의 허무적인 이미지들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의 사물로 바라보고 인식을 행함으로써 시적 대상화하는 대신에 그것을 허무하도록 만드는 구체적 현실을 발견하며 현실 인식을 좀더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김현⁷⁾은 초기 시편에서의 정신적 도정이 자신의 죽음을 먼저 죽은 누이에 대한 집요한 집념이었고 그것이 파멸에 대한 요구로서 극명하게 나

5) 김종철, 「시와 긴장」, 『문학과 지성』, 1974 겨울호.

6) 김주연, 「김춘수와 고은」, 『세계의 문학』, 1978 여름호.

7) 김현, 「바다의 무덤에 대하여」, 『월간문학』, 1970 5월호.

타난다고 본다. 그러나 중기 이후에는 파멸에 대한 편향을 맑고 빛나는 자기 구원의 확인으로 변모시키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김현⁸⁾은 『피안감성』에서 『해변의 운문집』으로 변화해 가는 초기 시 세계에서 변모 양상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의 핵심은 첫째, 과잉된 의식의 제스처가 많이 가시고 시적으로 완전히 변용된 어휘들이 등장, 둘째로는 추상적 가치의 확대, 셋째로는 토씨의 빈번한 탈락과 목적격이나 감탄문을 이끄는 부사의 오용으로 야기되는 시적 애매성의 효과에 대한 것이다.

김현자⁹⁾는 고은 시의 변용 과정을 시인의 내면의식의 변모와 문학적 담화 양식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고은 시의 특성을 자연이 지닌 변전의 요소와 예리한 감성에 의해 파악되는 순수한 서정성으로 보고 있다.

백낙청¹⁰⁾은 고은이 감수성과 직관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그것이 불교적 사고의 일면과 결합되어 산문의 논리를 넘어서서 시적 통찰에 이르지 못해 어떤 경우에는 평범의 조리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이경호¹¹⁾는 고은 초기 시의 꺾끄러운 문체와 표현법이 세계를 소멸과 상실의 과정으로 보는 비극적 인식과 그것을 언어의 힘으로 정착해 보려는 긍정적 노력 사이에 성립한다고 본다.

둘째, 형상화 방식에 주목하는 논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고은 시인의 조어법이나 미적 거리 등에 논의가 집중된다. 염무웅¹²⁾은 시인의 조어법에 주목해야 함을 지적한다. 고은의 시를 현세적 자연과 삶

8) 김현, 「시인의 상상적 세계」, 『한국문학의 이론』, 민음사, 1982, 368-369쪽.

9) 김현자, 『한국시의 감각과 미적 거리』, 문학과 지성사, 1997.

10) 백낙청, 「한 시인의 변모와 성숙」, 『세계의 문학』, 1984 여름호.

11) 이경호, 「허무에서 역사로, 다시 새로운 삶으로의 질주」, 『문학정신』, 1992.

12) 염무웅, 「고은의 시 세계」, 시집 『부활』 해설, 민음사, 1975.

의 소멸 작용에 대한 필사적 자기 방어이며 생멸의 과정에서 시인에 의해 순간적으로 포착되어 언어의 형태로 응결된 것으로 본다.

박철휘¹³⁾는 고은의 시가 피안감성과 이승의 감각, 그 어디에도 안주할 수 없는 자기 동일성의 상실을 노래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정과리¹⁴⁾는 고은의 이념 지향의 시가 ‘드디어’, ‘기필코’ 등의 의지의 극한을 나타내는 부사, ‘함께’, ‘모두’, ‘온통’ 등 일체성을 표현하는 부사어의 빈번한 사용, ‘어찌 - 아니 하겠느냐’ 등의 강한 긍정을 위한 부정의문법이 반복적으로 나타남을 주목하고 있다. 부사성의 시학은 물리적 현실에 대한 성실한 추적, 그러한 모순 속에서의 올바른 현실의 가능성의 구체적 발견을 가져다 주지 못하며 정신에 의한 물리적 현실의 무화를 성급하게 기대하는 조바심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한다.

장경렬¹⁵⁾은 『문의마을에 가서』를 중심으로 그의 시가 죽음이나 허무와 같이 그 어떤 궁극적인 의미에도 도달할 수 없음을 인간의 언어가 지닌 불확정성을 통해 설명하고 시인이 이 시기까지 추구하던 세계가 인간의 행위 이전에 존재하는 절대적 의미의 세계임을 주목한다. 『입산』 이후에는 역사와 민족, 삶에 대한 직설적이고 전투적인 언어가 그의 시 세계를 지배한다고 본다.

이동순¹⁶⁾은 고은의 시가 인간 존재에 대한 집요한 탐구 과정임을 제시한다. 초기 시의 행려의식은 중기 시에서 폭지일과의 정신혁명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편향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존재의 끊임없는 전이를 이루기 위해서 항상 현실 안주, 정체, 나태에 맞서 싸우고 비판하며 그것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최원식¹⁷⁾은 초기 시가 현상계를 공에 의지해 부정함으로써 공(空)의 개

13) 박철휘, 「선정과 세속의 거리」, 『고은을 찾아서』, 버팀목, 1995.

14) 정과리, 「부사성의 시학」, 『예술과 비평』, 서울신문사, 1984 가을, 161-166쪽.

15) 장경렬, 「문의마을과 청진동 또는 초월 세계와 인간 세계」, 『고은을 찾아서』, 버팀목, 1995, 221-236쪽.

16) 이동순, 「존재의 전이에 대하여」, 『고은 문학의 세계』, 창작과 비평사, 1994.

념을 실체화한 출세간의 경지라면, 중기 시는 그 전면적 반동으로 현상계 곧 색을 실체화한 세간의 경계에 매인 것이며 안정 시대에 즈음하여 공과 색, 유와 무, 이 두 대립을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화엄적 통일에 다다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계전¹⁸⁾은 고은의 시가 『문의마을에 가서』에 이르러 초기 시의 개인적 갈등을 청산하게 되며 드디어 시인의 세계관 사이의 대결로 귀착되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이유경¹⁹⁾은 시집 『문의마을에 가서』 이후 그의 시가 보편성을 지니게 되었음을 지적한다. 그것은 종전의 그의 시가 보여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생략된 언어의 비약이 배제되면서 시대적 고뇌와 시인의식이 긴밀하게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본다.

이승훈²⁰⁾은 고은과 신경림의 시를 대비하면서 1970년대 한국시에 나타난 현실 인식의 경향을 추상적 인식과 구체적 역사적 인식의 경향으로 구분한다. 이외에도 그의 시 세계에 대한 조명은 여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에 대한 논의는 우선 전기론적 접근과 시적 변모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이미지나 의식의 변용을 다룬 연구, 대사회적 현실 인식과 결부된 평가, 시적 인식에 대한 불교적 접근 등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문학 교육적 관점이라는 틀 안에서 시 교육이 갖는 의미를 찾아서 고은 시에 대입한 연구는 현재까지 전무한 상태이다.

다음으로 시교육에서 본 논문에 적용할 만한 연구업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17) 최원식, 「에로스와 해탈」, 위의 책, 1994.
18) 한계전, 「작품과 세계와의 관계」, 『문학과 지성』, 1978, 320-328쪽.
19) 이유경, 「고은과 60년대」, 『현대시학』, 1973.
20) 이승훈, 「현실 인식의 두 경향」, 『현대시학』 1972, 68-73쪽.

김근호²¹⁾은 비평적 글쓰기의 교육적 의미를 ‘① 공론 활동의 연행과 내면화 ② 메타적 소통 능력의 확장 ③ 사회적 문식력의 신장’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다. ‘거리두기’를 통해 표현 주체는 이데올로기의 왜곡에 따른 뒤틀린 의사소통 상황을 바로잡거나, 타자와 자신의 논리에 대한 점검을 할 수도 있다. 바로 이러한 원리로 학습자는 주체적 자율성을 신장시킬 수 있다. 그리고 문식성의 발달이 주로 사회적 상호 작용 속에 이루어진다고 보고 읽기·쓰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적 필요와 요구, 그리고 필자 및 독자의 사전 지식, 태도, 목적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의 정신적 과정이라 하였다.

손진은²²⁾은 원텍스트에 대한 모방시 쓰기를 통해 자신만의 표현법을 개발하고 자신의 어법을 만들어 갈 수 있어 독창적인 창작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모작, 혹은 모방시 쓰기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남의 글을 모방하면서 시의 구조를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되고 남의 글을 따라가는 가운데 글 쓰는 방식을 알아갈 수 있으며, 글을 쓰는 방식을 익히면서 남의 글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체계적인 모방시 교육을 통해 우리는 남의 시를 보는 눈을 크게 향상시키고 또한 시 깊이 읽기를 통한 경험 확장은 물론 시의 구조를 내면화하여 자신의 표현법과 세계를 개발해나가는 데 하나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본 논문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연구 업적 중에서 역사 전기적 관점과 사회 문화적 관점의 성과들은 고은의 삶과 연관된 시 정신을 찾기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실존적 문제와 고은 시의 주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현상학적 관점의 성과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고은 시의

21) 김근호, 「비평 논쟁 글쓰기의 방법 연구-1960년대 순수·참여 논쟁」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22) 손진은, 「독창적 창작 이전 단계로서의 모방시 쓰기」, 『시안』 29호, 2005.

수사적 특징과 관련하여서는 형식주의 관점의 성과들이 참고가 될 것이다.

3. 연구 방법

본 논문은 교육연구로써 고은 시의 전반적 면모를 고찰하여 문학 교육에서 고은 시가 갖는 가치를 규명하고 문학 교육적 가치와 활용방안을 해당 작품의 특징에 알맞은 교수-학습 방법을 탐구하고 논의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시 교육 교수-학습 방법의 일반적인 절차모형을 바탕으로 기본 모형을 설정하여 적용하도록 하겠다.

시 교육 교수-학습의 방법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절차 모형을 보면, 먼저 1970년대 후반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시한 문학 교수-학습의 일반 절차 모형인 ‘계획→진단→지도→발전→평가’의 5단계를 일부 변형하여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인 수준별 수업까지 고려하여 고안된 모형이 보편적이다. 이러한 모형은 지금까지 제시된 시 수업 모형 중에서도 상당히 상세한 수업모형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점²³⁾²⁴⁾도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내면화’가 사실상 수업의 사태를 벗어났다는 점이다. 평가의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내면화’가 실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내면화’는 사실상 수업의 목표에 해당되는 것이기에 반드시 수업 중에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문

23) 문학 교수-학습의 일반 절차 모형에 대해서는 1970년대 후반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시한 ‘계획→진단→지도→발전→평가’의 5단계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모형이 평가 단계 이후에 나타날 수도 있는 장기적 내면화의 과정을 다루지 못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한 이론서는 이 점을 보완하여 ‘계획→진단→지도→평가→내면화’로 설정하고 각 단계는 상호간에 피드백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았다.(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1998, 252쪽.)

24) 이 모형은 학습 이후의 과정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평가받을 만하지만 ‘내면화’의 단계를 수업 사태 속에서 가시적으로 파악하기가 곤란하고 수업의 물리적 여러 조건 속에서 의도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373쪽 인용.

학의 감상이 근본적으로 작품 읽기를 토대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 교수-학습 모델²⁵⁾도 제시되었다.

여기서의 단계 설정은 문학 교육 시간에 작품을 접하게 될 학생들에게만 초점을 맞춘 단계 설정이다. 이것은 교사의 수업 준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학생 지도를 위해 필요한 부분들은 축소된, 학생 중심-텍스트 중심의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들의 작품 이해, 감상, 작품에 나타난 내용과 가치에 대한 내면화 등에는 유용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수업 목표 달성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점검해야 할 부분까지 고려한 교수-학습 과정을 생각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내면화를 포함하면서 수업현장에서 적절한 학생 지도를 위한 실제적인 방안까지 고려한 교수-학습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시각에서 교수-학습을 위한 가장 중핵적인 3가지 단계(계획-지도-평가)를 바탕으로 시 교육에 적합한 교수-학습 단계를 재설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계획 단계

- (1) 학습 목표 설정
- (2) 학습 진행 방법 및 과제 검토 및 설정
- (3) 적절한 평가 방법 설정 및 공지

25) 1. 미리 생각해 보기
2. 알아 두기
3. 작품의 이해와 감상
4. 생각하기
5. 표현하기
- 앞의 책, 374-376쪽 참조.

2. 지도 단계

- (1) 시 읽기
- (2)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 파악
- (3) 작품의 세부적 내용 및 표현 이해
- (4) 작품에 대한 총체적 감상 및 평가
- (5) 시적 체험의 확장 및 내면화와 관련된 활동 실시

3. 평가 단계

- (1) 학습 목표 달성 및 작품 이해·감상 능력 평가
- (2) 시 창작 활동 평가

본 논문에서는 이렇듯 계획-지도-평가의 3단계를 설정하고 이를 고은시의 문학 교육적 의의를 수업 현장에서 실현할 구체적 교수-학습 방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설정된 학습 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도 및 평가 방법과 관련하여 시 창작, 학생 의견 발표(토론), 비평적 글쓰기를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평가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 평가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시 창작은 시적 언어의 세련된 표현을 자기 스스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좋은 방법이다. 토론을 통해 학생들은 학습의 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이해력, 논리력, 표현력을 기를 수 있다. 비평적 글쓰기를 통해서 학생들은 작품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통해 주어진 학습 목표를 주체적으로 내면화 할 수 있다. 또한 단순히 결과만을 평가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답안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과정평가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자발적 수업 참여 분위기 조성 및 평가의 공정성 확보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미리 평가 항목을 알려 주는 방식을 계획 단계에서 밝혀 두었다. 이러한 교수-학습 단계를 바탕으로 고은 시의 교육적 가치를 잘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4장에서 구성하도록 하겠다.

먼저 ‘고은 시의 교과서 수록 현황’은 현재 2007년 개정 중학교 교과서에 「등대지기」와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성묘」, 「문의마을에 가서」, 「눈길」, 「머슴 대길이」 이렇게 다섯 작품이 수록된 것을 통해 수록현황과 개별 작품들의 학습활동 및 학습요소를 고찰할 것이다.

‘고은 시의 교육적 가치’는 각 절의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고은 시 교육방법론 연구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표현기법과 교육적 활용’은 문학이 ‘언어로 표현된 예술’이므로 그 시적 언어에는 고유의 특징이 있음을 지적할 것이다. 리처즈의 이론에 따르면 언어는 ‘언어의 과학적 용법’과 ‘언어의 정서적 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는 어떤 대상을 정확하게 지시하는 과학적 용법이고 후자는 이와 달리 효과적으로 정서를 빚어내는 정서적 용법이다. 시적 언어는 일상적인 언어로 ‘사물의 새로운 국면’을 담아내어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고 인간의 깊은 정서와 지향해야 할 가치까지 표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는 총체적 언어 교육의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임을 밝힐 것이다.

이미지의 제시가 참신하고 세련된 표현으로 드러나는 시를 읽고 감상하는 것은 언어사용능력을 향상시키는 시 교육의 핵심이기 때문에 고은 시 중에서 특징적인 작품을 선택하여 활용할 것이다. 고은 초기시의 주된 모티프인 ‘길 이미지’는 초기 시세계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허무주의와 얽혀있음을 확인하기에 어렵지 않다. 또한 고은 시에서 보여주는 어휘·어법적인 특징을 여러 국면으로 살피고 그 시적언어의 특징을 밝히겠다.

다음으로 ‘감수성의 확충과 주제의식 탐구’에서 인지적 발달과 관련하여 비고스키(Vygotsky)는 아동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는 사회적 존재임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사회·문화·역사적인 측면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은 독립적 활동이 아니라 사회학습의 결과이며, 일상에서의 과제해결은 성인이나 혹은 뛰어난 동료와의 대화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비고스키(Vygotsky)는 상호작용에 필수적 요소인 언어의 습득을 아동발달에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해 볼 때, 결국 인간의 인지적 발달은 언어 사용 능력의 신장과 분리될 수 없다고 하겠다.

문학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접하면서 다양한 인물들의 사회 문화적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이러한 체험들은 학생들의 인지 능력의 발달에 기여한다. 특별히 문학 작품은 개인의 생활 차원의 문제들을 다룰 뿐만 아니라 사회·역사적 차원의 삶에 깊은 관련이 있다. 문학 작품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반영한다. 이러한 문학 작품 속에는 당대의 특정 계층의 목소리가 담겨 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작품들을 배우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스키마는 확장된다.

문학 교육은 학생들에게 단순히 수치로 제시할 수 있는 진실을 다양한 삶의 모습을 통해 경험하여 인간과 사회와 역사에 대한 인지적 능력의 향상을 불러 올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그에 따른 감정에 공감함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세상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바람직한 사회생활과 나아가 이상적인 공동체 건설을 위해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 교육이 바로 이러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을 밝힐 것이다.

아울러 초기 시세계를 시인의 생애사적인 면과 결합하여 파악하면 작

품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불러올 수 있다. 이에 대한 비평적 글쓰기는 문학적 해석 능력, 논리적인 글 전개 능력, 비판적 사고력 등 많은 부분에서 학생들의 사고력과 글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고은의 초기 시세계인 허무의식과 죽음의식, 반복했던 자살 시도 등의 생애사를 왜곡되지 않게 수용하기 위하여 정서적 공감 및 해결방향 인식, 표현 능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당시의 허무의식은 가장 적합한 현실인식이자 역사의식이었고 허무의식을 견지함으로써 현실인식과 역사의식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삶과 시를 통한 시정신의 함양’에서는 일상에 함몰된 채 살아가기 쉬운 인간은 시를 통해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를 읽고 해석하거나 시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삶의 존재 의미를 느끼고 인간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고은의 시는 초기 순수시에서 사회 참여시로 나아갔고 결국 그들의 조화를 이뤄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문학을 통해, 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삶의 고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점들은 문학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일깨워 주어야 할 부분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텍스트를 통한 재생산 능력’으로 1차적으로 모방시 짓기를 통해 기존의 시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재창조하여 시를 읽으면서 학습자가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감상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학습자가 경험하지 못한 시의 세계를 자아의 경험세계로 바꾸어 써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상상력으로 시의 의미와 정서를 변화시켰으며 시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생생한 여러 경험을 이끌어 낼 수 있고, 학생들의 감수성을 자극하면서 상상력을 유도해 낼 수 있다. 시인의 창작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앞 장에서 밝힌 고은 시의 교육적 가치를 바탕으로 고은 시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활용하도록 하겠다. 3장의 ‘1. 표현기법과 교육적 활용’에서는 표현적 측면, ‘2. 감수성의 확충과 주제의식 탐구’에서는 주제적 측면, ‘3. 삶과 시를 통한 시정신의 함양’에서는 수용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단계적으로 구상하도록 하겠다.

II. 고은 시의 교과서 수록 현황과 학습활동

1. 수록 현황

현재 국어 교육과정에서 ‘문학’ 영역의 교육은 비교적 여러 교과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상·하권으로 편성되고 필수 과목인 ‘국어’와 ‘문학’ 뿐만 아니라 ‘독서’, ‘작문’ 영역에서도 문학 관련 제재는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특히 ‘국어’와 ‘문학’영역에서는 한국 문학은 물론 세계 문학에 걸친 다양한 작품들을 학습의 재로로 선정하여 균형적인 사고와 안목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는 고등학교의 심화선택과목 중 ‘문학’ 과목의 「문학」 교과서와 2007년 개정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고은 시의 현황을 살펴 보겠다. 먼저 각각의 교육목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7차 고등학교 ‘문학’ 과목의 목표>

문학의 수용과 창작 활동을 통하여 문학 능력을 길러, 자아를 실현하고, 문학 문화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바람직한 인간을 기른다.

가. 문학 활동의 기본 원리와 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이해한

다.

나. 작품의 수용과 창작 활동을 함으로써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기른다.

다.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세계를 이해하며, 문학의 가치를 자신의 삶으로 통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라. 문학의 가치와 전통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문학 문화 발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2007년 개정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국어 활동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가.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 사용 상황에 활용하면서 자신의 언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한다.

나. 담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담화와 글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생산한다.

다.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며, 국어의 발전과 미래 지향의 국어 문화를 창조한다.

7차 고등학교 ‘문학’과목 목표는 문학의 수용과 창작을 통해 문학 능력을 길러 자아를 실현하고 문학 문화 발전에 참여함에 있고, 2007년 개정 중학교 국어의 목표는 맥락을 고려하여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

용하고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런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고은 시의 수록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7차 고등학교 『문학』 18종 교과서 수록 현황

수록시	단원명	수록 교과서	비고
눈길	Ⅱ. 시의 수용과 창작 1. 시의 서정과 시적 자아	문원각(상)	단원의 마무리
머슴 대걸이	Ⅲ. 문학의 가치화와 태도 2. 문학 활동에의 참여와 태도 (2) 인간과 세계의 통합적 이해	디딤돌(하)	본문
문의 마을에 가서	Ⅳ. 주제별 수용과 창작 3. 삶의 애환과 죽음	형설(상)	본문
성묘	Ⅲ. 문학에 대한 올바른 태도 3. 문학 문화 발전에 어떻게 기여 할 것인가? (2) 통일·민족 문학 발전을 위한 기여	교학사(하)	본문

7차 개정 중1 검인정 국어 교과서 수록 현황

수록시	단원명	수록 교과서	비고
등대지기	1. 마음의 빗갈	지 학 사 (방 민 호)1-2 국어	단원 길잡이
	Ⅰ. 시와 노래가 있는 생활 2. 노랫말 짓기	교 학 사 (남 미 영)1-2 생국	들어가기 전에

고은 시는 7차 문학 교육과정의 네 가지 영역 ‘① 문학의 본질, ② 문학의 수용과 창작, ③ 문학과 문화, ④ 문학의 가치’ 영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수록된 교과서의 수가 많지 않고 특히 중1 교과서에서는 본문 외에 수록되고 있다.

고등학교 18종 『문학』 교과서에서 고은의 시에 대한 문학사적 평가를 보면 사회적 참여가 깊은 ‘민중시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문원각과 형

설에서 출판된 문학 교과서를 보며 이런 설명이 실려 있다.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문원각(상)

고은의 활동 및 작품 경향

-1960년대 : 허무의 정서에 바탕을 둔 생에 대한 절망을 노래. 시적 자아의 형상에는 삶에 대한 의지나 집착보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작품 : <피안감성>(1960), <해변의 운문집>(1964), <신 언어의 마을>(1967)

-1970년대 : 시적 자아는 자기 혐오나 허무감을 떨치고 역사와 현실 앞에 서기 시작하여 동시대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과 민중 중심의 역사관에 바탕을 둔 자기 인식을 통해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 대한 격렬한 투쟁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작품 : <문의 마을에 가서>(1974), <입산>(1977), <새벽길>(1978)

-1980년대 이후 : 시인의 상상력을 통해 현실의 다면성을 그려내려 시도 연작시 '만인보'와 장시 '백두산'이 창작되었다.

- 형설(상)

고은의 시세계

시인 고은은 1958년 조지훈의 천거로 《현대시》 1집에 「폐결핵」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인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다. 초기 그의 시가 허무주의적인 색깔이 강한 시라면 1970년, 전태일 분신 사건과 실패한 자살 기도를 통해 그는 또 한번의 스스로의 소멸과 새로운 부활을 통해 시인 고은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이후 그는 미학을 동반한 현실 참여와 역사 참여를 영혼의 울림으로 말하게 되었다. 시의 죽음

과 죽음 사이에서 발견한 ‘참여’ 초기 그의 시는 인간의 삶과 죽음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지식인들의 허무주의에 대해 「피안감성」, 「해변의 운문집」 등을 통해 고뇌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하지만 시인 고은 1970년도 평화 시장의 노동자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을 보면서 개념 속에서 죽음과 삶에 대한 들어내어움은 철저하게 사치로 규정하고 사회의 집단적 부조리로 신음하고 죽어 가는 민중의 삶의 현장에서의 존재의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었다.

그의 초기 작품 「문의 마을에 가서」를 보면 그는 분명히 60년대의 허무와 절망은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실체임에 대해 통곡했고, 그 통곡을 눈 속에 묻어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현실 참여 속에서 행해져야만 하는 미학의 새로운 실천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중략>

이 시를 통해 그는 관념적인 죽음과의 단절을 결단한다. 이후 그는 민중을 탄압하는 모든 것과의 치열한 투쟁을 했다. 가난한 민중의 삶에 분노를 미학을 동반한 역사와 현실 참여 문학을 피했고 인간의 자유성을 억압하는 모든 것에 그는 몸을 던져 투쟁했다. 1980년 5월부터 시작된 장기간의 투옥과 고문 그리고 연금은 목숨을 걸고 이루어내야 하는 참 인간의 참 자유함을 절대적인 그의 사명으로 만들었다.

……허공이 소리친다 허공 뚫고 온몸으로 가자 저 캄캄한 대낮 과녁이 달려온다 이윽고 과녁이 피 뿔으며 쓰러질 때 단 한번 우리 모두 화사로 피를 흘리자……

- 「화살」 중에서

그는 이 시를 통해 역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시의 본질을 감추고 있던 언어의 이데올로기적인 외피들을 시의 서정성과 절묘하게 조화시킴으로 인간의 역사와 호흡하는 현실 참여 시인으로 우뚝 서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영주, 「영혼의 울림으로 참 자유를 실천 미학으로 승화시킨 시인, 고은」 중에서

정리해보면, 고은은 그의 생 안에서 생을 다 던져 부활과 소멸이라는 명제를 갖고 끝없이 새로운 탄생을 시도하였던 것이었다. 그러나 전태일 분신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60년대의 그의 허무와 절망은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는 현실 참여 속에서 행해져야만 하는 미학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그는 개인의 좌절과 시대의 아픔을 날카로운 시어로 항거했고 한편으로는 슬픈 역사의 늪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민중에게 슬픔을 안아 주는 희망으로 존재하였다. 이런 고은의 시 세계는 순수 자유, 현실 참여, 민족 시인의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2. 교과서에 수록된 고은 시의 학습활동

고은 시는 제 7차 교육과정 18종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눈길」, 「문의마을에 가서」, 「머슴 대길이」, 「성묘」와 2007년 개정 중 1 검인정 국어 교과서에 「등대지기」가 수록되었다. 각 교과서에 수록된 개별 작품들의 학습목표 및 학습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눈길

이제 바라보노라.
지난 것이 다 덮여 있는 눈길을.
온 겨울을 떠돌고 와
여기 있는 낯선 지역을 바라보노라.
나의 마음 속에 처음으로
눈 내리는 풍경
세상은 지금 목념의 가장자리
지나 온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설레이는 평화로서 덮이노라.
바라보노라 온갖 것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
눈 내리는 하늘은 무엇인가.
내리는 눈 사이로
귀 기울어 들리나니 대지의 고백
나는 처음으로 귀를 가졌노라.
나의 마음은 밖에서는 눈길
안에서는 어둠이노라.
온 겨울의 누리 떠돌다가
이제 와 위대한 적막을 지킴으로써
쌓이는 눈 더미 앞에
나의 마을은 어둠이노라.

(시집 『피안감성』 1960)

「눈길」은 문원각(상)에서 본문 외 제재로 실려 있다. 이 시가 교과서에서 어떠한 학습요소를 중점으로 학습 활동이 전개되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 「눈길」의 『문학』 교과서 학습활동 >

단원명	학습목표	학습활동	수록 교과서
Ⅱ. 시의 수용과 창작 1. 시의 서정과 시적 자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과 언어와 삶의 관계를 이해한다. • 복합 구조물로서 문학의 특징을 이해한다. 	심화2. 고은 시의 ‘눈길’을 감상하고, 김수영의 시 ‘눈’과 시적 자아의 현실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자.	문원각(상)

단원 마무리의 심화 활동으로 ‘시의 서정과 시적 자아’의 학습 목표를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제까지 학습한 시적 자아의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고은의 ‘눈길’과 김수영의 ‘눈’에 나타난 시적 자아의 현실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파악해 보도록 구성하였다.

지도서의 내용을 보면, 앞 부분에서 학습한 김수영의 ‘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작품에 나타난 시적 자아의 현실 인식을 정리해 보도록 한다. 그리고 고은의 ‘눈길’을 모듈별로 감상하고, 시적 자아의 정서와 태도를 파악하게 한다. 이 작품은 다소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므로, 교사의 보충적인 설명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예시 답안을 보면, ‘온 겨울을 떠돌고 와’, ‘온 겨울의 누리 떠돌다가’라는 구절을 통해 시적 자아는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오래도록 방황을 거듭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황의 끝에서 그는 모든 것을 덮

어 버리는 눈을 ‘이제’ 바라보며 ‘나의 마음 속에 처음으로’ 솟구쳐 오르는 벽찬 감동과 희열을 느끼고 시적 자아는 관조적인 자세로 무념무상의 경지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에 김수영의 ‘눈’에서 시적 자아는 ‘기침을 하자.’ ‘가래를 뱉자’라며 부조리한 현실을 단호하고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는 차이를 보인다고 하고 있다.²⁶⁾

여기서는 시적 자아의 현실 인식 태도를 구절의 해석을 통해서 지도하고 있다. 시의 해석은 학습자의 다양한 반응을 유도할 수 있고 「눈길」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의 시라 그 반응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그리고 시적 자아가 처한 상황과 그에 대한 태도를 인식하기에는 실제 화자가 놓인 상황과 왜 그런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없어 다소 추상적이라 느껴진다.

(2) 머슴대길이

새터 관전이네 머슴 대길이는
 상머슴으로
 누룩도야지 한 마리 번쩍 들어
 도야지 우리에게 넘겼지요.
 그야말로 도야지 떡 따는 소리까지도 후딱 넘겼지요.
 밤 때 늦어도 투얼덜 줄 통 모르고
 이른 아침 동네길 이슬도 털고 잘도 취워 훤히 가리마 났지요.
 그러나 낮보다 어둠에 빛나는 먹눈이었지요.
 머슴 방 등잔불 아래

26) 한철우 외, 『문학 교사용 지도서(상)』, 문원각, 2003.

나는 대길이 아저씨한테 가가거겨 배웠지요.
그리하여 장화홍련전을 주룩주룩 비 오듯 읽었지요.
어린아이 세상에 눈 떴지요.
일제 36년 지나간 뒤 가가거겨 아는 놈은 나밖에 없었지요.

대길이 아저씨더러는
주인도 동네 어른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지요.
살구꽃 핀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홀적삼 큰아기 따위에는 눈요기도 안하고
지게 작대기 뉘어 놓고 먼데 바다를 바라보았지요.
나도 따라 바라보았지요.
우르르르 달려가는 바다 울음소리 들었지요.

찬 겨울 눈 더미 가운데서도
덜렁 겨드랑이에 바람 잘도 드나들었지요.
그가 말했지요.
사람이 너무 호강하면 저밖에 모른다.
남하고 사는 세상인데

대길이 아저씨
그는 나에게 불빛이었지요.
자다 깨어도 그대로 켜져서 밤새우는 불빛이었지요.

「머슴 대길이」은 디딤돌(하)에서 본문 제재로 실려 있다. 이 시가 교과서에서 어떠한 학습요소를 중점으로 학습 활동이 전개되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 「머슴 대길이」의 『문학』 교과서 학습활동 >

단원명	학습 목표	학습활동	수록 교과서
<p>Ⅲ. 문학의 가치 화와 태도 2. 문학 활동에의 참여와 태도 (2) 인간과 세계 의 통합적 이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의 가치 판단 기준과 원리를 이해하고, 작품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 문학 활동의 가치를 인식하고, 문학 활동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문학 활동을 통해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세계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며, 자아와 세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 한국 문학의 가치를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통일 민족 문학으로서 한국 문학의 지향에 동참할 수 있다. 	<p>(친해지기) 1. 이 시의 화자가 구사하고 있는 어투의 특징에 대해 말해 보자.</p> <p>(꼼꼼히 읽기) 1. 시의 화자가 머슴 대길이의 여러 행적 중 의미 있다고 판단하여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해 보자.</p> <p>2. 이 시에서 그려진 머슴 대길이의 여러 가지 이미지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자.</p> <p>3.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지향할 때 참고해야만 할 대길이의 행적과 말을 지적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p> <p>(시야넓히기) 대길이는 시의 화자에게 “사람이 너무 호강하면 저밖에 모른다. 남하고 사는 세상인데”라고 했다. 여기서 ‘남’을 사람만</p>	<p>더 덤 돌 (하)</p>

		<p>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존재로 보았을 때, 대길이의 발언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토의해 보자. (표현하기) 이 시의 화자가 같은 내용으로 대길이의 전기(轉記)를 쓴다고 가정하고 아래의 글을 이어서 완성해 보자.</p>
--	--	--

이 단원에서 「머슴 대길이」는 작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구체적인 인물을 시적 대상으로 삼아 인간과 세계와 역사를 대하는 시인의 관점과 시인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세계 문학의 일원으로서 한국 문학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가치를 발견한다는 이 단원의 학습 목표와 관련하여, 이 시에서 시적 대상으로 삼은 ‘대길이’라는 인물의 삶을 이해하고 그를 통해 시인이 드러내고자 한 바람직한 삶의 가치가 무엇이며, 그러한 가치가 세계 문학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도록 짜여 있다.

학습활동을 보면 시적 화자의 어투가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소박하고 친근한 느낌을 주며’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반영함을 알게 하고 있다. 다음으로 시의 화자에게 있어서 머슴 대길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우치고 가르쳐 준 사람으로 시에 나타난 행적으로 건강하고 근면·성실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의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으

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세계 문학의 훌륭한 일원으로서 그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인류의 문학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중에 하나는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을 극복하고 모든 인류가 더불어 사는 공존 공영의 삶을 모색하는 것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세계 문학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다.²⁷⁾

교과서에 실린 「머슴 대길이」는 시인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사는 것인가를 감동적으로 깨닫게 해 준 사람들에 관한 몇 편의 시(時) 중의 하나이다. 소외되고 박해받는 계층인 머슴 ‘대길이’가 이 시에서 보여 주는 남을 위해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사람을 사랑하는 인간상, 수난의 역사를 이겨 온 생명력과 건강성, 우리의 삶의 터전인 대지에 모여 사는 모든 사물에까지 속속들이 적용되는 ‘함께 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 세계 문학의 일원으로서 한국 문학이 계승할 만한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하여 구성된 작품이다.

(3) 문의 마을에 가서

겨울 문의(文義)에 가서 보았다.

거기까지 다다른 길이

몇 갈래의 길과 가까스로 만나는 것을.

죽음은 죽음만큼

이 세상의 길이 적막하기를 바란다.

27) 김종철 외, 『문학 교사용 지도서(하)』, 디딤돌, 2003.

마른 소리로 한 번씩 귀를 달고
길들은 저마다 추운 소백산맥(小白山脈)쪽으로 뺨는구나.
그러나 빈부에 젖은 삶은 길에서 돌아가
잠든 마을에 재를 날리고
문득 팔짱 끼고 서서 참으면
먼 산이 너무 가깝구나.
눈이여 죽음을 덮고 또 무엇을 덮겠느냐.

겨울 문의(文義)에 가서 보았다.
죽음이 삶을 꼭 껴안은 채
한 죽음을 무덤으로 받는 것을.
끝까지 참다 참다
죽음은 이 세상의 인기척을 듣고
저만큼 가서 뒤를 돌아다본다.
지난 여름의 부용꽃인 듯
준엄한 정의(正義)인 듯
모든 것은 낮아서
이 세상에 눈이 내리고
아무리 돌을 던져도 죽음에 맞지 않는다.
겨울 문의여, 눈이 죽음을 덮고 나면 우리 모두 다 덮이겠느냐.

「문의마을에 가서」은 형설(상)에서 본문 제재로 실려 있다. 이 시가 교과서에서 어떠한 학습요소를 중점으로 학습 활동이 전개되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 「문의마을에 가서」의 『문학』 교과서 학습활동 >

단원명	학습목표	학습활동	수 록 교 과 서
<p>IV. 주제별 수 용과 창작 3. 삶의 애환 과 죽음</p>	<p>1. 문학작품을 통해 인간의 삶의 다양한 면모를 이해한 다. 2. 삶의 애환 과 죽음의 정 서가 형상화된 문학적 표현을 이해한다.</p>	<p>(확인하기) 1. 이 시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 활동을 해보자. (1) 이 시에서 1연 2행의 ‘길’과 3행의 ‘길’의 시적 의미 차이에 대해 말해 보 자. (2) 1연 5행의 ‘적막’과 대립되는 시어 를 2연에서 찾아보자. (3) 2연의 9행 “아무리 돌을 던져도 죽 음에 맞지 않았다”의 의미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 (4) 2연 2행의 “죽음이 삶을 겨안은 채 한 죽음을 받는”행위에서 느껴지는 분 위기를 말해 보자. 2. 이 시의 서정적 자아와 관련하여 다 음 활동을 해 보자. (1) “문득 팔짱을 끼어서/먼 산이 너무 가깝구나”라는 진술을 하는 서정적 자 아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보 자. (2) “모든 것은 낮아서/이 세상에 눈이 내리고”라는 진술을 하는 서정적 자아 가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는 어떠한 것인 지 말해보자. (적용하기) 1. 다음 시를 읽고 「문의 마을에 가서」와 비교하여 아래의 활동 을 해보자. 김현승의 「플라타나스」 (1) 두 시의 공통적인 소재가 되는 ‘길’ 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보</p>	<p>형 설 (상)</p>

	<p>자. (2)[구성·창작] 「문의 마을에 가서」는 죽음의 적막한 길이 추운 쪽으로 뻗어 있다고 한 데 비하여, 「플라타나스」에서는 삶의 길이 끝나면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 있다고 하였다. 삶과 죽음을 ‘길’에 비유하여 한 편의 시를 써 보자.</p>
--	--

이 단원에서는 문학은 우리 삶의 기록으로, 특히 삶의 여러 국면에서 느끼는 정서를 문학적인 양식과 표현으로 드러내 왔고 이러한 정서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면서도 또한 보편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고전 문학 작품에 드러나는 정서를 공감하며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인간의 정서 중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공포, 사랑하는 사람이나 육친(肉親)을 잃은 슬픔과 한 등은 일상적 삶 속에서 누구나 한 번은 겪게 되는 가장 절실한 정서로서, 많은 문학 작품에서 이러한 주제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해설을 보면 전기적 사실이야 어떻든 문면(文面)에 드러난 바로는 ‘문의 마을’은 이 시에서 죽음과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시적 공간으로 이해될 수 있다. 두 개의 연으로 이루어진 이 시의 첫 연에서 죽음은 길이 ‘적막’하기를 바라고, 삶은 길에서 돌아가 잠든 마을에 재를 날리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 죽음과 삶의 길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느끼게 한다. ‘활동해 보기’의 ‘확인하기’에서는 시의 내용과 서정적 자아가 죽음을 보는 관점을 이해하게 하는 활동을 마련하였으며, ‘적용하기’에서는 ‘길’의 상징적 의미를 활용하여 한 편의 시를 구성하는 활동을 마련하였다.²⁸⁾

제1연에서 문의 마을에 통하는 ‘길’을 죽음의 ‘길’과 연관시키고 있다.

28) 박호영 외, 『문학 교사용 지도서(상)』, 형설출판사, 2003.

내포되어 있는 함축적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 학습자의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시어나 시구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통해 단계적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미 정해놓은 의미를 따라가게만 하여 다양한 반응과 직접적인 내면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4) 성묘

아버지, 남북 통일이 되지 않았습시다.
일제 시대 소금장수로
이땅을 떠도신 아버지.
아무리 아버지의 두만강 압록강을 생각해봐도
눈앞에 선지가 생길 따름입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두만강의 회령 수양버들을 보셨지요.
그리고 아버지는
모든 남북의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얀 소금을 한 되씩 팔았습시다.
때로는 서도 노래도 흥얼거리고
꽃피는 남쪽에서는 남쪽이라
밀양 아리랑도 흥얼거리셨지요.
한마디로, 세월은 흘러서
멈추지 않는 물인지라
젊은 아버지의 추억은
이땅에 남지 않고

아버지는 하얀 소금이 떨어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남북 통일이 되면

또 다시 이 땅에 태어나서

남북을 떠도는 청청한 소금 장수가 되십시오.

"소금이여", "소금이여"

그 소리, 떨어져 가는 그 소리를 듣게 하십시오.

「성묘」은 교학사(하)에서 본문 외 제재로 실려 있다. 이 시가 교과서에서 어떠한 학습요소를 중점으로 학습 활동이 전개되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 「성묘」의 『문학』 교과서 학습활동 >

단원명	학습목표	학습활동	교과서
<p>Ⅲ. 문학에 대한 올바른 태도</p> <p>3. 문학 문화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p> <p>(2) 통일·민족 문학 발전을 위한 기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학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과 원리를 안다. 문학을 수용하고 창작하는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문학 문화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p>활동의 주안점</p> <p>(1) 통일 문학·세계 문학으로서의 한국 문학의 가치를 생각해 보자.</p> <p>(2) 한국 문학의 가치를 찾고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p> <p>학습활동 내용 이해</p> <p>1. 이 시에서 ‘소금’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p> <p>2. ‘아버지는 하얀 소금이 떨어져서 돌아가셨습니다.’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p> <p>원리·확장</p> <p>다음 글을 읽고 민족 문학으로서</p>	<p>교학사 (하)</p>

		의 한국 문학의 가치와 지향점에 대해 생각해 보자. 발표·토의·토론 북한의 문학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토의해 보 자.	
--	--	---	--

‘성묘’는 고은이 사회적, 역사적 책무를 절감하고 민중적 각성의 시인으로 변신하면서 내놓은 작품이다. ‘분단을 극복하지 못한 비극적 현실에 대한 확인-수난의 근대사로 인해 고난을 겪어 온 우리 민족의 과거에 대한 회상-통일에 대한 염원’으로 구성된 이 시는 통일 시대를 지향하는 문학이라는 문제 의식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였다.

교과서를 보면, 활동1은 통일 시대의 민족 문학을 지향하는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의 가치를 재인식하도록 구성되었다. 분단의 상처와 통일에 대한 문제 의식을 다룬 고은의 ‘성묘’를 감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 문학으로서의 한국 문학의 가치와 지향점을 생각해 보게 한다. 그리고 북한 문학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며, 이를 어떻게 수용해야 할 것인가를 다루고, 나아가 민족 문학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태도를 내면화하도록 지도한다.²⁹⁾

이 시에서 ‘소금’은 아버지가 고난의 시대에 삶을 지탱할 수 있게 하는 힘이자 정신적 가치를 뜻하고 이 소금이 떨어져서 삶을 지탱할 수 있게 해 주던 힘 또는 정신적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이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 문학으로서의 한국 문학의 가치와 지향점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민족문학으로서의 한국 문학은 앞으로 탈식민지화라는 세계 문학의 보편성과 통일 시대를 위한 남북한 문학의 통일을 지향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민족 문학의

29) 구인환 외, 『문학 교사용 지도서(하)』, 교학사, 2003.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구체적 계기가 되도록 지도한다.

하지만 뒤이어 북한의 문학을 어떻게 받아들인 것인가 하는 점에 토의 하라는 활동은 비약적인 면이 있다. 통일 문학의 측면에서 북한 문학 수용의 당위성이 먼저 이야기 된 후라면 모를까 단순히 다양성의 측면에서 북한 문학에 접근하는 것은 계열성에 맞지 않아 보인다.

(5) 등대지기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자고
한겨울의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등대지기」는 2007 개정 중학교 교과서에서 본문 외 제재로 실려 있다. 이 시가 교과서에서 어떠한 학습요소를 중점으로 학습 활동이 전개되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 「등대지기」의 2007 개정 중1 김인정 국어 교과서 학습활동 >

단원명	학습목표	학습활동	수록 교과서
1. 마음의 빛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학 작품의 정서와 분위기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문학 작품의 정서와 분위기를 중심으로 	(단원의 길잡이) 이 시를 읽어 보면 한겨울 바다를 비추는 등대의 이미지가 눈앞에 떠오른다. ‘얼어붙은, 한	지학사(방민호) 1-2 국어

	<p>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글을 쓸 수 있다. 	<p>겨울, 거센' 등의 시어에서 춥고 쓸쓸한 바다의 분위기가 드러난다. 또한 '생각하라'는 단정적인 말투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홀로 밤을 지새우는 등대지기의 숭고함이 느껴진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시의 아름답고 따뜻한 정서가 파악되는 것이다.</p> <p>이처럼 우리는 시어나 어조와 같은 언어적인 특징과 작품 속 이미지를 통해 정서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이 단원에서는 여러 갈래의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이에 대해 더 상세하게 살펴볼 것이다.</p>	
<p>I. 시와 노래가 있는 생활 2. 노랫말 짓기 (들어가기 전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와 노랫말의 연관성을 안다. 2. 시의 분위기와 운율을 살려 시를 낭송할 수 있다. 3. 생활 속에서 생각이나 느낌을 노랫말로 쓰며 즐긴다. 	<p>(이해와 적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와 노랫말의 차이를 생각하며 활동을 해보자. 2. 내가 좋아하는 노래의 가락과 박자에 맞추어 노랫말을 써보자. <p>(수행하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은 '홍보가 기가 막혀'라는 노래의 노랫말이다. 이 노랫말의 운율을 살려 나의 생활 속에서 소재를 찾아 노랫말을 써보자. 	<p>교학사(남미영) 1-2 생국</p>

		<p>1. 다음 시를 읽고, 제시도니 조건에 맞게 활동을 해 보자. (스스로 학습)</p> <p>1.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일 가운데 기억에 남는 일을 떠올리며 활동을 해 보자.</p>	
--	--	--	--

먼저 지학사(방)에서는 문학 작품 감상의 기초는 문학 작품이 갖고 있는 고유한 정서와 분위기를 파악하며 읽는 것으로 그 방법을 파악하고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위로와 격려의 글을 써 보는 단원의 길잡이에 수록되었다. 30)

이 시를 읽어 보면 한 겨울 바다를 비추는 등대의 이미지가 눈앞에 떠오르고 ‘얼어붙은, 한겨울, 거센’ 등의 시어에서 춥고 쓸쓸한 바다의 분위기가 드러남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생각하라’는 단정적인 말투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홀로 밤을 지새우는 등대지기의 숭고함이 느낄 수 있으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시의 아름답고 따뜻한 정서가 파악되는 것이다. 이처럼 시어나 어조와 같은 언어적인 특징과 작품 속 이미지를 통해 정서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교학사(남)에서는 생활국어에 수록되었는데 시의 운율성을 강조하며 실제 노래가 붙은 고은의 ‘등대지기’를 악보와 함께 실어 첫머리에 제시하고 있다. 시와 노랫말의 차이점을 알게 하고 실제로 학습자가 좋아하는 노래의 가락과 박자에 맞추어 노랫말을 써 보게 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실제 생활에서 겪었던 일을 이야기로 만들고 이를 시와 노랫말

30) 방민호 외, 중학교 『국어 1-2』, 지학사, 2009.

로 바꾸어 적용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³¹⁾

2007개정에서 문학 작품은 더 이상 그 자체를 학습한다기보다는 학습자의 학습활동에 초점을 두고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각 학습활동이 구체적으로 위계화가 잘 되어 있다.

III. 고은 시의 교육적 가치

1. 표현기법과 교육적 활용

1) 문학 교육과 언어사용능력 증진

문학을 간략하게 정의하면 ‘언어로 표현된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면 문학은 우리의 일상과는 차별화된 ‘무엇’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예술의 소재나 표현 수단이 되는 것이 특별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것들이 예술가의 의도에 의해 새롭게 보이는 것일 뿐이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자동차,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금속을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려는 시도, 방법, 금속을 다루는 기술 등에서 일반인들과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학을 볼 때, 문학이라는 예술의 소재인 언어 역시 일반적인 언어와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그것을 얼마나 섬세하게 다루어 작가의 생각을 표현하는가에 있어서 일반인들과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의 언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31) 남미영 외, 중학교 『생활국어 1-2』, 교학사, 2009.

지의 대다수 견해들은 이러한 관점으로 문학의 언어를 바라보지 못했다.

문학적 언어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다수의 견해들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문학적 언어는 일상의 언어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이라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문학적 언어가 일상적 언어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들 중 첫 번째 견해에 따르면 문학 교육은 일반적 언어 교육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만다. 왜냐하면 일반적 언어 교육에서의 목표는 언어 사용 능력 신장이지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학 작품 속의 언어가 일상 언어와 다르다면 문학 교육은 언어 교육에 포함될 수 없고, 미술이나 음악을 교육하는 예술 교육이라는 범주에 묶이게 된다.

두 번째 관점의 경우에는 문학 작품을 언어 사용 능력의 신장을 위해 사용되는 수많은 텍스트들 중의 하나로 본다. 이러한 경우에 문학 작품은 언어 교육을 위한 단순한 소재에 불과한 것이 되고 문학 작품을 통한 언어 교육이 특별히 필요한 이유를 찾기 어렵게 된다. 다른 텍스트로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가지 견해들은 문학이 일상의 언어로 만들어졌지만 일상의 언어로 완전히 환언할 수 없는, 특별하고 높은 수준을 지닌 언어 형식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나온 것들이다.

문학적 언어가 특별하고 높은 수준을 지닌 언어라고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산문과 시의 언어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학 언어 중 시어(詩語)가 따로 존재한다는 시각이 있었다. 서구의 경우에는 영국 엘리자베스조의 고전주의 시인들이나 초기의 낭만주의 시인들, 우리 시단의 경우에는 1920년대 초·중반의 낭만파 시인들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발레리(P. Valéry)는 산문과 시의 차이를 ‘행진(march)’과 ‘무용(dance)’에 비유하여 비교·설명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산문 언어의 쓰임이 행진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한다면, 시적 언어의 쓰임은 무용과 흡사하다는 것이다. 행진이란 그 중간 과정이야 어찌 되었건 오직 정해진 목표 지점까지 정확하게 도달하는 것이 중요시되지만 무용의 경우는 어느 지점부터 다른 어느 지점까지 이동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무용에서 중요한 것은 무용수가 그 중간 과정에서 과연 어떠한 몸놀림과 표정을 취하면서 이동하였는가 하는 점이다.³²⁾

발레리의 이와 같은 설명은 시적 언어가 지닌 특징을 잘 설명한 것이다. 산문이나 시의 언어가 일상의 언어를 그 재료로 사용하는 면은 같다. 하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방식에서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영국의 언어학자이자 신비평가였던 리처즈(I.A.Richards)의 이론에 따라 살펴보면 이러한 차이를 좀 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 그는 언어의 용법을 ‘언어의 과학적 용법(scientific use of language)’과 ‘언어의 정서적 용법(emotive use of language)’으로 나누었다.

‘언어의 과학적 용법’은 어떤 대상을 정확하게 지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 용법을 말한다. 반면 ‘언어의 정서적 용법’은 시에서처럼 언어가 어떤 지시 대상을 정확하게 지시하는 것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정서를 빚어내는 것을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³³⁾

이러한 ‘언어의 정서적 용법’은 인간이 느끼고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과 관계가 있다. 인간의 감정은 법과 같은 명문화된 사회적 규약처럼 내용이 정확하게 결정되어 있지 않고, 책상이나 의자처럼 구체적인 윤곽이 있는 실체도 아니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32) 김용직·장부일 공저, 『현대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5, 24쪽.

33) I.A.Richard, *The Principles of Literary Criticism*, London:Routledge & Kegan Paul Ltd., 1955, p.26, 앞의 책 27쪽 재인용.

서는 구체적 실체를 명확하게 지시하는 데 사용되는 지시적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시에서는 시적 화자가 당면한 어떤 상황에서 느끼는 자신의 감정이나 떠오르는 생각,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정신적인 가치들을 표현한다. 따라서 시의 언어는 지극히 섬세한 언어적 감각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시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은 구체적 실체로 이미 규정된 것이 아니라 시인이 언어를 통해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의 인용문은 이와 같은 시적 언어의 특징을 잘 설명한 글이다.

시는 언어예술이지만 기존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어 기존 언어가 포착하지 못하는 사물과 체험의 구체성을 전달하려는 노력이다. 이를 위하여 시는 기존의 언어 사용법을 바탕으로 하되 동시에 그로부터 일탈을 시도한다. 이러한 일탈은 독자들의 습관적 언어행위를 거부하며 사물의 새로운 국면을 언어에 담는 역할을 한다.³⁴⁾

시적 언어만의 이러한 특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적 언어가 전혀 새로운 언어의 말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시인의 위대함은 기존에 존재하는 언어들을 바탕으로 하되 이러한 언어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는 시도를 통해 기존의 언어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었던 영역까지 나아간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적 언어의 특징을 볼 때, 시 교육은 특별한 예술의 영역을 교육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가 단지 언어 사용의 기능적 측면의 향상만을 위해 필요한 도구에 불과한 것도 아니다. 기존의 언어 사용법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그 사용법의 지평을 넓히는 시를 교육하는 것

34) 이남호, 「시와 시치미」, 유종호·최동호 편저, 『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현대문학, 1995, 196쪽.

은 언어 교육의 정수하고 할 수 있다.

고은의 「등대지기」의 일부분과 이에 대한 설명을 잠깐 보면 이런 시적 언어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자고
한겨울의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등대지기」

이 시를 읽어 보면 한 겨울 바다를 비추는 등대의 이미지가 눈앞에 떠오르고 ‘얼어붙은, 한겨울, 거센’ 등의 시어에서 춥고 쓸쓸한 바다의 분위기가 드러남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생각하라’는 단정적인 말투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홀로 밤을 지새우는 등대지기의 숭고함이 느낄 수 있으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시의 아름답고 따뜻한 정서가 파악되는 것이다. 이처럼 시어나 어조와 같은 언어적인 특징과 작품 속 이미지를 통해 정서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³⁵⁾

위의 「등대지기」의 설명에서는 시에서 사용된 일상의 언어가 시 안에서 사용되어 어떻게 특별한 의미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잘 제시하였다. 「등대지기」에 쓰인 표현들은 일상적인 언어를 잘 살려 표현하면서도 발레리의 견해처럼 한편의 멋진 장면을 만들어 내는 예술 작품의 진수를 보여 준다. 이 시에 쓰인 시어 하나하나가 일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고 산문에 쓰인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없는 언어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평범한 일상의 언어를 활용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고 인간

35) 남미영 외, 중학교 『생활국어 1-2』, 교학사, 2009.

의 깊은 정서와 지향해야 할 가치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적 언어이다.

이러한 면을 볼 때 시 교육은 언어 교육의 핵심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 교육은 언어 사용 능력의 신장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다음의 글은 시 교육이 갖는 이러한 특징을 반영한 총체적 언어 교육의 필요성 측면에서 시 교육이 언어 교육에서 꼭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 글이다.

언어 기능 교육 또한 언어의 정확성, 효과성, 실용성처럼 정보의 전달이라는 소통 차원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언어의 총체성, 상징성, 심미성, 감수성과 같은 차원까지를 교육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그런데 문학이야말로 바로 그러한 감성적 소통 차원의 언어들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총체적 언어 교육의 보고(寶庫)라고 부를 수 있다.³⁶⁾

종합해 볼 때, 언어 교육에서 문학 교육은 중핵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학 교육은 본질적으로 언어 교육의 가장 본질적인 목표에 가장 적합한 교육이면서 동시에 언어 교육이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교육 방법이다.

36) 임경순, 「총체적 언어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과 문학교육의 중요성」, 『문학교육학』 제19호, 2006, 57-58쪽 참조.

2) 이미지 구사와 형상화 기법

시 교육을 통해 우리는 언어 사용 능력의 신장을 기대할 수 있다. 시 교육을 통해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시적 표현 방법이다. 시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 기법이 사용되지만 시에 나타나는 독특한 이미지는 리듬과 함께 우리의 감각에 호소하며, 구체적인 것을 통해 추상적인 의미를 전달한다. 따라서 이미지의 제시가 참신하고 세련된 표현으로 드러나는 시를 읽고 감상하는 것은 언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 교육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미지(image)는 심상(心象)으로 번역되고 이 말은 인간의 정신에 재현되는 형상을 뜻한다. 그 재현 양상은 육체적 지각을 통하는 경우와, 육체적 지각을 통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육체적 지각을 통하여 산출될 때 이미지는 육체적 지각을 반영하지 않는다. 모두 ‘정신 속에 기록되는 감각적 모습’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전자는 지각과 관계되고 후자는 상상력이나 환상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리처즈(I.A.Richards)는 시의 구조적 특성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경험이 체제화될 수 있는 데에는 삭제에 의한 체제화인 배제에 의한 것과 결합에 의한 체제화인 포괄에 의한 것이다.³⁷⁾ 전자는 상반되는 충동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예컨대 사랑과 증오 가운데 증오를 배제하고 사랑만 강조하는 식이다. 그런 사랑은 증오를 동반하고 증오 역시 사랑을 동반한다. 말하자면 사랑과 증오는 수학 문제 풀듯이 그렇게 명료하게 단절되는 세계가 아니다. 후자가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상반되는 충동들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리처즈에 의하면 전자를 강조하는 시는 배제의 시, 후자를 강조하는 포괄의 시이고 이

37) I. A. 리처즈, 김영수 역 『문학이론의 원리』, 현암사, 1978.

포괄의 시가 아이러니의 시가 된다. 사실 사랑하면서 동시에 증오하는 것은 아이러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아이러니가 진리와 통한다. 결국 훌륭한 시는 ‘포괄적 시’이고 ‘아이러니의 시’가 된다. 이런 시는 이질적인 충동들이 상호반응은 체계이다.³⁸⁾

따라서 시 속에 나타난 독특한 이미지 제시 방법을 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시인의 상상력과 이를 표현해 내는 방법을 접하는 일이다. 다음의 인용문은 이러한 시에 쓰이는 이미지 제시 방법과 시인의 상상력의 관계에 대해 잘 설명한 글이다.

시에서 이미지의 구현은 시인의 놀라운 상상력의 발현이며 이러한 상상력은 역시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이때 이미지를 구현하는 시인은 수사적 세련미를 통해 자기 작품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물론 이미지만이 시의 전부는 아니다. 잘못하면 산만하고 장식적인 이미지를 과다하게 구사하여 분장만 많이 한 추한 얼국처럼 시적 조잡함이 드러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시적 이미지를 효과적이고 적절히 구사할 줄 아는 시인이 바로 창의적이며 독자적인 시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³⁹⁾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시적 이미지의 활용이 두드러진 작품을 읽고 감상하는 것은 학생들의 언어 사용 능력 신장을 위해 필요한 일임을 알게 된다. 특히 수사적 세련미와 이미지의 참신한 사용이 돋보이는 작품을 시 교육적 소재로 삼는 일은 문학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일이다.

38) Richard, I. A. *Principles of Literary Criticism*(London: 1963), pp.249-251 참조. 이승훈, 『시론』, 태학사, 2005, 334쪽.

39) 최동호, 「시와 이미지」, 유종효·최동호 편저, 『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현대문학, 2000, 245쪽 인용.

고은의 초기 시에서 한 편의 시를 구성하는 이미지들은 산발적으로 흩어져 나타나는 지속구조를 이룬다. 그의 시의 중심 이미지는 ‘길’ 이미지이다. ‘갈래 갈래 흩어지는 길’, ‘흩어지다가 타오르고 마는 길’, ‘부유하는 길’, ‘산란하는 길’ 등으로 변용되어 나타난다. 원래 길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공간의 이동을 내포하며 일정한 공간성을 지닌다. 그러나 고은 시에서 길은 심리적 상태이면서 화자의 내면 세계를 반영하므로 일정하게 구획할 수가 없다.

시 한편에 산재하는 각각의 이미지들이 긴밀한 완결력, 유기적 구조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시적 인식이나 형태 문제와도 긴밀한 관련성을 지닌다. 시적 자아에게 있음은 끝없이 유보되고 지연되는 것이어서 모색이나 방랑의 과정에서 실제로 만나고 접촉하고 있음은 아니고 있음의 흔적들 뿐이다. 따라서 모든 것들이 사라진 실체의 흔적들일 뿐이므로 분산적이고 부유하는 이미지들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초기 시에서 자연을 노래하는 시들은 보이는 대상들을 시간적 순서대로, 장면대로 나열, 편집하는 몽타쥬 기법으로 그려지고 있을 뿐 이질적인 이미지들을 통합하면서 한편의 완결된 시를 이루어내는 응집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상하다. 언제나 나의 산길에는
누군가 조금 전에 간 자취가 있다
그렇게도 익숙하건만
늪은 떠깎나무는 외면한 채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듯 하고
길은 腐乳냄새가
이제까지 모여 있다가 흩어지는구나

(중략)

어느날 일몰이 늦었다. 나의 산길에는
그때까지 아침 이슬이 마르지 않고 있다
자꾸 돌레를 돌아다 보면서
이윽고 부락암호로 물러 보았다
저 앞에서 누가 반말로 대꾸한다
그러나 그가 누구인줄 어떻게 알겠느냐

이상하다. 언제나 나의 산길에는
누가 조금 전에 간 자취가 있다
이 산길은 간조 바다까지 보다 멀고
먼 예리고 고개까지도 닿아 있다
비록 다른 길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 산길을 버리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여기서 누구인가 낯선 면모를 만날테니까……

<산길>

시인의 다른 시에서 길은 그 자체로 지향성을 지닌다. 길 자체가 바다로 향해 이어져 있고 바다 가까이 가서 길은 하얗게 타오른 후에 사라진다. 것처럼 길은 시인을 바다로 데려다 주기 위한 과정, 매개항으로서 의미를 지니며 그 임무가 끝나는 시점에서 길 또한 소멸되고 만다.

그러나 시 <산길>에 나타나는 길 이미지는 다른 의미를 확보한다. 시인이 헤매이는 길이 일상과 친근의 마을로부터 벗어난 고립의 공간일 경우 길에서 다른 존재를 만난다는 건 불가능하다. 길 위에서 시인은 잠든 마을을 바라보면서 혼자 외로운 방랑을 계속할 뿐이다. 그러나 이 시에서

시인은 ‘언제나 나의 산길에는 누군가 조금 전에 간 자취가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고립을 넘어서서 다른 존재와의 교류를 갈망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시인이 계속해서 길을 나서는 이유도 바다에 대한 맹목적인 지향성 때문이 아니라 ‘낯선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이다. ‘누군가’가 먼저 지나간 자취는 화자에게 아직은 흔적에 불과하지만 실체의 존재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 일으킨다. 그로 인해 길은 화자에게 익숙하게 느껴지며 또한 늘 고립의 공간을 헤매 왔기 때문에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러한 모순된 감정은 길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킨다.

길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길에 대해, 먼저 길을 지나간 자에 대해 알려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배가된다. 이러한 궁금증은 누군가를 만나게 되리라는 설렘을 가져다 주며 화자의 발등을 떨리게 만든다. 이 존재의 떨림은 길의 떨림과 연관되며 ‘나로 하여금 끝없이 길을 걷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며 조바심을 가증시킨다. 그러나 이 조바심은 화자의 길을 열어주는 자연과의 거리를 더욱 멀게 할 뿐이며 또한 그 자취를 흠여지거나 희미하게 만든다.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을 때에만 그 대상 자체가 의미를 지니고 화자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3연의 첫행인 ‘어느날 일몰이 늦었다’는 산길을 헤매이는 시인의 행동이 여러 날을 두고 이루어져 왔음을 암시한다. ‘그때까지 아침 햇살이 따르지 않고 있다’는 햇빛이 잘 비쳐들지 않는, 새벽 이슬이 채 스러지지 않은 길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또한 아직 아무도 이 길을 지나치지 않았다는 길의 순수성을 환기시킨다.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아무리 오랜 시간을 두고 길을 걸어도 그러한 존재와 마주치기는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절망을 암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화자는 길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않는데 길의 의미는 4연에 와

서 어느 정도 구체성을 확보하기 시작한다. ‘이 산길은 간조바다까지 보
다 멀고/먼 여리고 고개까지도 닿아있다’는 시인이 걷고 있는 산길이 누
군가가 먼저 지나간 자는 일생동안 고행을 자처한 자나 구도의 길을 가
는 자, 예수나 부타와 같은 초인적인 면모이며, 화자가 ‘누군가’를 만나기
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임을 암시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길’이 시인의 원초적인 지향성, 가지 없으
면 안 되는 그 무엇으로 그려지던 ‘간조바다’를 넘어선다는 점이다. ‘먼
여리고 고개’는 예수의 고난의 땅이면서 부활과 재생의 의미를 함축한 공
간이다. 시인의 지향성이 이제 죽음을 넘어서 초월적인 새로운 공간을 탐
색하고 있는 것이다. 즉 산길은 지리적인, 공간과 공간을 연결해 주는 길
의 의미를 넘어서 무언가 확실치 않은 미지의 세계로 시적 자아를 실어
다주는 길로서 끝이 보이지 않는 미완의 길이다. 길 자체가 화자가 추구
하는 세계이면서 동시에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말하자면, 초기 시에선 한 편의 시를 구성하는 이미지들은 집중이나 확
산 구조를 이루지 않고 계기를 이루면서 지속적으로 연계되는 구조를 보
여준다. 각각의 이미지들은 긴밀한 유기적 구조를 이루지 못하고 산발적
으로 흩어지거나 편재해 있다. 이러한 이미지 사용법은 시인의 의식과 관
계가 있다. 시적 자아에게 본질은 끝없이 유보되고 지연되는 것이어서 모
색의 과정에서 실제로 만나고 접촉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 그 흔적들
뿐이다. 각각의 이미지들은 서로 분리되어 시인의 심리적 전개 과정 속에
서만 연관성을 맺는다.

겨울 문의(文義)에 가서 보았다.

거기까지 다다른 길이

몇 갈래의 길과 가까스로 만나는 것을.

죽음은 죽음만큼
이 세상의 길이 적막하기를 바란다.
마른 소리로 한 번씩 귀를 달고
길들은 저마다 추운 소백산맥(小白山脈)쪽으로 뻗는구나.
그러나 빈부에 젖은 삶은 길에서 돌아가
잠든 마을에 재를 날리고
문득 팔짱 끼고 서서 참으면
먼 산이 너무 가깝구나.
눈이여 죽음을 덮고 또 무엇을 덮겠느냐.

겨울 문의(文義)에 가서 보았다.
죽음이 삶을 꼭 껴안은 채
한 죽음을 무덤으로 받는 것을.
끝까지 참다 참다
죽음은 이 세상의 인기척을 듣고
저만큼 가서 뒤를 돌아다본다.
지난 여름의 부용꽃인 듯
준엄한 정의(正義)인 듯
모든 것은 낮아서
이 세상에 눈이 내리고
아무리 돌을 던져도 죽음에 맞지 않는다.
겨울 문의여, 눈이 죽음을 덮고 나면 우리 모두 다 덮이겠느냐.

「문의 마을에 가서」

가장 큰 변화는 고은 시의 상상력의 근저를 이루었던 죽음의 길의 이미지가 그 몽환적 세계로부터 점차 경험 세계의 현실감을 획득해 가는 과정에 있다. 죽음의 의미가 삶의 구체적 맥락에 접근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겨울 文義’는 댐 건설로 인해 수몰된 마을이다. 여기까지 정처없이 길을 따라 걸어온 시인은 잠시금 발걸음을 멈추고 겨울 문의를 응시한다. 적막한 시골 마을인 ‘文義마을’에는 지금 눈이 내리고 있다. 눈은 땅과 만물을 덮어가면서 차츰 이 세상을 화자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결국 완전히 무화시킨다. 현상계의 실체가 흐릿해지고 눈이 세상을 뒤덮으면서 가리워져 있던 저편의 세계가 모습을 드러낸다. 죽음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눈은 저마다의 사물이 지니고 있던 개성을 무화시키고 이 세상을 비일상화함으로써 시인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 가운데 시인은 현실 세계 저편에 있는 초월 세계, 삶 이후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 ‘눈’은 일상을 비일상화하여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보도록 유도한다.

‘잠든 마을에 재를 날리다’는 허무에 닿아있는 유랑을 포기한 다음 ‘잠든 마을’로 표현되는 현실 세계로 되돌아가고 있는 시인의 내면적 정황을 나타낸다. 그러나 마을에 돌아와서 시인이 하는 일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일상적 삶의 양상이 아니다. 화자의 행동은 ‘잠든 마을에 재를 날리는’ 일인데 ‘재’가 환기하는 소멸감과 죽음의 예감은 삶과 죽음의 연관성을 성찰하게 한다.

1연의 화자가 죽음의 예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2연으로 갈수록 죽음은 점차 삶을 끌어안는 원리가 된다. 시인의 시선도 죽음의 세계로부터 떨어져 나와 마을의 세계로 밀착되어 간다. 죽음은 삶의 지배원리이기보다는 사람과 만물을 정화시켜 그 본질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또한 시인은 모든 사물이 죽음을 공유하고 있다는 공통된 자질 때문에

연대감과 연민을 느낀다. ‘죽음은 인기척을 듣고/ 저만큼 가서 뒤돌아본다’는 죽음이 화자인 ‘나’의 인기척을 듣고 나를 돌아본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눈 오는 날의 흐릿하고 무겁게 내려앉은 하늘의 풍광은 지상을 입체감을 상실한 평면적 세계로 만든다. 죽음이 자신의 앞에서 돌아다보는 것에 대해 시인은 돌을 던짐으로써 응답을 보낸다. 돌을 던지는 건 죽음을 마을에서 쫓아내려는 행위이지만 그 이면에는 죽음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의도가 내재해있다. ‘아무리 돌을 던져도 죽음에 맞지 않는다’는 이러한 실체 파악의 의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죽음은 인간에게 고정된 실체로 나타나지 않은 무형의 것이며, 인간인 나는 그것에 공감하거나 동경할 수 있을 뿐 고정된 의미로 파악할 수는 없다.⁴⁰⁾

3) 비유적 표현을 통한 시 창작 교육

리차즈에 의하면 시는 일상적 의미가 아닌 시적 의미를 전달하고 일상적 의미는 진술, 시적 의미는 사이비진술이 된다. 예컨대 ‘장미는 빨갳다’는 말은 지시적 기능을 강조하는 일상적 과학적 언어에 해당하고 이 말의 진리는 실증성의 원리에 토대를 두고 따라서 진술이 된다. 그러나 ‘그대는 아름다운 장미’라는 말은 정서적 기능을 강조하고 시적 언어에 해당하고 이 말의 진리는 실증성의 원리에 의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이비진술이 된다. 그러나 이런 사이비진술은 진리/허위 가운데 허위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사이비, 곧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따라서

40) 장경렬, 「문의마을과 청진동 또는 초월세계와 인간세계」, 『고은을 찾아서』, 221-236쪽. 버팀목 출판사.
장경렬은 ‘문의(文義)’가 지니는 축어적 의미에 집중해서 개성적인 시 해석을 보여준다. ‘문의 마을’을 언어의 세계 또는 기호의 세계에 대응하는 의미의 세계로 해석하면서 시를 새로운 관점으로 읽고자 하는 것이다. 죽음이든 허무이든 그 어떤 궁극적인 의미에도 도달할 수 없음을, 인간의 언어 행위 이전에 존재하는 절대적 의미의 세계를 추구하려는 노력의 허망함을 시 〈문의마을에 가서〉가 보여준다고 분석하고 있다.

진리/허위의 경계를 초월하는 진술을 의미한다. 시인이 깃발을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말을 통해서 이른바 시적 진리를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말은 진리/허위 경계를 해체하는 그런 진리, 곧 역설의 진리를 낳는다. 사이버 진술이란 이런 의미로서 하는 말이다.⁴¹⁾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적허용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고은의 이념 지향의 시가 ‘드디어’, ‘기필코’ 등의 의지의 극한을 나타내는 부사, ‘함께’, ‘모두’, ‘온통’ 등 일체성을 표현하는 부사어의 빈번한 사용, ‘어찌 - 아니 하겠느냐’ 등의 강한 긍정을 위한 부정의문법이 반복적으로 나타남을 주목하고 있다. 이런 말을 통해서 이른바 시적 진리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에서 사용되는 이미지는 비유를 통해서 많이 전달된다. 어떤 시에서 사용되는 비유와 이를 통해 제시되는 이미지가 상투적인 것이 아니라 세련된 것일 때 그 시는 잘된 시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는 세련된 수사적 특징이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독자들은 시를 통해 새로운 언어 사용의 방법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경험 속에서 독자들은 그들의 인식과 상상력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시에서 전이나 변용의 정도가 미미해서 상상력 개입의 폭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비유는 그 존재 의의가 크고 높다. 이 비유는 곧 은유를 말한다. 은유(metaphor)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최초의 전이의 개념으로 인식한 이래 다양하게 정의되었고 정의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적 개념이다. 특히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시 연구는 탈(脫)개성·탈소재를 지향하고, 말하자면 시인이나 대상을 중시하지 않고 시의 의미를 시 자체의 복합적인 구조와 동일시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견해에 의하면 시의 구조원리가

41) 이승훈, 『시론』, 태학사, 2005, 92쪽

중요하고 주로 이미지·은유·상징·신화 등이 이런 구조원리로 수용된다. 웰렉에 의하면 이런 요소들이 시의 중심구조가 된다. 그러므로 시의 의미를 밝히려는 노력은 시의 중심구조를 밝히려는 노력으로 치환된다. 첫째로 시를 감각적 특수성 혹은 감각적이고 심미적인 연속체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시는 음악과 회화에 연결되고 철학과 과학에서 분리된다. 둘째로 시를 비유법의 세계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시는 간접적 담화의 세계이고, 또한 환유와 은유를 통해 말해지는 세계이다.

다음으로 리차즈가 상호충돌이라고 부른 원리이고 투쟁의 원리는 흔히 ‘마주침의 원리’ 혹은 ‘대결의 원리’로 불린다. 이런 원리는 인간의 교동에의 욕망, 결합에의 욕망을 암시한다. 타자와 말한다는 것은 타자와 마주치는 것이고 대결하는 것이고 마침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휠라이트에 의하면 삶의 원리는 투쟁의 원리, 곧 장력(tension)의 원리이고, 시의 언어는 이 원리에 입각한 장력언어이며 이런 언어는 전망적 개별성을 지향한다. 전망적 개별성은 사물을 바라보는 태도가 일상적 과학적 태도와 다른 개별성을 소유한다는 것. 그에 의하면 장력언어는 의미론적 장력, 곧 의미들이 서로 충돌하고 긴장의 관계에 있고, 그것은 사물의 리얼리티를 표출하는 인간의 근본적 사유활동과 관계된다. 물론 이런 장력언어의 기본단위는 이미지, 은유, 상징이다. 곧 매체와 취의의 관계를 강조하는 리차즈의 은유인식을 초월한다. 요컨대 ‘상반되는 요소들 사이의 다양한 투쟁의 양식’이라는 은유의 원리가 투쟁, 장력, 전망적 개별성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한다.⁴²⁾

비유에 대한 관심은 일찍이 고대 수사학에서부터 있어 왔던 것이다. 비유는 일상적인 표현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언어 예술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시에서 비유가 본질적인 하나의 장치라는 것은 분

42) 이승훈, 『시론』, 태학사. 219쪽.

명한 일일 것이다.

먼저 고은 시의 어휘·어법적인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⁴³⁾

‘실천적 개념어의 사용’을 사용하고 있다. 1970·80년대에 오면 시인의 현실 참여적 경향에 따라, 사용된 시어도 극히 행동적이며 실천적이어서 시적 긴장감이 많이 상실된 느낌을 받는다. 따라서 시에는 역할 이미지가 강조되는 시어가 많이 등장하며 극단적으로는 욕설이나 부사어가 언어 사이를 비집고 돌출하여 반항자체의 부정정신만으로 거칠게 나타나기도 하고 선과 악의 도식적 대립의식으로 비약되기도 한다. 시집 『새벽길』 한 권만 보더라도 친구, 누이, 형제, 아가, 아주머니, 등 가족적인 호칭과 왜놈, 쪽바리, 양코백이, 되놈 등의 호칭이 노골적어로 대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부사어의 빈번한 사용’을 말할 수 있다. 통사구조의 개진 양태라는 점에서 정과리는 『조국의 별』에 나타난 중요한 문체론적 특징을 ‘부사어의 빈번한 사용’으로 파악하면서, 이는 ‘확신에 찬 낭만주의’로 규정되는 것으로 ‘물리적인 현실의 성실한 추적과 그 안 모순 속에서의 올바른 현실의 가능성의 구체적 발견보다는, 정신에 의한 물리적 현실의 무화를 성급하게 기도하는 정신주의’라는 한계점도 드러낸다고 설명한다. 결국 의식의 성급함이 실제 민중들과 괴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동사‘간다’의 빈번한 사용을 말할 수 있다.

언덕에서 某處로 가는 길이 있다/ 겨우 몇 줄위 로망스 死語를 읽고
/ 나는 흰 가방 베신을 신고/ 저 언덕으로 가야 한다.

- 「失物」부분

43) 박선희, 「고은 시의 시작방법에 관한 고찰」, 『문예시학』 제16집, 2005.

또다시 나는 새벽마다 무덤에 가야 한다.

- 「새벽 密會」 부분

초기시에서 보이는 ‘간다’는 이미지는 시인 자신이 가고자 했던 길에서 실존의 죽음을 만나고 그 죽음을 관념화(인식)하는 과정을 표상한다. 그러나 1970~80년에 오면 그 이미지가 달라진다.

우리 모두 화살이 되어/ 온몸으로 가자/ 허공 뚫고/ 온몸으로 가자/
가서는 돌아오지 말자/ 박혀서/ 박힌 아픔과 함께 썩어서 돌아오지
말자// 우리 모두 숨 끊고 활시위를 떠나자/ 몇 십 년 동안 가진 것/
몇 십 년 동안 누린 것/ 몇 십 년 동안 쌓은 것/ 행복이라던가/ 잊어
라던가/ 그런 것 다 닳마로 버리고/ 화살이 되어 온몸으로 가자// 허
공이 소리친다/ 허공 뚫고/ 온몸으로 가자/ 저 캄캄한 대낮 과녁이
달려온다/ 이윽고 과녁이 피 뿔으며 쓰러질 때/ 단 한 번/ 우리 모두
화살로 피를 흘리자/ 돌아오지 말자/ 돌아오지 말자/ 오 화살 정의의
병사여 영령이여

- 「화살」

1970·80년대 고은의 시에는 「간다」, 「떠난다」는 술어 혹은 이미지
군이 자주 발견된다. 가령 『술주정뱅이 어머니의 아들 이제야 싸움터로
떠납니다』(「새벽길」), 『길을 보면/ 나는 불가피하게 힘이 솟는다/ 나
는 가야 한다/ 나는 가야 한다』(「길」), 『동지들이여 때로는 주저앉아
버리고 싶으나 이윽고 등짝 세워/ 또다시 먼 길 가야 한다// 그러나 끝내
가서는 안 될 곳이 있다/ 그곳을 묻지 말라/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묻지
말라』(「갈 곳」),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간다’ 모티프에 대해 한원

균은 (1) 소시민적 안락함으로부터 벗어나 (2)현실변혁적 전망을 소지한
체 (3) 모순 극복을 위한 투쟁적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한다.

1990년대에 오면 ‘간다’이미지는 철저하게 현실로 되돌아오기 위한 이
탈의 의미로 변용된다.

과거로부터 뛰쳐나가라/ 과거는/ 너를 끝까지 갇힌 굴레로 만들 것
이다/ 네 상처투성이의 자유란/ 현재에만 있다/ 자유란 꿈꾸는 일도
포기한다/ 그것은 과거도 아니지만 과거의 흔적도 아니다

- 「머나먼 길」부분

철저하게 현재성을 강조하는 것은 과거와의 단절을 뜻하는 것이 아니
라, 현재의 실존을 위해 과거를 냉혹하게 인식해야함을 뜻하는 것이다.
먼 바다로 나가 푸른 삶의 시간을 보낸 후 탄생의 기억이 존재하는 곳으
로 회귀하는 연어처럼 근원적인 회귀를 꿈꾸는 것이다.

다음으로 「눈길」에서

이제 바라보노라.
지난 것이 다 덮여 있는 눈길을.
온 겨울을 떠돌고 와
여기 있는 낯선 지역을 바라보노라.
나의 마음 속에 처음으로
눈 내리는 풍경
세상은 지금 목념의 가장자리
지나 온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설레이는 평화로서 덮이노라.
 바라보노라 온갖 것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
 눈 내리는 하늘은 무엇인가.
 내리는 눈 사이로
 귀 기울어 들리나니 대지의 고백
 나는 처음으로 귀를 가졌노라.
 나의 마음은 밖에서는 눈길
 안에서는 어둠이노라.
 온 겨울의 누리 떠돌다가
 이제 와 위대한 적막을 지킴으로써
 쌓이는 눈 더미 앞에
 나의 마음은 어둠이노라.

(시집 『피안감성』 1960)

시 「눈길」에는 ‘이제’, ‘여기’, ‘처음으로’, ‘처음’, 등의 시간 부사어가 반복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표현법은 과거의 시간을 부정하고 새로운 세계를 회구하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해준다. 각각의 부사어들은 모두 화자가 위치해 있는 현재적 시공간을 환기해 준다. 각각의 부사어들은 모두 화자가 위치해 있는 현재적 시공간을 환기해 준다. 화자는 오랜 편력을 끝내고 고립의 공간에서 존재의 정확과 재탄생을 꿈꾸고 있다. 이 시의 서술어는 모두 ‘-노라’라는 서술어미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등 영탄법의 형식이다. 이는 통찰 뒤에 오는 자아의 각성을 강조하면서 미지의 대상을 일깨우려는 서술자의 태도를 암시한다.

‘지금’, ‘현재’의 시간은 눈길을 통해 열리는 정점의 순간이며 지금까지

의 모든 대립과 방향을 하나로 통합하는 시적 순간이다. 순백의 결정체인 눈은 방향과 고통으로 점철된 과거의 시간을 뒤덮고 응결시킨다. 눈에 의해 갑작스레 가야할 길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화자는 고요하게 눈썹이는 소리를 들으면서 세계를 성찰하는 오래만의 여유를 갖게 된다.

이전까지의 시적 자아는 지금까지 자신이 지상에서 혼자 고립되고 적막한 개체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상의 모든 시공간을 편력하고 돌아와 눈으로 뒤덮인 순백의 세계에 직면하면서 비로소 타자와 세계에 대한 응시를 갖게 된다. ‘처음으로’는 과거의 편력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오랜 편력 끝에 도달한 자기 정화와 응결의 공간을 환기시켜 준다. 고요한 성찰의 시선을 가지면서 시적 자아는 비로소 내면적인 갈등이 극복되고 자신의 마음이 조화로움의 세계, 설레이는 평화의 세계로 나아가는 경험을 갖게 된다. 이러한 체험은 차가움을 간직하면서도 그 내면에는 따뜻함과 내밀함이 숨어 있는 눈의 상상력에 의해 가능해진다. ‘설레이는 평화’는 이질적인 수사어와 피수식어의 결합을 통해 평화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소망과 염원을 강조한다.

텍스트 표면적으로 세계와의 행복한 합일이 실현되는 듯 하였으나 시의 후반부에서 갑자기 화자가 위치해 있는 공간이 현실의 세계가 아니라 ‘꿈나라’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 융화는 깨어진다. 화자가 그토록 회구하던 설레는 평화와 고요한 기도의 세계는 눈이 내리는 정점의 순간에만 이룩될 수 있는 순간적이며 유한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현실에서 내리는 눈마저도 ‘미래의 눈빛’으로 지연시킴으로써 존재의 정화와 재구성은 미래의 일로 유보된다. 이는 순백의 눈빛에 환하게 열리던 자아의 마음을 다시 어둠으로 뒤덮는 하강적 허무의식으로 나타난다.

이렇듯 초기 시에는 소멸과 죽음에 대한 비극적 인식을 상쇄하는 생동하는 현실 세계가 나타난지 않는다. 둘 간의 긴장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

므로 허무의식은 절망과 비탄에 침윤되는 하강성을 지닌다. 이러한 하강적 허무의식은 절망과 비탄에 침윤되는 하강성을 지닌다. 이러한 하강적 허무의식은 시의 후반부에서 적막과 죽음의 세계가 새로운 탄생과 창조 의 움직임 을 압도해 버리는 것이 그 예가 된다. 고은 시의 허무의식은 서구의 니힐리즘과 동양이 무애사상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⁴⁴⁾

2. 감수성의 확충과 주제의식 탐구

1) 인지적·정의적 발달 촉구

인지 능력의 발달과 관련하여 피아제(Piaget)에 따르면 인지발달이란 모순 없는 새로운 지식은 동화시키고, 기존의 도식에 적절하지 않은 지식에 대해서는 도식(schema)을 변경하면서 끊임없이 도식을 확장시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인간의 인지적 발달은 결국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도 인지하고 이러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⁴⁵⁾

인지적 발달과 관련하여 비고스키(Vygotsky)는 아동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는 사회적 존재임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사회·문화·역사적인 측면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은 독립적 활동이 아니라 사회학습의 결과이며, 일상에서의 과제해결은 성인이나 혹은 뛰어난 동료와의 대화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비고스키(Vygotsky)는 상호작용에 필수적 요소인 언어의 습득을

44) 강현정, 「고은 시 연구-이미지 구조와 존재론적 전이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45) Berk, L.E, *Infant, children and adolescents*. Boston : Allyn&Bacon, 1993. 임규혁, 『교육심리학』, 학지사, 2000, 44쪽에 재인용.

아동발달에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생각하였다.⁴⁶⁾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해 볼 때, 결국 인간의 인지적 발달은 언어 사용 능력의 신장과 분리될 수 없다고 하겠다.

문학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접하면서 다양한 인물들의 사회 문화적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이러한 체험들은 학생들의 인지 능력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 특별히 문학 작품은 개인의 생활 차원의 문제들을 다룰 뿐만 아니라 사회·역사적 차원의 삶에 깊은 관련이 있다. 문학 작품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반영한다. 이러한 문학 작품 속에는 당대의 특정 계층의 목소리가 담겨 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작품들을 배우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스키마는 확장될 수 있다.

문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인간과 사회와 역사에 대한 인지적 능력의 향상만이 아니다. 인지적 능력의 향상과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정의적 영역이라고 하겠다. 학생들은 문학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다양한 감정과 그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본인도 그러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다른 이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감정적 상황에 있는지,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은 기계를 작동시키거나 발명하는데 필요한 지식은 아니지만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관련이 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나아가 타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그에 따른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타인을 이해하고 세상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바람직한 사회생활과 나아가 이상적인 공동체

46) Vygotsky, L.S., *Thought and Language*. Cambridge, MA: MITpress, 1986. 앞의 책, 46쪽에서 재인용.

건설을 위해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 교육은 바로 이러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문학 교육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지적 역량은 인지적 능력과 정의적 능력이 통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적 언어를 접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기 점검’과 ‘공적 확인’을 통해 우리는 섬세한 언어 감각의 향상과 감정의 세밀한 표현과 이입을 가능하게 하는 감수성의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 교육은 인간의 인지적 능력과 정의적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시는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모두 다루기 때문에 그와 관련하여 각 시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들 역시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다. 주제를 표현하는 방법이 뛰어난 다양한 시들을 감상하면 자연스럽게 인간과 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각기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들을 접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지적·정의적 능력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를 배우는 학생들은 자신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

인간은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을 넘나드는 사고 활동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로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의적 요소가 인지적 요소로 전이되기도 하고, 두 요소가 서로 연합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사고 활동을 전개시킴으로써 사고력의 향상이 가능해진다. 특히 시에서 사용되는 은유로 대표되는 다양한 수사적 기법들은 이러한 다양한 수사적 기법들은 이러한 다양한 사고활동을 촉진시킨다.⁴⁷⁾ 따라서 좋은 시 작품들을 통한 시 교육은 학생들의 인지적·정의적 영역 발달과 관련된 구체적인 면을 찾아 고은 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적 특징들이

47) Bipin Indurkha, *Metaphor and Cogniti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2.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112쪽.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시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 시문학사에서 고은처럼 시를 통하여 자기 삶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보여 주는 시인도 드물 것이다. 고은은 창조적인 생활을 해 오면서 입산과 환속, 정치적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삶의 양극단에서 왔으며 그 때마다 그 변화를 시로 표현해 온 시인이다. 시와 삶이 일체할 때에야 비로소 한 시인이 된다는 예프뜨썬코의 말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고은은 한 시인이 되기에 충분한 힘을 지닌 시인이라고 할 수 있다.⁴⁸⁾

『만인보』는 시인이 내란 음모죄, 계엄령 위반 등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구상되어 1986년부터 발표되기 시작한 연작시집이다. 시인은 이 연작시집을 통해 민족 현실에 온몸으로 맞서 싸운 운동가의 열정을 민중들에 대한 따스한 열정으로 내연시켜 표현하고 있는데, 시인 자신이 직접 밝히고 있듯이 같은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시일지라도 『만인보』 이전의 시 세계와 비교해 본다면 『만인보』의 시편들에서는 시인의 현실 인식과 민중 의식이 더욱 구체화되어 있어 시인의 성숙한 정신을 잘 보여 준다.

『만인보』는 그 제목으로 보아 알 수 있듯이 만 사람에게 대한 이야기로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인물들이다. 시인의 기억 속에 살아남은 인물이든지 역사적인 인물이든지 그들은 모두 우리 삶 속에 용해되어 있어 우리 삶의 단면에 자주 나타나는 인물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물들은 시인의 정신의 움직임과 구성 방법에 따라 시인 자신의 개인적인 인물이 되기도 하고 공적인 인물이 되기도 한다.

48) 손필영, 「현실반영 시의 가능성과 한계」, 『어문학논총』 제26집,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7.

① 새터 관전이네 머슴 대길이는
상머슴으로
누룩도야지 한 마리 번쩍 들어
도야지 우리에게 넘겼지요.
그야말로 도야지 떡 따는 소리까지도 후딱 넘겼지요.
밥 때 늦어도 투얼덜 줄 통 모르고
이른 아침 동네길 이슬도 털고 잘도 취워 훤히 가리마 났지요.
그러나 낮보다 어둠에 빛나는 떡눈이었지요.
머슴 방 등잔불 아래
나는 대길이 아저씨한테 가가거겨 배웠지요.
그리하여 장화홍련전을 주룩주룩 비 오듯 읽었지요.
어린아이 세상에 눈 떴지요.
일제 36년 지나간 뒤 가가거겨 아는 놈은 나밖에 없었지요.

대길이 아저씨더러는
주인도 동네 어른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지요.
살구꽃 핀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홀적삼 큰아기 따위에는 눈요기도 안하고
지게 작대기 뉘어 놓고 먼데 바다를 바라보았지요.
나도 따라 바라보았지요.
우르르르 달려가는 바다 울음소리 들었지요.

찬 겨울 눈 더미 가운데서도
덜렁 겨드랑이에 바람 잘도 드나들었지요.
그가 말했지요.

사람이 너무 호강하면 저밖에 모른다.
남하고 사는 세상인데

대길이 아저씨
그는 나에게 불빛이었지요.
자다 깨어도 그대로 켜져서 밤새우는 불빛이었지요.

- 「머슴 대길이」

② 나하고 초등학교 일이등 다투었지
부잣집 아들이라 옷이 좋았지
항상 단추 다섯 빛났지
도시락에 삶은 달걀 환하게 들어 있었지
흰 쌀밥에 보리 뿌려졌지
그러나 누구한테 손톱 발톱만치도 뽑낸 적 없지
너희 눈 옆에 우리 눈 하나 있다
너하고 나도
의종계 지내자고 굳은 떡 주며 말했지
그런 봉태
수복 직후 아버지 죽은 뒤
동네 사람에게 끌려 가서
할미산 굴 속에서 죽었지
유예군 흑인 총 맞아 죽었지
그 달밤에
그 캄캄한 굴 속에서 죽었지
봉태야

나는 너 하나 살려낼 수 없었다

네 열입곱 살은 내 열일곱 살이었는데

- 「봉태」 전문, 『만인보2』에서

①에 등장하는 머슴 대길이는 「대바구니 장수」, 「별초」 등에도 등장하는 인물이다. 시인은 머슴 대길이를 바람직한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가진 한 전형적 인물로 내세워 「머슴대길이」에서는 대길이의 건강한 정신을 드러내고, 「대바구니 장수」, 「별초」 등에서는 대길이의 성품과 인간미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머슴 대길이」는 이야기의 중심이 어디에 실리느냐 여부에 따라 이야기와 인물의 위상이 달라진다. 「머슴 대길이」를 화자인 <나>를 중심으로 하여 볼 경우, 대길이는 나에게 글눈과 세상눈을 뜨게 해 준 나의 이상적인, 사적인 인물이 되고 이 시가 실명시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목 그대로 대길이를 중심으로 하여 볼 경우, 대길이는 공적인 인물이 되어 전형적인 민중의 한 표상이 된다.

‘그가 말했지요

사람이 너무 호강하면 저밖에 모른단다

남하고 사는 세상인데’

인용 부분은 「머슴 대길이」에 서술된 이야기 가운데 대길이의 인물됨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이다. 화자인 <나>에 의해 서술되어온 대길이가 <나>를 통하지 않고 직접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시인이 이야기의 중심을 <나>로부터 대길이로 바뀌면서 ‘남하고 사는 세상’이 강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의 마지막 연이

‘대길이 아저씨

그는 나에게 불빛이었지요

자다 깨어도 그대로 켜져서 밤새우는 불빛이었지요’

로 마무리되어 이 세상이 남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임을 체득한 이상적인 인물로 삼은 <나>가 더 강조되어 보인다. <나>의 인물을 <우리>의 인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야기의 독자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야기가 시인의 도움 없이도 이야기 자체의 힘으로 완결될 수 있도록 살아 있는 인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물은 시인 자신의 추억 속의 인물로 그치고 말 것이다.

②에 등장하는 인물은 시인의 어릴 때 친구 「봉태」이다. 시의 내용으로 보면 봉태는 부잣집 아들이지만 공부 잘하고 겸손하여 시인과 의종게 지내기로 약속한 인물인데 수복 직후 아버지가 좌익이었거나 봉태 자신이 좌익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인은 그 점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다. 문맥으로 보면 봉태는 이데올로기의 희생물로 그려져 있고 봉태 아버지는 자연사로, 그리고 「봉태누나」(『만인보1』)는 역사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시집가서 잘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봉태야

나는 너 하나 살려낼 수 없었다

네 열일곱 살은 내 열일곱 살이었는데

- 「봉태」, 끝부분, 『만인보2』에서

로 마무리하면 너 하나 살려낼 수 없는 <나>보다 이데올로기에 희생

된 사랑하는 내 친구 <봉태>가 더 강조되어 보인다.

「머슴 대길이」와 「봉태」는 시인의 현실 인식이 드러난 작품이긴 하지만 시인이 두 인물을 소유하고 추억 속의 인물로 만듦으로써 시의 의미가 축소된 예이다. 시인이 추억 이상의 인물을 제시하려 한다면 이야기 속의 인물을 더 드러나게 하고 시인은 뒤로 물러나야 한다. 인물이 이야기 속에서 자기 삶을 시작하고 끝낼 때까지 시인은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독립된 이야기로만 된 시와 이야기에 시인의 정신과 감정이 개입된 시는 그 내용의 성격이 아주 다르다.

시의 끝부분에 시인의 정서적 반응이나 의견 대신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말을 삽입한 예들이다. 단순히 진술로만 되어 있는 시보다 더 현장감이 생기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극적 긴장이 이루어져 이야기가 이야기로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완결되는 구조를 갖는다. 앞에서 「머슴 대길이」의 끝부분 3행을 생략하고 대길이가 아저씨의 말로 그 시의 끝부분을 삼아야 한다고 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시의 구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머슴 대길이」의 경우 시인은 이야기에 개입하는 대신 대길이의 말을 통해 자기 정신을 실현함으로써 대길이의 말에 중의성을 주어 시적 긴장을 갖게 되는 데 주인공과 시인의 삶을 태도가 일치할 때에는 그 긴장의 힘이 더욱 확대된다.

서정시에 애용되고 있는 비유 대신 이야기를 쓰게 되면 정서보다는 삶의 실체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리얼리즘시를 쓰고자 하는 시인들은 비유시보다 이야기시를 더 선호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실인식과 이야기시와의 관계는 현실인식과 비유시와의 관계처럼 상보적 관계에 있을 뿐이다.

2) 통과제의적 죽음의 이해⁴⁹⁾

우선 고은의 전기 작품집인 『피안감성』(1960), 『해변의 운문집』(1964), 『제주가집』(1965)을 중심으로 시인에게 보였던 죽음의 모습을 살펴보겠다. 이 세 시집은 대개 승려시절(1951-1967)과 제주시절(1964-1967)에 쓰여진 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슬픔과 절망, 그리고 죽음의 이미지는 군산 앞바다(1950), 제주해협(1963), 정릉 골짜기(1970) 등에서의 수차례에 걸친 자살 시도와 그 축을 같이 하고 있다. 전후의 폐허의 공간에서 죽음과 함께 자란 고은은 실존주의적, 낭만주의적, 허무주의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병에 의한 요절을 꿈꾸게 된다.

그러나 “고은의 허무주의는 구라파식의 허무(nihil), 모든 가치가 파괴되었을 때 생겨나는 심리현상이 아니라, 모든 것을 윤회의 고리라는 인연설을 자각한 연유에 생겨나는 무애(無碍)에 가깝다.”라는 김현의 말이 시사하듯이, 그의 시 세계는 좀 더 동양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렸을 때에 더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고은 시인에게 불교적 세계관은 죽음의 충동을 억제시키는 작용을 했다.

고은의 첫 시집인 『피안감성』(1960)은 불교적 색채 - 업보에 의한 순환론적세계관 -를 뚜렷이 보이고 있다. 즉 소멸을 통한 부활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세속의 때를 모두 벗어버리고, 언어마저 버리는 불립문자의 세계인 선적인 가르침이 시인을 지켜주는 버팀목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자연의 순환적 모습은 시인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비극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소멸을 통한 새로운 모습으로의 존재 바꾸기라고 생각되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아름다움도 느꼈을 것이다.

49) 정주한, 「고은 시의 고찰-시 경향의 변모양상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시인의 죽음에의 친밀감은 물(水)과 女人, 가을에 빗대어 자주 나타난다. 물, 여인은 달과 함께 전통적인 소멸과 부활의 상징물이기도 한데, 물과 죽음과의 이미지 연결은 제주 시절에 쓰여진 『해변의 운문집』, 『제주가집』 등에 좀더 확연히 나타나게 된다. 또한 누이 또는 여인과 죽음의 이미지가 연결되기도 한다. 이렇게 죽음의 의미 설정을 위해 여인을 자주 등장시키는 것을 두고 김현은 <누이 콤플렉스>라 명명하기도 했다.

죽음과 마찬가지로 병은 생명체에게 좀 더 유연함과 포용력이 있는 새로운 삶을 주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병과 죽음에 대한 생각은 죽음의 상태가 영원한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을 위한 준비기라고 생각한 데에서 기인하는데, ‘저승에서 죽은 태아울음이 들린다’라는 구절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해변의 운문집』에도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죽음과 삶의 윤희적 모습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죽음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다음의 작품들을 볼 때에, 『피안감성』에서와 같은 종교적인 죽음의 초월은 사라지고 허무적인 목소리가 강해짐을 알 수 있다.

아래 시구에는 죽음에의 회구와 찬사가 가득하다. 죽음은 시인에게 도피처이자 이상향으로 나타나 현재의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탈출구로서 형상화되어 있다. 곧 이 일련의 시편들에서 죽음은 최상의 안식처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사실은 이 당시의 시인의 전기적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고은은 실제로 1963년 제주해협에서 자살을 시도하고, 그 자살이 실패한 다음 해에 『해변의 운문집』(1964)를 출간했던 것이다. 시인은 이 무렵 자신의 모순된 생활의 힘겨움 때문에 죽음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받아들여 했다고 본다.

① 그러나 지금보다 좀 더 쓸쓸하게

나는 낡은 땅에서 죽을 날을 차비하리라

- 「독신자의 주위」, 『해변의 운문집』

② 살고 싶다는 말에도

죽음이 들어 있고

- 「비에의 일페이지」, 『해변의 운문집』

고은 시인의 죽음에의 동경 의식의 한 면이 어린 시절의 고향에서의
학살사건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준다.

① 동무는 죽었고 나는 비를 맞으며

싸구려 술 마시며 살아 있다. 곧 죽겠다.

- 「夏李學校」

친한 동무가 죽음을 당했을 때에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과거의 기억
은 시인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했고, 그 죄책감은 죽
음에의 충동으로 이어졌으리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동부 봉태는 전기의
죽음의 충동과 중기의 경직성을 모두 극복한 재생의 작업으로서의 『만
인보』에 등장할 수밖에 없게 된다.

나하고 초등학교 일이등 다투었지

부잣집 아들이라 옷이 좋았지

항상 단추 다섯 빛났지

도시락에 삶은 달걀 환하게 들어 있었지

흰 쌀밥에 보리 뿌려졌지
그러나 누구한테 손톱 발톱만치도 뽑낸 적 없지
너희 눈 옆에 우리 눈 하나 있다
너하고 나도
의종계 지내자고 굳은 떡 주며 말했지
그런 봉태
수복 직후 아버지 죽은 뒤
동네 사람에게 끌려 가서
할미산 굴 속에서 죽었지
유예군 흑인 총 맞아 죽었지
그 달밤에
그 캄캄한 굴 속에서 죽었지
봉태야
나는 너 하나 살려낼 수 없었다
네 열입곱 살은 내 열일곱 살이었는데

- 「봉태」 전문, 『만인보2』에서

이런 죄의식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끝내 죽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가 죽음의 욕망을 거리낌없이 내뿜은 결과로 얻게 된 죽음의 관념화, 객체화가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고향에서의 학살사건에 대한 아픈 기억을 드러내 객체화함으로써 친구 봉태에 대한 죄책감에서 스스로 벗어나려고 했을 것이다.

즉 시인은 죽음에의 충동에서 점차 벗어나게 되는데, 다음의 시들에서 이런 면들이 발견되고 있다.

① 비가 내리면 한 민족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먼 곳이 나에게 가르쳐 준다.
 죽음은 한마디 말을 고친 삶인가
 아니 그것도 비오는 날인가
 태초부터 무덤도 삶과 나란히 비를 맞는다

- 「미망인」

위 시에서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한 차원 높아져 나타난다. ‘죽음은 한마디 말을 고친 삶인가’, ‘태초부터 무덤도 삶과 나란히 비를 맞는다’ 등의 표현은 지금까지의 죽음에 대한 시인의 인식이 삶에 대한 인식과 함께 고려되어 변증법적으로 승화된 것을 볼 수 있다. 곧 더 이상 죽음을 회구하지도 않고, 또 두려워하지도 않고 인정하며 사는 법을 시인이 깨달았다는 사실이 이 작품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이 고은 시인은, 『피안감성』에서는 불교적 윤회관으로 죽음을 부활로 승화시키는 어느 정도 균형 잡힌 불교적 세계관을 작품에서 투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변의 운문집』에서는 이와는 달리 죽음에 대해 찬사를 보내며 허무주의적 의식의 한 극단을 보여주었다. 이 의식은 『제주가집』에 이르러 한 차례 더 변모한다. 『제주가집』에 이르러 고은은 삶에 대한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조금씩 죽음에 대한 추구하고 허무주의적 세계관의 질곡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비로소 고은의 시들에서 삶에 대한 희망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이는 『문의마을에 가서』 등 중기 이후의 시들에서 구체적으로 형상화되기 시작한다.

전기의 시에서의 자아가 현실 갈등으로 인해 위축되어 동경, 몽상, 슬픔, 좌절, 죽음의 부정적 정서로 편향되었다면, 중기 시에서는 현실과의 적극적 대면, 밝음의 세계에 대한 지향, 응집과 확산에서 오는 역동성에

의해 자아의식이 강화되어 자아와 현실에 대한 열린 성찰이 강조된다. 이것은 ‘지난 날에 집착했던 자연, 선, 死者의 풍경으로부터 역사의 절벽과 상황 또는 민족 이데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삶의 감동으로 전환해 왔다’는 시인의 세계관 변모와도 관련된다.

이 시기 시인의 시는 생명과 죽음, 밝음과 어두움, 생성과 파괴 등 대립적인 가치들이 서로 갈등하면서 새로운 의미 창조의 지평으로 나아가고 있다. 곧 자아의 수평적 확대를 넘어서 의식의 수직적 각성을 꾀했던 것이다. 이같은 시도의 결과, 자아는 새로운 존재로 전이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사적인 세계의 한계에 머물러 있던 것에서 나아가 공적인 세계로 자아를 확장하고 외적 세계를 적극적으로 내면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전기의 시가 자기 독백이나 한탄, 절규 등의 감정에 편향되어 발화시 화자의 반응이 중심이 되는 화자 지향의 언술 구조를 보았다면 중기 시는 자아의 세계화로 청자 지향의 언술 구조를 구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추상적 관념 세계나 몽상 속에서 비실체화된 세계는 점차 구체성을 확보해 나간다. 그에 따라 초기 시에서 지나친 부사어의 사용, 한자어를 중심으로 의미의 핵심을 포착하려는 시도 등으로 인해 애매하고 난해해졌던 시어들이 구어체를 활용한 수사법과 리듬이 도입되면서 중기에 와서는 시의 의미가 보다 쉽게 전달되기 시작한다.

고은 시인의 네 번째 시집인 『文義마을에 가서』(1974)에는 제주시절(1964-1967)을 벗어난 이후인 1967년 이후 6년 동안의 변모가 담겨 있다. 죽음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던 데에서 벗어나 역사와 민족, 더불어 사는 삶 속의 벅찬 감동과 애환을 느끼게 된 것이다.

고은에게 있어서 죽음은 삶의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이면서 한편으로는 삶의 내밀한 가치를 드러내주는 매개이기도 했다. 역설적으로 삶에 대

한 강렬한 집착을 유발하고 그 도덕적 실천을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삶에 대한 강렬한 집착을 유발하고 그 도덕적 실천을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죽음은 삶의 숨은 동력이 된 것이다. 그만큼 죽음은 고은 시의 정신적 지표와 일치되는 모티브이며, 남성적이고 웅혼한 목소리와 예언가의 잠언적 어투를 연상케 하는 문체적 특질과 연관된 주제이기도 했다.

전기 시에서 중기 시로의 중요한 변화는 시인이 죽음의 의미를 눈부신 적막함의 미학 속에 가두어 두지 않고 삶에 대한 반성과 현실 인식이라는 과제를 향해 확장해 나갔다는 것이다. 죽음은 그 자체로 빛나고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삶과의 긴장 아래에서만 인간에게 성찰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전기 시의 자아는 잠과 몽상의 흐릿해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가 바라보는 세계는 피안 세계의 흔적이 담겨 있는, 직접적으로 감각할 수 없는 비실체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시적 자아의 몽상은 절망과 회한을 심화시킨다. 그러나 중기 시에서는 초기의 잠에 대한 몰입과 현실 도피를 극복하고 명정한 각성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곧 중기 시에 이르러서는 궁핍한 삶의 한 가운데서 그 궁핍을 속속들이 체득한 현실적 인간의 육성이 텍스트 표면으로 표출되기 시작하며, 허무에의 몰입이 가져오는 회한과 절망의 감정은 구체적인 현실 세계의 긍정을 통해 적극적 상승적 의식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고은 시인은 네 번째 시집 『文義마을에 가서』를 거쳐 다섯 번째 시집 『入山』에 들어가면서부터 선택과 결단으로 점철된 행동주의 시인으로 변모한다. 시인의 대사회적 의식이 텍스트 표면에 직접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내면 갈등의 원인도 근거가 불분명한 추상적 감정이거나 소멸에 대한 감상적인 집착이 아니라 현실의 어둠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온갖 것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어둠’으로 구체화되며 현실 문

제로 제시된다. 이 시기 허무의식은 이러한 부정적 현실을 무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려는 능동적인 정신 작용으로 변용되어 간다. 이때 허무의식은 상승하는 힘의 정신적 기호가 된다. 구체적인 현실 인식을 긍정하고 부정의 대상을 직접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루어지는 파괴와 해체 작용은 응집력을 지니며 그 폐허의 자리에서 새로운 상승을 하게 하는 비약적 힘이 창조된다. 시집 『입산』에서 이러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대사회적 의식이 문면에 직접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하는 것은 『새벽길』부터이다.

중기 시의 시적 상상력은 초기 시에서 일관되게 유지해 온 자연과 우주의 원리, 그 변전의 흐름에 의존한다. 그것이 시의 내포를 풍부하게 해주면서 보편성을 획득하게 한다.

겨울 문의에 가서 보았다.
거기까지 다다른 길이
몇 갈래의 길과 가까스로 만나는 것을
죽음은 죽음만큼
이 세상의 길이 신성하기를 바란다.
마른 소리로 한 번씩 귀를 달고
길들은 저마다 추운 소백산맥 쪽으로 뺨는구나
그러나 빈부에 젖은 삶은 길에서 돌아가
잠든 마을에 재를 날리고
문득 팔짱끼고 서서 참으면
먼 산이 너무 가깝구나
눈이여 죽음을 덮고 또 무엇을 덮겠느냐.

겨울 문의에 가서 보았다.
죽음이 삶을 짝 껴안은 채
한 죽음을 무덤으로 받는 것을.
끝까지 참다참다
죽음은 이 세상의 인기척을 듣고
저만큼 가서 뒤를 돌아다본다.
지난 여름의 부용꽃인 듯
준엄한 정의인 듯
모든 것은 낮아서
이 세상에 눈이 내리고
아무리 돌을 던져도 죽음에 맞지 않는다.
겨울 문의여 눈이 죽음을 덮고 나면 우리 모두 다 덮이겠느냐.

「문의 마을에 가서」

「문의마을에 가서」는 시집 『문의마을에 가서』에 실린 다른 작품들보다 이른 1969년에 쓰였으나, 초기 피안에 대한 동경의 세계로부터 현실과 역사의 한가운데로 진입하려는 전환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더욱 주목할 만하다. 이 시의 배경인 ‘겨울 문의’는 충북 청원군의 한 마을로, 지금은 대청 댐 건설로 인해 수몰된 마을이다. 문의까지 정처없이 길을 따라 걸어온 시인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겨울 문의를 응시한다. 적막한 시골 마을인 ‘문의마을’에는 지금 눈이 내리고 있다. 눈은 땅과 만물을 덮어가면서 차츰 이 세상을 화자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결국은 완전히 無化시킨다. 현상계의 실체가 흐릿해지고 눈이 세상을 뒤덮으면서 가려져 있던 저편의 세계가 모습을 드러낸다. 저편의 세계의 모습은 죽음이다. 눈은 저마다의 사물이 지니고 있던 개성을 無化시키고 이 세상을

비일상화함으로써 시인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 가운데 시인은 현실 세계 저편에 있는 초월 세계, 삶 이후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 곧 ‘눈’은 일상을 비일상화하여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보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잠든 마을에 재를 날리고’라는 구절에서는 허무에 닿아있는 유랑을 포기하고 ‘잠든 마을’로 표현되는 현실 세계로 되돌아가고 있는 시인의 내면적 정황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에 돌아와서 시인이 하는 일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일상적 삶의 양상이 아니다. 화자의 행동은 ‘잠든 마을에 재를 날리는’ 일인데, ‘재’가 환기하는 소멸감과 죽음의 예감은 삶과 죽음의 연관성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한다.

즉, 1연의 화자가 죽음의 예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2연으로 갈수록 죽음은 점차 삶을 끌어안는 원리가 된다. 시인의 시선도 죽음의 세계로부터 떨어져 나와 마을의 세계로 밀착되어간다. 이 시에서의 죽음은 삶의 지배 원리이기보다는 사람과 만물을 정화시켜 그 본질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시인은 모든 사물이 죽음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연대감과 연민을 느낀다. ‘죽음은 인기척을 듣고/ 저만큼 가서 뒤를 돌아다본다’는 구절은 죽음이 화자인 ‘나’의 인기척을 듣고 나를 돌아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눈 오는 날의 흐릿하고 무겁게 내려앉은 하늘의 풍광은 지상을 입체감을 상실한 평면적 세계로 만든다. 죽음이 자신의 앞에서 돌아다보는 것에 대해 시인은 돌을 던짐으로써 응답을 보낸다. 돌을 던지는 것은 죽음을 마을에서 쫓아내려는 행위이지만 그 이면에는 죽음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의도가 내재해 있다고 하겠다.

위에서 보듯 소멸이나 가치의 無化에 집중되었던 초기 시에서의 시인의 관심이 중기에 이르러서는 가치의 無化와 재구성으로 옮겨간다. 이 둘

사이에서 시는 더욱더 팽팽한 긴장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자아를 소멸시키고 세계를 부정하는 하강적 허무의식은 이제, 파괴와 생성의 양가적 운동을 통해 자아와 세계의 근원적 회복을 지향하는 상승적 허무의식으로 전환된다. ‘나 혼자서 나를 없애면서’, ‘잠 이루지 못하는 것이 고맙다’, ‘이 세상은 없다/ 아주 없어져야 할 세상은 없다’, ‘살아온 것은 없다/ 몸은 남아있다’, ‘만상은 헛되다/ 참답다’, ‘침묵 속에 소리는 살아있다’ 등 모순을 통합하면서 새로운 과정으로 나아간다.

곧 중기 시에 이르러서는 궁핍한 삶의 한 가운데서 그 궁핍을 속속들이 체득한 현실적 인간의 육성이 텍스트 표면으로 표출되기 시작하며, 허무에의 몰입이 가져오는 회한과 절망의 감정은 구체적인 현실 세계의 긍정을 통해 적극적 상승적 의식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3) 비평적 글쓰기를 통한 내면화

비평은 문학을 비롯한 예술 텍스트에 대한 해석과 평가를 일차적으로 담당하는 글쓰기의 형태이다. 즉 비평은 작품을 바탕으로 비평가 자신의 주관적 가치를 드러냄과 동시에 그것을 사회적인 동의를 구하여 공적 담론을 수립하려는 글쓰기라 할 수 있다. 하머마스에 따르면, 근대(18세기경)에 접어들면서 문학작품 혹은 문학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공적인 담론의 소통 공간이 생겨나고, 이에 따라 공론장이 형성되어 왔다. 비평의 대상 측면에서 탈구조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비평문의 텍스트는 예술 텍스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현실 또한 하나의 텍스트로 보고 읽는다. 따라서 비평의 대상을 현실의 모든 텍스트로 개방할 필요가 있다.

비평은 일차적으로 대상에 대한 평가를 지향하지만, 다양한 비평 주체

들이 모인 곳에서는 논쟁의 형태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 논쟁은 쟁점에 대한 서로 간의 대립적인 견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참여자들 간의 경쟁적이면서도 협력적인 대화이다. 따라서 비평 논쟁 글쓰기의 본질은 현실의 모든 텍스트들 대상으로 타자성의 주체가 자신의 주관적 가치를 드러냄과 동시에 그것을 사회적인 동의를 구하여 공적 담론을 수립하려는 글쓰기라 할 수 있다.

비평적 글쓰기의 교육적 의미는 크게 세 가지⁵⁰⁾로 볼 수 있는데 ‘① 공론 활동의 연행과 내면화 ② 메타적 소통 능력의 확장 ③ 사회적 문식력의 신장’이 그것이다.

먼저 ‘공론 활동의 연행과 내면화’는 부르디외가 말하는 것처럼, 장이란 다양한 주체들이 하나의 인식을 공유하면서 서로 간에 길항하는 공간이다. 언어활동으로서의 논쟁은 이러한 장의 맥락과 논리를 형성하는데, 특히 상징적 공간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논쟁은 코드 공유를 통해 하나의 ‘논쟁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쟁점에 따라 여러 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를테면 문학의 기능과 관련된 쟁점, 문학의 본질과 관련도 쟁점 등과 같이 쟁점의 성격에 따라 논쟁의 성격과 방향은 달라진다. 따라서 논쟁 공동체는 공론장을 구성할 수 있는 하위 단위가 될 것이다. 논쟁 공동체는 해당 공동체에 속하는 주체들이 동일한 코드를 공유하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같고 다른 입장을 전달하고 교환하는 소통의 장이 된다. 비평 주체는 코드를 바탕으로 논쟁장을 해석하고, 개입하며, 의미를 창조해 간다. 따라서 쟁점에 맞춰서 읽고 쓰는 비평 활동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코드의 공유는 논쟁 공동체의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복수의 표현 주체들로 상징하고, 그들에게 쟁점을 던져 주

50) 김근호, 「비평 논쟁 글쓰기의 방법 연구-1960년대 순수 참여 논쟁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고, 글쓰기를 통해 논쟁을 해보게 하는 것은 공적 활동으로서 비평 공론장과 구조적인 상동성을 지닐 수 있다. 이러한 논쟁적인 글쓰기를 통해 학습자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자신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체험을 할 수 있다.

논쟁 공동체가 구축되면, 학습자들은 교사의 지도에 따라 글쓰기를 수행하면서 논쟁을 본격화하게 된다. 글쓰기를 통해 쟁점이 분명해지고 또 이에 대한 새로운 글이 계속 생산되면서 텍스트 생산의 맥락은 점점 분명해진다. 구체적인 텍스트들이 생산되면서 담론이 생성된다. 담론은 공적 맥락이 분명한 언어활동으로 학습자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맥락이 보다 분명한 상황 속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점에서 활동의 결과, 즉 내면화의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메타적 소통 능력의 확장’에서 글 쓰는 주체는 쟁점과 자신이 주장, 타자의 주장에 각각 거리를 두면서 글쓰기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거리두기’는 비판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된다. 이를 통해 표현 주체는 이데올로기의 왜곡에 따른 뒤틀린 의사소통 상황을 바로잡거나, 타자와 자신의 논리에 대한 점검을 할 수도 있다. 바로 이러한 원리가 거리두기에 따른 언어활동이고, 이것이 가장 명시적인 방식으로 드러나는 글쓰기가 논쟁을 통한 비평적 글쓰기가 논쟁을 통한 비평적 글쓰기인 것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주체적 자율성을 신장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국어교육에 등장한 표현론의 주된 흐름에서는, 쓰기 과정에서의 맥락화 방식에 대한 방식에 대한 학습은 학습자 내적 사고 과정에 맡긴 측면이 크다. 공교육의 장은 개인만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 공간이다. 복수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학습자들이 서로 만나고 부딪치고 서로를 확인하면서 자신을 되짚어 보는 공간이 공교육의 장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글쓰기 교육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공론장

의 원리에 바탕을 둔 상황모의적 활동 경험이 학습자의 메타 언어적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 연구는 글쓰기로 수행되는 비평 논쟁을 학습 활동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보다 역동적인 언어활동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의의를 둔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문식력의 신장’은 문식성⁵¹⁾은 크게 기초적 수준과 고등 수준의 문식성으로 나뉘는데, 읽거나 쓰기를 말소리와 문자의 단순 대응으로 보는 것이 기초 수준이라면, 이를 전달자의 의도와 목적, 수신자의 배경과 필요, 그리고 상황이라는 종합적인 의사소통의 맥락 속에서 보는 것이 고등 수준의 문식성 개념에 해당한다. 이에 따르면, 문식성의 발달이 주로 사회적 상호 작용 속에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점은 문식성 발달이 주로 사회적 상호 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점은 문식성의 개념을 고등 수준의 기능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기존 논의를 종합하면, 문식 활동이란 문자를 읽고 쓰는 단순한 이해나 표현을 초월하여, 읽기·쓰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적 필요와 요구, 그리고 필자 및 독자의 사전 지식, 태도, 목적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의 정신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식력은 지식이나 기능을 넘어서는 활동적이고 수행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앞 절에서 다뤘던 고은의 시적 변모 양상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평적 글쓰기 통한 내면화’ 단계가 필요하다.⁵²⁾

초기 고은의 시는 죽음과 좌절, 혹은 소멸과 절망의 부정적 상상력이 지배적이다. 인간의 삶에 대한 윤색(淪塞)을 통해 삶을 죽음 안에 가두어 두는 비극적 인식과 체념적 초월로의 이행, 그리고 끝내는 삶과 죽음을 화해시켜 내면에 대한 성찰에 이르고자하는 시적 욕망은 시대의 황량함과 맞물려 고은의 시세계를 관통하는 낭만주의의 한 경향으로 나타나고

51) 의사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문자 언어의 사용 능력, 즉 모어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52) 오수연, 「고은 시의 낭만성 연구-초기시와 중기시를 중심으로」, Comparative korea studies Vol. 17 No. 2

있다. 그러나 관념적인 죽음을 통해 생의 의지를 북돋으며 궁극에는 부활에 대한 갈망으로 확장된다고 할 때, 일련의 부재와 결핍에 대한 갈망이 곧 감상적 낭만성의 토대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고은의 5, 60년대 시에 대하여 “치열한 죽음의식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공동체적 삶에 대한 애정 어린 통찰력과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사람살이의 모순과 고통이 결합되어 있다.”⁵³⁾과 같은 비판이 따르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존재의 궁극과 구도적 삶을 지향하고, 더 나아가 삶과 죽음에 대한 물음을 근원적 진리의 차원으로서 수렴하고자 하는 시인의 정신세계가 반영되었다는 면에서 긍정적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보다 역동적인 태도로 현실을 조망하고 삶을 구체화시키게 되는 중기시로의 이행이 초기시와의 단절이 아닌 연장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은 시의 전환점이 되는 『문의마을에 가서』에 이르면 사회적 현실에 눈뜨기 시작하는 시인의 의식적 변모가 드러난다. 죽음과 허무는 여전히 중심 주제로 나타나지만, 비의적이거나 허구적인 분위기가 상당 부분 제거되고, 현실적 삶과의 대립 구도 속에서 현실을 비판하고, 더 나아가 이를 극복하려는 낙관적 의지가 두드러지면서 이상적 낭만주의로 변모해 가는 것이다. 이미 초기시에서 중기시로 이행하는 과정의 특징으로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성찰이라 지적했으나, 이러한 시적 자세가 자아의 폐쇄성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때문에 비극적 죽음의식은 한이나 비애와 같은 비극적 서정의 민족적·보편적 구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극적인 방식으로 낭만주의를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인정할 필요는 있다.

『문의마을에 가서』의 시편들은 급격한 시적 변화를 내적으로 계기 짓는 중요한 의식의 전환이 구현되어 있으므로 정치한 분석이 필요하다.

53) 박정희, 「고은의 전반기 시세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26쪽.

먼저 살펴볼 것은 시적 화자가 ‘나’와 ‘타자’를 분리하여 인식함으로써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고독한 내면에 침잠하여 비극적인 죽음의 기운을 내뿜었던 것과 달리 ‘나’와 ‘타자’를 객체화하여 현실을 바로 보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아래의 시는 『문의마을에 가서』에 실린 다른 작품들보다 이른 1969년에 쓰인 것으로 초기시에 두드러졌던 피안에 대한 동경으로부터 현실과 역사의 한 가운데로 진입하려는 전환기에 쓰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겨울 문의(文義)에 가서 보았다./ 거기까지 다다른 길이/ 몇 갈래의
 길과 가까스로 만나는 것을./ 죽음은 죽음만큼/ 이 세상의 길이 적막
 하기를 바란다./ 마른 소리로 한 번씩 귀를 달고/ 길들은 저마다 추
 운 소백산맥(小白山脈)쪽으로 뻗는구나./ 그러나 빈부에 젖은 삶은 길
 에서 돌아가/ 잠든 마을에 재를 날리고/ 문득 팔짱 끼고 서서 참으면
 / 먼 산이 너무 가깝구나./ 눈이여 죽음을 덮고 또 무엇을 덮겠
 냐.// 겨울 문의(文義)에 가서 보았다./ 죽음이 삶을 꼭 껴안은 채/
 한 죽음을 무덤으로 받는 것을./ 끝까지 참다 참다/ 죽음은 이 세상
 의 인기척을 듣고/ 저만큼 가서 뒤를 돌아다본다./ 지난 여름의 부용
 꽃인 듯/ 준엄한 정의(正義)인 듯/ 모든 것은 낮아서/ 이 세상에 눈이
 내리고/ 아무리 돌을 던져도 죽음에 맞지 않는다./ 겨울 문의여, 눈이
 죽음을 덮고 나면 우리 모두 다 덮이겠느냐.

「문의마을에 가서」

‘겨울 문의’는 댐 건설로 인해 수몰된 마을이다. 시인은 이곳에 내리는 ‘눈’이 세상을 덮어버리자 드러나는 ‘죽음’을 의식하며 현실 저편의 초월적 세계를 경험한다. ‘잠든 마을에 재를 날리고’는 현실 세계로 되돌아가

고 있는 시인의 내면적 정황을 나타낸다. 1언이 죽음의 예감을 비추고 있다면, 2언으로 갈수록 죽음은 점차 삶을 끌어안는 원리가 된다. 죽음은 삶의 지배 원리이기보다 사람과 만물을 정화시켜 그 본질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으로 재생과 부활에 기여하는 창조적 의미의 죽음인 것이다. 이는 도덕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새로운 삶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열망의 차원에서 죽음의식이 변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눈이 죽음을 덮는다’는 것은 모든 존재가 자연적인 현상 아래에 놓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로써 모든 사물은 생래적으로 이미 죽음을 타고난 것이기에 이는 개별자의 비극적 사건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수궁해야 하는 공통의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러한 연대의식과 연민의 감정은 ‘우리’를 호명함으로써 본격화되는데, 폐쇄된 내면의 단독자로서가 아닌 ‘우리’의 ‘어울림’은 새로운 각성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

내면에 머무르던 시선과 관념에 불과하던 인식들이 현실이라는 외부 세계로 이동 및 확장의 과정을 거치면서 고은의 시는 서서히 1970년대의 문학사적 흐름에 합류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한다. 주지하다시피 70년대는 정치 사회적 문제의식이 심각하게 인식된 시기로서 문학사적으로 조망해볼 때 “시의 서정성보다는 시의 사회적 대응이 깊게 각인되는 시기”, “서정에서 현실로의 방향성이 크게 부각되었던 시기”⁵⁴⁾였다. 이러한 시대적 정황은 고은 문학의 연대기에서 전환점을 마련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진보적 시간관의 선취는 이후 고은 시에 드러나는 이상적 낭만주의의 전제로서 작용한다.

가자./ 허허벌판 잠자리 가자./ 온 길 삼천리(三千里)/ 서러운 약수
삼천리(弱水三千里)/ 어느 세상에 꽃 하나 보랴./ 뉘엿뉘엿 해 지면/

54) 최동호, 『한국현대시사의 감각』,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105쪽.

나온 새 까막까치도 돌아간다./ 가자./ 하늘 아래 억겁(億劫) 그름이
 로다./ 잠 못 이룬 별들이라면/ 내 가문 가슴에 채워주마./ 피리젓대
 무엇하랴/ 한 마디 가락 아직도 남았다면/ 부는 바람에 버리고 가
 자./ 가자./ 가자./ 허허벌판 잠자러 가자./ 참다운 이 이 땅의 병어리
 로다./ 백도라지야 백도라지야/ 너 어느 세상에 피어있느냐./ 만(萬)
 원혼(怨魂) 잠든 벌판/ 허허벌판 잠자러 가자.

「허허벌판」 전문 『입산』

이 시는 『입산』의 모두에 수록된 것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활발하게 논의 되지는 않았지만 김주연은 이 시를 두고 “가장 고은다운 진면목을 담고 있는 작품”⁵⁵⁾이라 평한 바 있다. 특히 ‘잠’이라는 시어에 주목하면서 ‘잠, 꿈’등 문학의 핵심적 표상을 통해 70년대의 살벌한 정치 현실에 대응하는 또다른 이념 전략으로서 채택한 것이라 해석한다. “잠 못 이루고 고통스러워하는 존재들과 정서적으로 융합되고자 하는 다짐의 표현이 ‘잠’을 매개로 하여 ‘가자’라는 실천에의 지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꽃 하나, 새 한 마리 없이 쓸쓸하고 서러운 먼 길을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지나서 도착하는 곳은 허허벌판이다. “허허벌판”은 사전적으로 ‘끝없이 넓고 큰 벌판’을 의미하지만 위의 시에서 이 공간이 상징하는 바는 그 자체의 의미보다 그곳까지 도달하는 과정, 즉 ‘현재적 사실’에 주목하도록 이끌고 있다.

현재를 초점화하는 것은 현실 참여적 성격을 내포한 것이기에 다분히 리얼리즘적이다. 그런데 이때의 리얼리즘이 단순한 현실 묘사에 그치지 않고, 불모의 현실을 각성케 한 후 오히려 극복 의지를 발현시키는 동인으로서 역설적 기능을 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 현실 인식이 사

55) 김주연, 「죽음과 행복한 잠-고은의 70년대」, 신경림·백낙청 엮음, 앞의 책, 116-119쪽 참조.

실을 드러낼 때 낭만적이고 감상적 기질의 제 기능은 무엇보다 정서에 호소하며 공감을 얻어낸다는 데 있다. “낭만주의의 작품 속에서도 사실적인 색채가 들어 있고, 실제 낭만적인 것과 사실적인 것의 구별은 상당히 유동적⁵⁶⁾”이라는 견해는 서정의 틀에서 논의되던 기존 낭만주의의 범주를 확장시키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역사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낙관적인 미래를 전망하고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정신은 문학의 진정한 현실 참여를 가능케 하는 전략⁵⁷⁾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을 보다 강한 어조로 실현한 시로서 그의 70, 80년대를 대표하는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 모두 화살이 되어/ 온몸으로 가자./ 허공 뚫고 온몸으로 가자./
가서는 돌아오지 말자./ 박혀서 박힌 아픔과 함께 썩어서 돌아오지
말자.// 우리 모두 숨 끊고 활시위를 떠나자./ 몇 십 년 동안 가진
것./ 몇 십 년 동안 누린 것./ 몇 십 년 동안 쌓은 것./ 행복이라던가/
뫼이라던가/ 그런 것 다 닳마로 버리고/ 화살이 되어 온몸으로 가
자.// 허공이 소리친다./ 허공 뚫고 온몸으로 가자./ 저 캄캄한 대낮
과녁이 달려온다./ 이윽고 과녁이 피 뿔으며 쓰러질 때/ 단 한 번/ 우
리 모두 화살로 피를 흘리자.// 돌아오지 말자!/ 돌아오지 말자!// 오
화살 정의의 병사여 명령이여!

「화살」 전문 『새벽길』

위 시는 “화살”의 상징적 의미를 십분 활용하여 ‘가다’와 ‘떠나다’의 술어⁵⁸⁾에 화자의 굳은 의지를 담아내고 있다. 이 시에서도 현실은 다시 돌

56) 릴리안 R. 프루스트, 앞의 책, 90-91쪽 참조.

57) 신명경, 『한국 낭만주의 문학론』, 새문사, 2003, 94쪽 참조.

58) 고은의 시에서 이러한 술어의 활용은 매우 빈번한데 이들이 지니는 모티브는 세가지 정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소시민적 안락함에서의 탈피, 둘째 현실변혁적 소망의 표출, 셋째 모순 극복을 위한 투쟁적 의

아오고 싶지 않을 만큼 부정과 불의가 가득한 것으로 암시된다. 이에 맞서는 화자의 태도는 정의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확고한 믿음을 ‘화살’에서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비장미는 자기희생적 결단이자 동시에 현실과 역사의 변혁을 위해 봉사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특정한 목적지를 향하고 있다. 고은의 초기시에서도 떠남을 지향하는 술어들은 빈도 높게 등장했지만 그것은 뚜렷한 목적없는 방황에 가까웠기 때문에 중기시의 술어들은 이들과 변별된다. 위의 시에서 화자가 “우리”로 더불어 가고자 하는 곳은 화살이 꽃히는 과녁, 즉 ‘깜깜한 대낮 과녁’이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깜깜하다는 모순된 수식은 ‘어둠’의 이미지를 통해서 현재를 문제화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낭만주의의 본질적 특성에 기대고 있는 부분이다. 물론 여기에도 민중적 삶을 생생하게 드러내거나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도출하기보다는 다소 추상적이고 상투적인 상징을 사용하는 데 그쳤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만하다.

고은의 초기시와 중기시에 나타나 두드러진 특징을 현실 도피적인 경향과 이상 지향적인 경향이라고 보았다. 물론 이들의 특징은 완전하게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일련의 ‘경향’으로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은의 초기시는 주로 1960년대에 발표된 시들이 포함되는데, 전후의 혼란상을 극복하고자 시인이 택한 방식은 자신을 현실과 고립시켜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었다. 그의 초기시에 강하게 드리워진 허무주의나 죽음의식은 부조리한 현실 상황에 대하여 이를 자신의 운명과 비극적으로 동일시하여 체념하다시피 초월하거나 또는 성찰과 구도의 자세로 현실을 마주하는 시인의 인식으로 표출된다.

전태일 분신사건을 계기로 그의 시세계는 큰 변화를 보이는데, 1970년대에 발표된 시들은 고은을 ‘민중시’의 대표시인으로 자리하게 만들었다.

지가 그것이다. 이들은 주로 화자의 외향적 의지를 함축한 것을 해석되며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의 시로 갈수록 그 의지가 강도가 세어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초기시에 나타난 죽음과 허무는 여전히 중심주제이지만, 사회적 현실에 눈을 뜨면서 현실을 도피하기보다는 현실을 비판하고 더 나아가 이를 극복하려는 실천적 의지를 보이며, 낙관적 전망에 달하는 인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고은의 시는 그의 시가 가진 의식적 지향이 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정서적 기조와 표현 방식의 동질성은 낭만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고은 시의 낭만성은 크게 감상적 낭만성과 이상적 낭만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때의 낭만적 특성은 각각 생의 허무를 촉발하거나 불모의 시대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그려내는 인식소로서 작용한다. 한마디로 정의되기 어려운 낭만주의 또는 낭만성을 두고 고은 시가 선택하고 있는 특성은 감상적 정서나 이상에 대한 동경이 현실과 맞닿아 있다는 데에 있다. 초기시는 20년대 병적 낭만주의의 원류를 따라가는 듯하지만 생에서 제일의 비극적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죽음을 인식한 뒤 체념적으로 이를 초월하고자 하고, 성찰과 구도의 단계에 이르는 것은 분명 긍정적 인식의 출발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중기시에 이르러 잠재적 미래에 대한 그의 기대가 막연한 기다림이나 맹목적인 호소로만 그치지 않고 하나의 실체로서 낭만주의의 한계를 스스로 극복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 일반적인 낭만성, 낭만주의가 감상주의와 이상주의에 편승하여 왜곡되기 쉬운 한계를 지녔다면 현실에 능동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이를 극복하고 있는 것이 고은 시의 낭만적 특성인 것이다. 이런 고은의 시적 행보의 변화가 현재도 진행 중인만큼 ‘변화’와 ‘지속’의 관점으로 고은 시를 단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3. 삶과 시를 통한 시정신의 함양

1) 문학 교육과 삶의 고양

좋은 문학 작품은 인간의 다양한 면을 보여주면서도 인간 정신의 고귀한 부분을 상기시키고 이를 계승하고자 하는 면을 보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학 작품을 읽고 교육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고양(高揚) 할 수 있다.

교육이란 결국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본질적인 입장에서 볼 때, 문학 교육은 교육의 기본에 가장 충실하면서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본질적인 입장에서 볼 때, 문학 교육은 교육의 기본에 가장 충실하면서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는 것의 의미를 다음과 같은 견해는 보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우리 속담에 “사람이먼 사람인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교육의 이러한 기능을 강조한 말이라 볼 수 있다. 소크라테스 역시, “사람은 먹기 위하여 사는 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먹으며 또 그저 사는 게 아니고 올바르게 살기 위함”이라 했고, 칸트는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만 인간이 되며, 교육이란 현실적 존재를 이상적 당위로 끌어 올리게 하는 일”이라 했다.⁵⁹⁾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는 것의 의미는 위 글에서 제시된 것처럼 ‘현실적 존재를 이상적 당위로 끌어 올리게 하는 일’이다. 따라서 교육의 본질

59) 김정환, 강선보 공저, 『교육철학』, 박영사, 2001, 57쪽 인용.

은 인간의 삶을 보다 높은 이상의 실현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결국 문학 교육은 인간을 현실적인 존재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이상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때 ‘현실적인 존재’가 의식주를 바탕으로 하는 생존에 중점을 둔 존재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상적 당위’란 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야만 문학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인간의 삶의 고양이라는 면이 보다 분명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의 인용문은 인간의 ‘이상적 당위’에 대한 것을 문학과 관련하여 설명한 글이다.

물론 문학 활동이 당장 경제적 이익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생활은 매우 다양한 국면과 층위를 갖고 있다. 경제적 측면이 중요하다고 해도 이것이 삶의 모든 것을 규정하지는 못한다. 어떤 이가 아무리 경제적 이익이 많은 삶을 영위한다고 해도 그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즉 행복한 삶에 경제적 조건은 필요한 조건이긴 해도 충분한 조건은 못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학 활동이 형성하는 관계망은 행복한 삶의 충분한 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를 통해서 인간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인간으로서의 품격과 아름다움을 갖출 수 있다. 이 경우 품격은 단순한 품위가 아니다. 인간으로서의 체취를 간직하면서 향상을 위해 추구하는 그런 인간적 가치를 뜻한다.⁶⁰⁾

이상과 같은 견해를 볼 때, 인간이 인간답게 되기 위해서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인 활동을 넘어서 ‘품격과 아름다움’까지 갖추어야 함을

60) 김대행,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238쪽 인용.

알 수 있고, 그러한 ‘품격과 아름다움’은 문학 작품을 통해 터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대와 사회에 따라 인간의 가치관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문학은 그러한 다양성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한 다양성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그 자신이 이미 지니고 있던 가치관의 타당성과 한계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고 새롭게 지향해야 할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문학 작품에 드러난 이러한 다양성을 통해 독자들은 인간을 억압하면서 인간다운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들에 대해 인간이 어떻게 저항하여 왔는지를 알게 된다. 문학은 인간이 추구해온, 또한 추구해야 할 가치들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문학이 인간의 삶을 고양시키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더라도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일상에 함몰된 채 살아가기 쉬운 인간은 시를 통해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시를 읽고 해석하거나 시를 창작하는 활동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인간은 삶의 존재 의미를 느끼고 인간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문학을 통해, 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삶의 고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은 문학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일깨워 주어야 할 부분이라고 하겠다.

아울러 문학을 교육하는 것이 삶의 고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때, 교육적인 효과를 고려한 좋은 작품을 소재로 삼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이때 교육적으로 좋은 작품이라는 것은 인간 존재의 의미를 치열하게 찾고자 한 작가의 의도가 예술적으로 잘 드러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은의 시에서도 역시 이러한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은 「성묘」를 통해 고은의 시적 가치를 살펴보겠다.

아버지, 남북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제 시대 소금장수로
이땅을 떠도신 아버지.
아무리 아버지의 두만강 압록강을 생각해봐도
눈앞에 선지가 생길 따름입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두만강의 회령 수양버들을 보셨지요.
그리고 아버지는
모든 남북의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얀 소금을 한 되씩 팔았습니다.
때로는 서도 노래도 흥얼거리고
꽃피는 남쪽에서는 남쪽이라
밀양 아리랑도 흥얼거리셨지요.
한마디로, 세월은 흘러서
멈추지 않는 물인지라
젊은 아버지의 추억은
이땅에 남지 않고
아버지는 하얀 소금이 떨어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남북 통일이 되면
또 다시 이 땅에 태어나서
남북을 떠도는 청청한 소금 장수가 되십시오.
"소금이여", "소금이여"
그 소리, 떨어져 가는 그 소리를 듣게 하십시오.

- 「성묘」

시는 ‘성묘’라는 전통적 행위를 반추하면서 생시의 아버지를 추모하고, 고향인 ‘묘향산 압록강’을 노래하면서 조국통일을 꿈꾼다. 아버지에 대한 추억은 일제강점기로 거슬러오르는 일이기도 하므로, “일제시대 소금장수로/이 땅을 짚신으로 지까다비로 떠도신 아버지”와 “아버지의 젊은 시절/두만강의 수리조합 수양버들 보셨지요./국경수비대의 총검에 언뜻언 듯 어린/날 저문 수풍 강물 뗏목 노래 사이 독립군 눈초리 아셨지요.” 등에서 일제강점기에는 ‘국경수비대의 총검’이 아버지의 소금장수를 부자유스럽게 했으나 지금은 분단된 국토가 자유로운 왕래를 저지한다고 비극적 역사의 역장과 아버지의 산소에 ‘성묘’하는 일상조차 불가능한 현실에 대한 비판을 간접화한다.

‘한 세상 휘몰아가는 설움’은 ‘아버지의 설움’이자 ‘서정적 자아의 설움’을 은유하므로, ‘설움’은 일제강점기 이후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은 우리 민족의 설움으로 확장된다. ‘소금이여 소금사려’라는 아버지의 외침은 ‘한 세상 휘몰아가는 일제강점기의 아버지의 설움’이자 ‘분단된 지금의 설움’을 은유하는 것이다. 성묘는 ‘가족주의’를 상징하는 전통적 모티프이므로, 이를 통해 가족이 해체된 현실을 지시하여 평화 내지는 조국통일이란 해체된 현실을 지시하여 평화 내지는 조국통일이란 해체된 가족이 회복되는 데 있음을 간접화하고 있다. “평화는 한쪽이 일률적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는 전체주의가 아니라 각자의 정체성이 낳은 삶의 문화”이듯이 각 민족의 전통은 그 민족의 평화로운 삶을 상징하는 양식이자 정체성이 낳은 삶의 문화이기 때문이다.⁶¹⁾

61) 진순애, 「남북한 통일시의 조국 심상과 평화의 정치성-고은과 박산운의 시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3집, 2008, 179-202쪽

2) 참여와 순수의 조화

한국전쟁 이후 분단체제에 따른 민족사의 모순으로 일관되는 1950년대는 마침내 4·19혁명을 분수령으로 새로운 민족사의 전환기를 마련하였다. 즉, 4.19혁명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민족의 주체적 역량을 발휘한 사건으로서 이 때 민중들은 민족사의 모순을 타개하고자 하였으며 자생적 근대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온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강열한 열망으로 시작된 4·19혁명이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그 싹을 잘리게 되자 다시 민주주의가 퇴보하게 되었고 이러한 현실 속에 지식인들에게 현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쟁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사회현실과 역사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의식이 문학적으로 반영되어 순수 참여 논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요컨대, 순수 참여 논쟁은 내부적으로 1950년대의 전후문학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함이었고 외부적으로는 4.19와 5.16이라는 시대적 상황의 문학적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순수와 참여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후반 박영희와 김기진 사이에 있었던 내용-형식 논쟁에서부터이다. 당시 문학에서 ‘참여’문제가 카프를 통해 제기되었고, 카프의 성장과 해체까지의 과정 속에서 계속 언급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립으로 ‘순수’의 문제가 나타났다. 즉, 일제의 탄압과 맞물려 카프를 중심으로 한 목적문학이 점차 쇠퇴해 가자 문학의 본질을 되찾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면서 등장한 것이다.⁶²⁾ 이후 순수·참여논쟁은 30년대의 세대 논쟁, 해방 건국기의 좌우익 논쟁의 흐름을 이어 왔으며 본격적으로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에 이르러 문예 미학적 성격 논쟁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혼

62) 박병규, 「1960년대 순수참여논쟁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24쪽.

히 1963~1964년 동안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인 초반의 논쟁과 1967년 김봉구를 둘러싸고 벌어진 앙가주 논쟁, 그리고 전후의 김수영과 이어령 간의 불온시 논쟁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순수·참여논쟁의 문학사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전 논쟁들이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의해 중단되어 문학의 사회성에 대한 관심이 위축되고 말았던 데에 반해, 1960년대 초반의 순수·참여 논쟁은 1960년대 후반에도 계속 이어지면서 문학의 사회성과 역사성에 대한 관심이 점차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또한 남북분단 이후 1950년대에 걸쳐 현저히 순수문학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문단에 문학의 사회성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 비평적 균형 감각을 회복시켰다.

둘째, 이 논쟁을 통해 문학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해 관계 설정 문제가 제시되었으며, 문학의 역할과 기능론에 대한 방법론적 성찰이 이루어졌다. 즉, 사회 구성원으로서 나라는 존재의 역할과 작가로서의 역할, 문학의 형식과 내용, 문학의 자율성과 효용성, 작가의 사회인식과 작품의 형상화 문제 등 문학을 논할 때 항상 언급되었던 여러 항목들에 대한 분석이 가해졌다.

셋째, 1950년대의 전후문학 이래 절망과 불안과 무력감에 빠져 있던 당시의 문학에 새로운 극복의지를 불어넣었다는 점이다. 즉, 순수-참여 논쟁을 통해 자유와 평등, 실천과 이상의 문제들이 논의될 수 있었다. 또한 제한된 범위 안에서나마 진보적 표현이 가능해졌으며 이념적인 탄력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지식인으로서의 작가의 현실인식과 실천이 강조될 수 있었던 것이다.⁶³⁾

그러나 문학이라는 것은 단순히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며, 단순히 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것도 아니다. 그 두 영역을 모두 포괄할 수

63) 박병규, 「1960년대 순수참여논쟁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55쪽.

있는 전체성을 지닌 것이 바로 문학인 것이다. 따라서 문학을 참여문학과 순수문학이라는 분리해 이분법적 사고로 논쟁을 펼친 것은 한계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논쟁을 벌일 때 일부 논자들이 문학사적 사실을 터무니없이 왜곡시키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주장을 고의적으로 곡해하는 것과 같이 이론적 뒷받침이 결여 되었다는 점, 감정적인 주장이 많았다는 것, 구체적인 작품의 사례를 놓고 분석적인 논쟁을 진행한 예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볼 때 생산적인 논쟁이라고 보기에 어렵다.

결국 순수·참여논쟁은 외형상 60년대를 관통해 70년대 초반에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논쟁은 실제로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문학사의 중요한 자리를 계속 지켜나가고 있다. 사실 내용과 형식을 바탕으로 한 참여와 순수의 이분법적 분리는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분리할 수 없는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대화, 즉 말 속에도 언어라는 형식과 말하고자하는 내용이 섞여있는 것처럼 이들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은 시세계의 변모 과정을 보면 초기시의 순수에서 참여로 나아가는 모습이 포착된다. 변모과정을 통해 결국 초기시의 순수와 중기시 이후의 참여가 조화를 이루는 고은의 시세계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다.⁶⁴⁾

고은의 초기 시세계는 그의 데뷔작 「폐결핵」에서도 드러나듯 허무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다. 감수성이 민감한 시인이 10대 후반에 목격한 한국 전쟁의 참혹한 현실과 전쟁 후의 폐허는 그의 내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고은은 모든 존재를 ‘무(無)’로 돌리는 극단적인 허무의식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여러 차례의 자살 시도와도 무관하지 않다. 고은의 시세

64) 김미혜, 「만인보의 시적 서사와 민중성 연구」, 국어교육연구, 제22집, 2008.

계를 ‘연속성’의 논리로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은, 그가 초기 시에서 보여주었던 허무의식조차 전쟁에 대한 가장 적합한 현실인식의 결과였다고 보기도 한다. 그렇지만 당시 그의 시작들은 ‘역사성’보다는 극단의 상처를 입은 내밀한 ‘서정’을 그려내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19살에 출가한 그의 절망은 불교의 무위 사상과 친연성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고은은 1969년 29세가 되던 해에 환속을 선언하고 속세를 돌아오게 된다.

1970년 네 번째 자살 기도를 했던 고은은 같은 해 겨울 무교동 술집 바닥에 떨어져 있던 현 신문지에서 우연히 전태일의 분신자살 사건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는다. 허무에 대한 지향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던 자신과 달리 죽음을 불사하고 시대의 모순을 알린 전태일의 죽음은 고은에게 사회와 역사에 대한 각성의 계기가 되었다.⁶⁵⁾ 그리고 1974년 간행된 『문의마을에 가서』는 초기의 유희적이고 추상화된 세계와 단절하여 민중적 세계관으로 각성해 나가는 변화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집의 표제작 「문의마을에 가서」는 죽음과의 대면을 통해 삶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삶에 대한 경건한 태도를 찾아가는 시인의 내면을 보여준다. 죽음에 대한 극단적인 집착에서 벗어나 삶과 죽음의 대립을 넘어서는 사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런 無名人民의 죽음이 우리 겨레의 歷代 삶이 아닌가. 누이여.”라고 노래한 「두만강으로 부치는 편지」에서는 죽음으로부터 이름 없는 민중의 삶에서 삶으로 건네지는 역사에 대한 인식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이후 초기 시의 허무주의적 자세를 벗어나 삶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표현하면서 그의 시와 삶은 부정한 권력에 맞서게 된다. 절망 때문에 죽음을 연모했던 것이 초기의 고은이라면, 중기의 고은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사로서 현실과 대결했던 것이다.

1970년대에 이미 재야운동을 이끌면서 여러 차례 투옥되었던 고은은

65) 『만인보10』에서 고은은 전태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의 죽음은/ 너의 시작이었다/ 나의 시작이었다/ 하나 둘 모여들어/ 회썹열개/ 아침바다의 시작이었다// 그는 한밤중에도 우리들의 시작이었다.”

1980년 5월 17일 강제 연행되어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가혹한 감금 생활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같은 해 군법회의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국어사전을 차입해 본격적인 우리말 공부 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2년 석방된 이후 그는 『조국의 별』, 『전원시편』 등을 간행하고 서사시 『백두산』과 『만인보』 연작을 통해 민중의 삶을 그들의 언어로 담아내는 시적 성과들을 발표하게 된다. 이 시기에 이르러 고은의 민중은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 개성을 지닌 시적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고, 역사 발전의 주체인 민중의 삶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면서 그는 역사성과 서정성의 균형을 성취하게 된다. 민중과 삶과 정서, 그들의 언어에 밀착함으로써 고은의 역사와 사회는 서정성과의 대립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이다.

고은은 허무와 소멸을 노래하다가 민족의 현실에 눈뜨게 되어 열렬한 민족주의적 시인이자 투사로서 변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⁶⁾ 그 변모는 『문의마을에 가서』(민음사, 1974)라는 한 시집‘에서’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문의마을에 가서』 이후 시인이 급격하게 변모했다는 것은, 이 변모가 자연적 사실이 아니라 인공적 사실임을 가리킨다. 인간의 사건인 한, 사실은, 인공적 사실이라는 게 더 자연적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인간사를 자연적 사실, 즉 당연한 사실로 환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으로써 그것에 대한 질문을 막아버리는 것이다. 다음, 『문의마을에 가서』 이후 시인이 변모했다고 했을 때, 그 변모의 의미는 ‘민족주의 시인’으로의 변모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구호적인 참여시가 된 것이 아니라 서정을 기저로 한 현실 인식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학습자에게 시의 주제를 표면적일 뿐 아니라 내면화해야 한다.

66) 정과리, 「민족을 발견하던 때의 고은」, 사이앰SAI·창간호, 2006.

시인의 진술로만 보자면, 초기 시세계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그는 ‘역사’를 열망하고 있었다.

유난히, 70년대 이래 나에게서는 역사가 필요했다. 그것은 해방 이후 한번도 역사라는 의식체계에 제대로 들어서 보지 못한 사실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현실이 폭력적으로 균열할 때 그 현실을 극복하는 높은 역사의식의 공급이 절실했기 때문이기도 하다.⁶⁷⁾

초기시에서 그는 ‘죽음’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런데 1967년 이후 그는 죽음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죽음의 둘레에 방법론적으로 사로잡히게 된다. 이 말은 죽음을 방법적으로 다루기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여기까지 오면, 시인의 변화와 근원이 무엇인지 확인해진다. 초기의 시인이 죽음과 소멸을 노래하였다면 그것은 문자 그대로 죽음과 소멸을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민족은 시간적·공간적으로 단일하다고 가정된 사람들의 공동체를 가리킨다. 한국의 경우에는 여기에 언어적 단일성이 추가된다. 민족은 시간적·공간적·언어적으로 단일하다고 가정된 사람들의 공동체를 가리킨다.

이제 바라보노라.

지난 것이 다 덮여 있는 눈길을.

온 겨울을 떠돌고 와

여기 있는 낯선 지역을 바라보노라.

나의 마음 속에 처음으로

67) 고은, 「저자 서문」 고은전집 제1권, 『머리책』, 김영사, 2002, 29쪽.

눈 내리는 풍경
 세상은 지금 묵념의 가장자리
 지나 온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설레이는 평화로서 덮이노라.
 바라보노라 온갖 것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
 눈 내리는 하늘은 무엇인가.
 내리는 눈 사이로
 귀 기울어 들리나니 대지의 고백
 나는 처음으로 귀를 가졌노라.
 나의 마음은 밖에서는 눈길
 안에서는 어둠이노라.
 온 겨울의 누리 떠돌다가
 이제 와 위대한 적막을 지킴으로써
 쌓이는 눈 더미 앞에
 나의 마을은 어둠이노라.

- 「눈길」 (시집 『피안감성』 1960)

이 시구에서는 자연이 둘로 분화되어 있다. 눈·산맥과 언덕·골짜기로
 우선 언덕·골짜기는 “우리 청춘의/더러운 자국과/죄”가 스며 있는 곳이다.
 다시 말해 현실의 일부이다. 여기에 눈이 내려, 그 현실을 덮어버리기를
 화자는 소망한다. 이 순간의 ‘눈’은 문자 그대로 현실과 다른 별도의 무
 대를 만드는 장치이다. 그러나 그 자연은 곧 ‘산맥’으로 바뀐다. 산맥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그것은 장엄한 자연의 세계로 읽힐 수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현실의 ‘미래’에 대한 은유로 읽힐 수도 있다. 이 시에서

는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때문에 자연은 현실로부터 ‘이탈’하지 않는다. ‘배제’하지도 못한다.

고은의 초기시에서 풍경은 이중적으로 나타난다. 현실의 은유로서의 풍경, 그리고 그 현실-자연을 덮는 자연으로서의 풍경. 첫 번째 사항에서 은유의 기능은 주체와 환경의 분리이다. 두 번째 사항에서 ‘덮는 자연’은 은유인지 아닌지 불확실하다. ‘덮는 자연’은 현실을 지우는 힘이다.

그의 ‘민족’은 부정적일 파악된 민족현실에 ‘자아’를 보태어 탄생하였다. ‘민족을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는 흔한 얘기는 여기에서 민족을 위하는 것과 민족을 위하는 것과 ‘나’를 위하는 것이 동시에 행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민족을 구체하려 한다면 나를 희생할 것이 아니라 나를 배려해야하는 것이다.

이렇듯 고은의 시는 앞에서 말했던 순수와 참여가 조화를 이루는 ‘시 텍스트’ 안에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그 분깃점의 본질을 일깨워 준다. 사회·역사적 주체로서의 지각을 텍스트의 내면 속에 투입하여 현실의 목소리를 지운다.

3) 텍스트를 통한 재생산 능력⁶⁸⁾

모작은 문학사에서는 별 의미 없는 행위로 치부되기도 하고 특정한 시인의 아류로 만든다는 시각이 많았다. 1930년대에 가장 예민한 감수성을 소유하고 있었던 정지용의 에피고넨들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최근 불거진 표절 시비는 이러한 경향의 단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표절과 모방시, 모작은 수행과정과 수행단계가 엄연히 다르다. 아직 자신의 표현

68) 손진은, 「독창적 창작 이전 단계로서의 모방시 쓰기」, 『시안』 29호, 2005.

경향이나 세계가 확립되지 않았을 때는 원텍스트에 대한 모방시 쓰기를 통해 자신만의 표현법을 개발하고 자신의 어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독창적인 창작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모작, 혹은 모방시 쓰기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모작 혹은 모방시 창작이 시쓰기에 어떤 도움을 주느냐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 우선 시를 입체적으로 읽게 하여 시의 구조를 머리 속에 각인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는 교수자의 학습을 통해서 머리로 읽는 과정이 아니라 그 시의 형식을 그대로 씹으로써 가슴으로 읽고 체화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효과라 할 수 있다. 이해의 수준이 깊다 보니 학습자로 하여금 시의 형식에 대한 눈을 뜨게 하며 시의 깊이를 체득하게 한다.

만들어진 작품에 열중할 때는 어느 특정구절의 표현기법과 표현전략에 집중하여 표현방식 정도만 배우게 되는데, 모작쓰기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 새로운 성향 및 기법을 스스로의 방식으로 습득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함으로써 개성적인 표현들을 생성하게 한다. 이는 기성의 텍스트를 읽을 때도 대상 텍스트가 선행 텍스트에서 어떻게 더 나아갔는가를 파악하게 해주는데, 실제 수업에서는 기존의 텍스트들을 상호텍스트적으로 읽고 창작에 임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된다.

수업에서는 우선 시창작의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글쓰기의 학습모형을 발상과 표현의 모방 단계(단순모방), 구조의 모방 및 변형 단계(심층모방), 형식과 의미의 차별화 단계(독창적 표현)로 나누어 진행했다. 이렇게 단계를 나누는 것은 수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단계를 거쳐 점차로 더 높은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즉 뒤의 단계가 선행 단계를 거쳐서 실행될 수 있는 것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구안하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교수자는 텍스트를 산출한 학습자에게 1, 2회 이 텍스트를

낭독시킨다. 그리고 학습자(수용자)들에게 이 단계에서의 글쓰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스스로의 참여를 통해 발표, 토론할 기회를 가지게 한다. 다음으로 전체적인 완성도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도출하도록 자세한 평가단계를 거친다.

모작 혹은 모방시 교육은 학습자 모두가 자신의 방식의 글쓰기를 확립하고 있지 못하고, 글쓰기에 대한 흥미를 잃고 있는 학습자들을 시 창작으로 끌어들이는 데 매우 좋은 방법이다. 학습자들은 남의 글을 모방하면서 시의 구조를 자연스럽게 학습한다. 이는 이론적인 분석을 통해 다다를 수 없는 부분이다. 이 구조에는 어법과 어조, 리듬, 어말어미의 처리방식 단어의 선택방식 등 글 쓰는 방식의 거의 모든 측면이 어우러져 있는데, 남의 글을 따라가는 가운데 글 쓰는 방식을 알아갈 수 있으며, 글을 쓰는 방식을 익히면서 남의 글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체계적인 모방시 교육을 통해 우리는 남의 시를 보는 눈을 크게 향상시키고 또한 시 깊이 읽기를 통한 경험 확장은 물론 시의 구조를 내면화하여 자신의 표현법과 세계를 개발해나가는 데 하나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필자의 시창작 교육과정 중의 하나의 방법이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거쳐 폭넓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중등 학습자에게 창작 수업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거부감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모방시 짓기’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학습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인보』의 창작원리를 밝히도록 하겠다.⁶⁹⁾

『만인보』에서 고은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신화 속 인물에서부터 고대와 중세를 거쳐 근현대의 역사 속 인물에 이르기까지 지배·피지배 계층의 구성원을 아우르는 인간군상을 다루어 왔다. 그는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직접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시적 화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69) 김미혜, 「만인보의 시적 서사와 민중성 연구」, 국어교육연구, 제22집, 2008.

통하여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창작 방법을 택함으로써 작품 속 세계를 객관화한다. 그런 면에서 『만인보』의 시편들은 임화의 「우리읍바와 화로(火爐)」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시의 전통을 잇고 있다. 또한 그는, 『백두산』은 영웅적 인물의 일대기를 통해 삶이 총체성을 그리는 서사시로 완성한 데 비해 『만인보』의 총체성은 대규모의 ‘연작’형식을 통해 구축된다.

『만인보』의 시편들 중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은 특정 인물을 시적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 사는 이야기’로서의 ‘실명시(實名詩)’이다.⁷⁰⁾ 시의 제목이 고유명사가 아닌 일반명사로 이루어지는 시편들도 적지 않고, 특정 개인이 아니라 인물군을 시적 소재로 삼은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상당 수의 작품이 개별적인 인간의 삶을 그리고 있다. 각각의 시는 특정 인물의 삶을 다루고 있지만 그러한 개별 작품들을 이어감으로써, 개인의 삶은 전체의 삶으로 확대되고 개별 주체들의 생명력으로부터 민족의 역사가 귀납적으로 구축되는 『만인보』 특유의 서사가 구현된다. 『만인보』는 문제적 개인의 서사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들을 연작 형식을 나열함으로써 이야기 속 인물의 삶에 보편성을 부여하는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 속에서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명사들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이웃들과 구두쇠, 거짓말쟁이, 게으름뱅이, 욕쟁이, 노름꾼, 도둑, 창녀 등의 하층민들이 등장하는 시편들이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 의미를 획득한다. 인간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인물들에 의해서도 구성되며 보편적인 도덕률에 따르지 않는 이들도 역사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만인보』에는 미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삶의 지혜를 터득한 인물이 등장한다. 그 중 대길이가 아저

70) 윤영천, 「인물시의 새로운 가능성-만인보론」, 신경림·백낙청 엮음, 『고은 문학의 세계』, 창작과 비평사, 1993, 177쪽.

씨는 현명한 민중을 대표한 인물이다.

새터 관전이네 머슴 대길이는
상머슴으로
누룩도야지 한 마리 번쩍 들어
도야지 우리에게 넘겼지요.
그야말로 도야지 떡 따는 소리까지도 후딱 넘겼지요.
밥 때 늦어도 투얼덜 줄 통 모르고
이른 아침 동네길 이슬도 털고 짚도 취워 흰히 가리마 났지요.
그러나 낮보다 어둠에 빛나는 먹눈이었지요.
머슴 방 등잔불 아래
나는 대길이 아저씨한테 가가거겨 배웠지요.
그리하여 장화홍련전을 주룩주룩 비 오듯 읽었지요.
어린아이 세상에 눈 떴지요.
일제 36년 지나간 뒤 가가거겨 아는 놈은 나밖에 없었지요.

대길이 아저씨더러는
주인도 동네 어른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지요.
살구꽃 핀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홀적삼 큰아기 따위에는 눈요기도 안하고
지게 작대기 뉘어 놓고 먼데 바다를 바라보았지요.
나도 따라 바라보았지요.
우르르르 달려가는 바다 울음소리 들었지요.

찬 겨울 눈 더미 가운데서도

덜렁 겨드랑이에 바람 잘도 드나들었지요.

그가 말했지요.

사람이 너무 호강하면 저밖에 모른다.

남하고 사는 세상인데

대길이 아저씨

그는 나에게 불빛이었지요.

자다 깨어도 그대로 켜져서 밤새우는 불빛이었지요.

- 「머슴 대길」

『만인보』 초기작이면서 대표작 중 한 편인 「머슴 대길」은 고은에게 일본어가 국어이던 시절 한글을 가르쳐 준 대길이 아저씨에 대한 기억을 담고 있다. ‘머슴’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너무 호강하면 저밖에 모른다/ 남하고 사는 세상인데’라고 말할 수 있는 대길이 아저씨는 ‘나에게 불빛’이었음은 물론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현인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배층에 속하지도 않았고 역사의 흐름에 정면으로 맞서는 혁명을 주도하지도 않았던 「머슴 대길」은 『만인보』에 와서 비로소 역사 속의 개인으로 자리매김 된다.

사회 구조를 추상화하는 역사학과는 달리 개인에게 이름을 돌려주고 그들에게 생생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야말로 문학의 힘이라 할 수 있다.⁷¹⁾ 영웅의 삶을 서사시로 엮는 대신 ‘이름 없고 더러운 사람들’의 삶을 연작 형식으로 엮음으로써 『만인보』의 역사는 문학의 권능을 극대화한다. 3,400여 편의 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때로 서로 닮아 있기도 하다. 세상살이에 게으름뱅이가 어디 한 사람뿐이고 남편에게 소박맞고

71) 황지우, 「귀소(歸巢)-고은과의 만남」, 황지우의 엮음, 『고은을 찾아서』, 1995.

친정으로 쫓겨 온 여인네들이며 어렵게 얻은 늦둥이를 애지중지 키우는 부모,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대물림되는 가난을 이겨보고자 몸부림치는 이가 어디 한 사람뿐이었겠는가. 『만인보』의 규모는 유사한 일화의 반복에 의해 고유명사들이 전형성을 획득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한편 고은은 역사 속 인물들과 자신이 만난 장삼이사(張三李四)들을 병치함으로써 민중의 역사를 복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다.

『만인보』의 시적 창작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등학습자 역시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의 단면을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학습자 주변의 특정 인물의 삶을 다루고 있지만 그러한 개별 작품들은 이어감으로써, 개인의 삶이 전체의 삶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개별 주체들의 생명력으로부터 역사가 구축되는 경험과 삶에 보편성을 부여하는 체험을 통해 내면화가 가능해진다.

IV. 고은 시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

1. 표현 기법과 창작 교육

(1) ‘계획’ 단계

‘계획’ 단계에서는 먼저 고은 시를 통해 어떤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활동을 전개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생각들은 결국 고은 시의 특징과 관련한 문학 수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학습 목표 설정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작품 속 수사적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형상화 능력을 기른다.”와 같은 학습 목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학습 목표가 세워졌으면 학습 활동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학습 목표를 살펴 볼 때 고은의 시들 중에 내적 형상화가 잘 드러나 이미지 활용과 상상력의 형상화가 두드러진 작품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은의 시적 이미지는 ‘누이, 병, 바다, 길’ 등으로 정리되는데 여기에서는 중등학습자에게 적합한 ‘길 이미지’를 통해 고은의 비유적 표현적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여기서는 「문의 마을에 가서」를 통해 고은 시의 상상력의 근저를 이루었던 죽음의 길의 이미지가 그 몽환적 세계로부터 점차 경험 세계의 현실감을 획득해 가는 과정에 있음을 알게 한다.

다음으로 「눈길」을 통해 고은의 문체론적 특징을 이해하고 그 시적 효과를 이해하게 한다. 부사어의 반복, 이질적인 수사어와 피수식어의 결합을 통해 화자의 의지가 강조되고 특정 서술어미를 사용하여 서술자의 태도를 일깨워 줌을 알게 한다.

이렇듯 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교사가 학생들에게 시의 의미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을 때, 학생들이 시의 의미를 파악하여 자신의 표현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시에 대한 적절한 분석이 이루어진 후에는 그러한 분석들을 바탕으로 어떠한 학습활동을 실시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타난 독특한 이미지의 형상화와 비유를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표현을 활용한 시를 창작하게 하는 활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은 시에 사용된 비유를 학생들 스스로 독특한 이미지들을 결합하여 변용하게 하거나 학생들 스스로 독특한 이미지들을 결합하여 변용하게 하거나 학생들 스스로 독특한 이미지들을 결합하여 표현하게 하는 활동들을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아울러 학생들의 언어 감각을 섬세하게 다듬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쓴 작품들을 발표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들

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상상력을 어떠한 방식으로 형상화하였는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할 수 있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상상력을 어떠한 방식으로 형상화하였는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할 수 있다. 학생들은 그들의 생각을 다른 동료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언어 능력을 더 발전시킬 수 있고, 타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2) '지도' 단계

'지도' 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먼저 각 작품을 감상하게 하며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 마을에 가서」는 작품을 읽은 학생들은 '죽음의 길의 이미지가 그 몽환적 세계로부터 점차 경험 세계의 현실감을 획득해 가는 과정을 획득해 가는 과정'임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눈길」이 갖는 표현상의 특징인 '이제', '여기', '처음으로', '처음' 등의 시간 부사어의 반복 제시, 서술어는 모두 '-노라'라는 서술어미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등 영탄법의 형식을 이해하게 한다. 이는 통찰 뒤에 오는 자아의 각성을 강조하면서 미지의 대상을 일깨우려는 서술자의 태도임을 암시한다. 또 '지금', '현재'의 시간은 눈길을 통해 열리는 정점의 순간이며 지금까지의 모든 대립과 방향을 하나로 통합하는 시적 순간으로 순백의 결정체인 눈은 방향과 고통으로 점철된 과거의 시간을 뒤엎고 응결시킨다. 눈에 의해 갑작스레 가야할 길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화자는 고요하게 눈썹이는 소리를 들으면서 세계를 성찰하는 오래만의 여유를 갖게 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처음으로'는 과거의 편력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오랜 편력 끝에 도달한 자기 정화와 응결의 공간을 환기시켜 준다. 고요한 성찰의 시선을 가

지면서 시적 자아는 비로소 내면적인 갈등이 극복되고 자신의 마음이 조화로움의 세계, 설레이는 평화의 세계로 나아가는 경험을 갖게 된다. ‘설레이는 평화’는 이질적인 수사어와 피수식어의 결합을 통해 평화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소망과 염원을 강조한다.

각 작품 속에서는 시적 화자의 상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특징을 통해 학생들은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이입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수 있다. 교사는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시적 화자의 정서와 상황에서 어떠한 대처를 했는지를 물음으로써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시에 대한 감상, 시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정서와 상황에 대한 질문이 끝난 후에는 시에 대한 교사의 설명이 필요하다.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실제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한 수사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를 창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어와 이미지에 대한 교사의 설명은 적절해야 한다. 시인의 개인적 삶에 기반을 둔 작품 외적 해석보다는 구체적 삶의 경험이 바탕이 된 설명이 학생들에게는 더 설득력이 있다. 교사가 이러한 설명을 하는 경우,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시 창작에 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왜냐하면 시 해석을 작가의 삶과 관련하여 보는 것은 자칫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에 대한 총체적인 감상과 학생 개인 경험의 공유 및 시에 대한 교사의 설명이 끝난 후에는 ‘길 이미지의 활용’과 ‘비유적 특징’에 대한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 창작과 관련된 지도가 필요하다. 교사는 주어진 작품 속에서 이러한 특징인 드러난 구절들을 제시하면서, 학생들이 고은 시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문의 마을에 가서」의 죽음이 자신의 앞에서 돌아다보는 것에 대

해 시인은 돌을 던짐으로써 응답을 보내고 있는데 돌을 던지는 것은 죽음을 마을에서 쫓아내려는 행위이지만 그 이면에는 죽음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의도가 내재해 있음을 알게 한다. ‘아무리 돌을 던져도 죽음에 맞지 않는다’는 이러한 실체 파악의 의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죽음은 인간에게 고정된 실체로 나타나지 않은 무형의 것이며, 인간인 나는 그것을 예감하거나 동경할 수 있을 뿐 고정된 의미로 파악할 수는 없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시와는 다른 방식으로 죽음과 삶을 표현한 시를 소개하는 ‘더 읽을거리’ 제시를 통해서도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죽음과 삶을 다르게 표현된 시를 제시함으로써 「문의 마을에 가서」가 갖는 시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학생들의 시적 체험을 더 풍부하게 하고 학생들의 시창작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 창작을 통해 학생들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어려움 등, 다양한 정서를 구체화시켜 보다 솔직하게 시로 표현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 창작을 통하여 학생들은 그들도 상상력이 발휘된 새로운 표현을 사용하여 언어 감각의 세련미를 살린 시를 창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평가’ 단계

‘지도’ 단계에서의 학습 활동들은 그대로 ‘평가’ 단계로 연결될 수 있다. 여기서 「눈길」, 「문의 마을에 가서」에서 나타난 이미지의 형상화와 이것이 작품 전체에서 지닌 의미 등을 질문하면서 학생의 학습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더 읽을거리’로 제시된 작품과의 차이를 설명해 보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과 더불어 ‘계획’단계에서 구상한 것처럼 주어진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자 학생들이 시적 표현을 실제로 활용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 창작의 과정을 평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시 창작과 관련하여서는 고은 시에 나타난 수사적 특징을 단순히 적용하는 단계를 넘어서 학생 본인이 사용한 비유적 표현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표현에 담긴 유추적 논리를 근거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평가의 목표는 단순히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러한 평가 과정에서 학생들이 언어 사용 능력이 신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참신하고 논리적 설명이 가능한 구조화된 언어 사용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이 이러한 학습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절히 지도하여야 하며, ‘평가’ 단계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항목화하여 평가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시 창작활동은 단순히 시를 창작하고 신장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주제의 내면화와 비평적 글쓰기

고은의 시에 나타난 주제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주제들을 주체적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학습 활동이 필요하다. 고은의 시들을 감상하고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고은 시에 나타난 삶과 죽음의 문

제들을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학습활동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바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지적·정의적 능력을 함양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사고 과정을 비평적 글쓰기를 통해 가다듬어 표현함으로써 언어 사용 능력의 향상이라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1) '계획' 단계

'계획' 단계에서 학습 목표를 "작품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갈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식을 비판적으로 내면화 할 수 있다."라고 정해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시적 화자가 인식한 삶과 죽음의 문제들을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작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수사적 기법이나 이미지 형상화라는 부분 외에, 작품에 담긴 문제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학습활동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경우, 「문의 마을에 가서」도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이 시는 특히 비평적 글쓰기 활동에 적합한 시이다.

「문의마을에 가서」는 시집 『문의마을에 가서』에 실린 다른 작품들보다 이른 1969년에 쓰였으나, 초기 피안에 대한 동경의 세계로부터 현실과 역사의 한가운데로 진입하려는 전환기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더욱 주목할 만하다.

계획하기 단계에서 교사는 이 시의 이러한 특징들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학생들의 인지적·정의적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교사는 이러한 작품이 지닌 주제를 고려하여 이에 적절한 학습활동을 선택해야 한다. 이 작품이 지닌 주제와 관련하여 교사는 비평적 글쓰기 활동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비평적 글쓰기는 문학적 해석 능력, 논리적인 글 전개 능력, 비판적 사고력 등

많은 부분에서 학생들의 사고력과 글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비평적 글쓰기는 학생들 스스로가 주어진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에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글쓰기이기 때문이다. 교사는 학생들이 시적 화자의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식에 대해 학생들이 스스로의 관점에서 평가한 글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글쓰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작품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작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자칫 학생들의 개인적 생각에만 경도되어 작품의 내용이나 주제와는 별개의 글쓰기가 될 수 있다. 교사는 이러한 사항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의 작품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비평적 글쓰기를 할 때에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획일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문학 작품에 대한 비평적 글쓰기를 할 때는 어떤 특정한 이론이나 관점, 글의 형식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시도들은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력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평적 글쓰기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을 계획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교사는 실제 학생들이 자유롭게 발표하고 원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계획’ 단계에서는 지도 단계에서 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평가표를 작성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교사는 원활한 수업을 위해 학생들에게 발표가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을 미리 알게 해야 한다.

(2) ‘지도’ 단계

‘지도’ 단계에서는 먼저 작품을 충분히 읽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작품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작품의 의미 파악이 이루어지면

학생들에게 작품의 주제와 관련하여 비평적 글쓰기를 실시할 것을 말하고 비평적 글쓰기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한다. 특히 작품을 감상한 후 주관적으로 떠오르는 감흥에 대해서만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시적 화자가 인식하고 있는 세상의 단면, 화자가 생각하는 신의 특징, 작품 속에 등장한 사람들이 처한 상황 등에 대해 학생들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비평적 글쓰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시 읽기, 내용 이해 및 떠오르는 생각들 메모하기
- 준비활동(글쓰기와 관련한 시간 설정을 포함한 화제 선정 및 글감 배분)
- 개요 작성
- 초고 쓰기
- 퇴고하기 및 최종 결과물 산출
- 비평적 글쓰기 발표
- 학생 토론
- 교사 평가

교사는 학생들이 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동시에 논리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학습 활동을 통해 작품 속 시적 화자가 실존적 갈등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지적·정의적 능력은 향상될 수 있다.

구체적 수업의 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쓴 글들을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그들의 생각을 전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작품의 주제와 관련하여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된다. 또한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인식 능력, 정서적 공감 능력뿐만 아니라 표현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 아울러 교사는 학생들이 이 같은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하여 비평적 글쓰기를 지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똑같은 시를 읽고도 서로가 의견이 다르다면 왜 그러한가 질문을 던져보면서 자기가 가졌던 생각을 구체화시켜 보아야 할 것이다. 성급하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결정하기보다는 자기에게 부딪쳐 온 느낌을 정확하게 밝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주의를 집중시켜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시를 읽는 즐거움과 자기 확인의 즐거움이 배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시에 대한 스스로의 반응, 바꾸어 말하면 그 시에 대한 자기의 공감이 무엇이며, 그것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은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의 즐거움과는 다른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⁷²⁾

초기 고은의 시는 죽음과 좌절, 혹은 소멸과 절망의 부정적 상상력이 지배적이다. 인간의 삶에 대한 윤색(淪塞)을 통해 삶을 죽음 안에 가두어 두는 비극적 인식과 체념적 초월로의 이행, 그리고 끝내는 삶과 죽음을

72) 최동호, 『시 읽기의 즐거움』,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1, 42쪽 인용.

화해시켜 내면에 대한 성찰에 이르고자하는 시적 욕망은 시대의 황량함과 맞물려 고은의 시세계를 관통하는 낭만주의의 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관념적인 죽음을 통해 생의 의지를 북돋으며 궁극에는 부활에 대한 갈망으로 확장된다고 할 때, 일련의 부재와 결핍에 대한 갈망이 곧 감상적 낭만성의 토대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간존재의 궁극과 구도적 삶을 지향하고, 더 나아가 삶과 죽음에 대한 물음을 근원적 진리의 차원으로서 수렴하고자 하는 시인의 정신세계가 반영되었다는 면에서 긍정적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문의 마을에 가서」의 ‘겨울 문의’는 댐 건설로 인해 수몰된 마을이다. 시인은 이곳에 내리는 ‘눈’이 세상을 덮어버리자 드러나는 ‘죽음’을 의식하며 현실 저편의 초월적 세계를 경험한다. ‘잠든 마을에 재를 날리고’는 현실 세계로 되돌아가고 있는 시인의 내면적 정황을 나타낸다. 죽음은 삶의 지배 원리이기보다 사람과 만물을 정화시켜 그 본질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으로 재생과 부활에 기여하는 창조적 의미의 죽음인 것이다.

소멸이나 가치의 無化에 집중되었던 초기 시에서의 시인의 관심이 중기에 이르러서는 가치의 無化와 재구성으로 옮겨간다. 이 둘 사이에서 시는 더욱더 팽팽한 긴장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자아를 소멸시키고 세계를 부정하는 하강적 허무의식은 이제, 파괴와 생성의 양가적 운동을 통해 자아와 세계의 근원적 회복을 지향하는 상승적 허무의식으로 전환된다. 이는 모순을 통합하면서 새로운 과정으로 나아간다.

이는 도덕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새로운 삶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열망의 차원에서 죽음의식이 변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눈이 죽음을 덮는다’는 것은 모든 존재가 자연적인 현상 아래에 놓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로써 모든 사물은 생래적으로 이미 죽음을 타고난 것이기에 이는

개별자의 비극적 사건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수궁해야 하는 공통의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러한 연대의식과 연민의 감정은 ‘우리’를 호명함으로써 본격화되는데, 폐쇄된 내면의 단독자로서가 아닌 ‘우리’의 ‘어울림’은 새로운 각성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

내면에 머무르던 시선과 관념에 불과하던 인식들이 현실이라는 외부 세계로 이동 및 확장의 과정을 거치면서 고은의 시는 서서히 1970년대의 문학사적 흐름에 합류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한다. 고은의 시적 행보의 변화가 현재도 진행 중인만큼 ‘변화’와 ‘지속’의 관점으로 고은 시를 단계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3) ‘평가’ 단계

교사는 ‘지도’ 단계에서 학생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미 학생들에게 제시된 평가표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점으로는 비평적 글쓰기의 형식보다는 글에 담긴 논리적 연결성이다. 글의 핵심이 단락의 어느 부분에 제시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글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스스로 느끼고 생각한 바를 시의 내용과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관하여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렇다고 논술을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글의 참신성이나 작품 속에 나타난 주제, 시적 화자의 상황 등 작품의 내용 이해도와 관련된 부분들에도 중점을 두어 평가해야 한다.

3. 텍스트 재생산과 창의성

여기서는 고은의 삶과 시 세계에 대한 통합적 고찰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시정신과 관련한 교수-학습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고은은 허무와 소멸을 노래하다가 민족의 현실에 눈뜨게 되어 열렬한 민족주의적 시인이자 투사로서 변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은 시 정신은 사회문화 맥락 속에서도 참된 ‘시성(詩性)’을 따르고 순수와 참여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교수 학습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한 특성이 잘 드러나는 작품을 선정하여 학습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1) ‘계획’ 단계

‘계획’ 단계에서 “고은의 삶과 작품을 통해 그의 시 정신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내면화 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학습 목표 설정 후에는 이를 잘 달성하기 위해 고은의 시 정신이 잘 드러나는 시를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작품을 선정하기 전에 고은의 작품에 대한 교사 평가도 중요하다. 작가의 삶의 진실성도 중요하지만 작품이 지닌 예술성과 국어 교육적 가치를 모두 고려하여 작품을 선정해야 한다. 시 교육을 할 때 고매한 인품을 지닌 인물의 삶을 교육적 소재로 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고은의 삶과 작품세계를 통합하여 그의 시 정신을 살필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작품 선정이 끝나면, 구체적인 학습 계획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때, 교사는 고은의 시정신과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계획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고은의 삶과 그의 시들을 통해 시 정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성묘」의 경우 ‘성묘’라는 전통적 행위를 반추하면서 생시의 아버지를 추모하고, 고향인 ‘묘향산 압록강’을 노래하면서 조국통일을 꿈꾼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시적 화자와 유사한 경험이 있는지,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등

을 질문하면서 자연스럽게 시를 이해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중등 학습자에게 창작 수업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거부감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모방시 짓기’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학습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인보』의 창작원리를 바탕으로 학습자만의 『만인보』를 모방하여 짓게 한다.

상상력과 창의성에 의한 텍스트 변용은 학습자 중심의 시 창작 활동 과정으로 학습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다양한 작가의 정보를 재발견하고 창작하는 활동 과정이다. 상상력에 의한 변용은 대상 텍스트에 대한 작품 정보를 재발견하고 2차 변용을 가능하게 하며, 재변용된 텍스트의 평가와 재구성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이 고은의 작품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시적 화자의 삶의 경험에 공감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고은의 삶과 그의 시세계에 대한 이해와 공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활동을 통한 상상력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동적 생산성이 있으며, 다양한 경험적 사고를 동원하여 텍스트를 유연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계획’ 단계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 고은의 삶이 학생들에게는 너무 멀리 느껴지거나 자신들과는 너무 다르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고은의 시 정신이 학생들의 삶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공감하지 못하는 인물의 삶과 그의 정신은 이해하기 힘든 철학 사조보다도 학생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고은의 시 정신을 다룬다고 할 때에도 국어 교육적 목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의 시 정신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한 학생들 본인

의 생각은 무엇인지에 대해 발표하고 글로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고은의 시 정신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라는 기능적인 측면의 연습도 고려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면화 방법을 비평적 글쓰기나 시창작과 같은 방법을 구상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평가와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미리 어떤 방식을 평가할 것인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2) ‘지도’단계

‘지도’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작품을 충분히 읽어보게 해야 한다. 고은의 삶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작품 감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작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고 나서 고은의 시 경향 변모양상을 그의 생애사적인 면을 통해 이해하게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은 시세계의 변모 과정을 살펴보면 순수와 참여와 조화하는 고은의 시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고은의 초기 시세계는 허무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는데 감수성이 민감한 시인이 10대 후반에 목격한 한국 전쟁의 참혹한 현실과 전쟁 후의 폐허는 그의 내면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고은은 모든 존재를 ‘무(無)’로 돌리는 극단적인 허무의식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여러 차례의 자살 시도와도 무관하지 않다. 고은의 시세계를 ‘연속성’의 논리로 보고 하는 연구자들은, 그가 초기 시에서 보여주었던 허무의식조차 전쟁에 대한 가장 적합한 현실인식의 결과였다고 보기도 한다. 그렇지만 당시 그의 시작들은 ‘역사성’보다는 극단의 상처를 입은 내밀한 ‘서정’을 그려내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중기 이후 『문의마을에 가서』는 초기의 유미적이고 추상화된

세계와 단절하여 민중적 세계관으로 각성해 나가는 변화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집의 표제작 「문의마을에 가서」는 죽음과의 대면을 통해 삶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삶에 대한 경건한 태도를 찾아가는 시인의 내면을 보여준다. 죽음에 대한 극단적인 집착에서 벗어나 삶과 죽음의 대립을 넘어서는 사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절망 때문에 죽음을 연모했던 것이 초기의 고은이라면, 중기의 고은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사로서 현실과 대결했던 것이다. 1970년대에 이미 재야운동을 이끌면서 여러 차례 투옥되었던 고은은 1980년 5월 17일 강제 연행되어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가혹한 감금 생활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같은 해 군법회의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국어사전을 차입해 본격적인 우리말 공부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2년 석방된 이후 그는 『조국의 별』, 『전원시편』 등을 간행하고 서사시 『백두산』과 『만인보』 연작을 통해 민중의 삶을 그들의 언어로 담아내는 시적 성과들을 발표하게 된다. 이 시기에 이르러 고은의 민중은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 개성을 지닌 시적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고, 역사 발전의 주체인 민중의 삶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면서 그는 역사성과 서정성의 균형을 성취하게 된다. 민중과 삶과 정서, 그들의 언어에 밀착함으로써 고은의 역사와 사회는 서정성과의 대립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이다.

『만인보』의 시편들 중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은 특정 인물을 시적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 사는 이야기’로서의 ‘실명시(實名詩)’이다. 각각의 시는 특정 인물의 삶을 다루고 있지만 그러한 개별 작품들을 이어감으로써, 개인의 삶은 전체의 삶으로 확대되고 개별 주체들의 생명력으로부터 민족의 역사가 귀납적으로 구축되는 『만인보』 특유의 서사가 구현된다. 『만인보』는 문제적 개인의 서사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들을 연작 형식을 나열함으로써 이야기 속 인물의 삶에 보편성을 부여하는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만인보』 초기작이면서 대표작 중 한 편인 「머슴 대길이」는 고은에게 일본어가 국어이던 시절 한글을 가르쳐 준 대길이가 저씨에 대한 기억을 담고 있다. ‘머슴’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너무 호강하면 저밖에 모른다/ 남하고 사는 세상인데’라고 말할 수 있는 대길이가 저씨는 ‘나에게 불빛’이었음은 물론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현인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배층에 속하지도 않았고 역사의 흐름에 정면으로 맞서는 혁명을 주도하지도 않았던 「머슴 대길이」는 『만인보』에 와서 비로소 역사 속의 개인으로 자리매김 된다.

「머슴대길이」를 활용한 교수-학습인 경우 학생들이 자신들의 삶의 경험들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을 통해 학습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효과적인 지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교사는 이러한 학습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작품 속 시적 화자의 상황과 시인의 삶의 경험들을 이해하고 인간의 품격이라는 부분까지도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습자의 주체적인 창작 활동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텍스트 변용에 기인하며, 창의성에 의한 텍스트 변용은 학습자의 창작 결과물에 가치를 부여한다. 결국 텍스트의 변용이 대상 텍스트를 단순히 모방하거나 개작한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창작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대상 텍스트가 갖고 있는 작품의 본질성에 학습자의 창작물이 될 수 있는 대상 텍스트가 갖고 있는 작품의 본질성에 학습자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변용 활동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 후에는 고은의 작품에 대한 이해와 그의 삶에 대한

이해를 위해 작품을 읽고 그의 삶에 대한 이해를 위해 작품을 읽고 그의 삶을 잘 정리한 시각 자료(예: 파워포인트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사의 설명과 학생들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작가의 삶과 당대 사회적 상황에 대한 보충 자료를 활용한다. 수업의 도입 부분에서 나누었던 질문 내용과 작품에 대한 이해, 작가의 삶을 총체적으로 종합하여 고은의 시정신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아울러 학생들이 의견을 발표하는 것과 고은의 시정신에 대한 글쓰기 활동 등이 평가에 반영됨을 주지시켜 적극적인 학생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단순히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일반적인 지도 방법인 것만은 아니다. 고은의 시정신을 파악하고 이것을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내면화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글쓰기는 ‘비평적 글쓰기’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지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고은의 시정신과 관련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고은의 시정신과 같은 진정한 ‘시성(詩性)’에 부합하는 시를 쓰는 시도를 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시정신을 내면화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3) ‘평가’ 단계

‘지도’ 단계에서 학생들의 발표를 바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이때는 미리 평가항목을 학생들이 알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발표를 중심을 평가할 수도 있고, 발표와 글쓰기 및 시 창작까지 모두 합쳐서 평가할 수 있다.

비평적 글쓰기나 시 창작의 경우 형식에 제약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 비평적 글쓰기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비평적 글쓰기처럼 글 전개 능력

과 작품 및 시 정신에 대한 이해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좋다.

시 창작의 경우에는 고은의 시를 패러디하는 형식까지 포함하여 자유로운 형식을 용인하되 개인의 경험이 담긴 시이면서 ‘시성(詩性)’에 부합하고 고은의 시 정신이 반영된 시를 높이 평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V. 결론

문학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좋은 교육적 소재가 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다. 좋은 문학 작품은 그 자체로 읽는 이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줄 수 있고 언어 교육적 측면에서도 독자들의 언어 사용 능력의 향상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따라서 좋은 작품을 선정하여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그 문학 교육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 교육과 언어 교육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시 교육은 언어 사용 능력의 신장이라는 언어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시는 시인이 기존의 언어를 활용하여 시인의 상상력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를 읽고 감상하는 것은 시인의 상상력을 언어로 구체화하는 방법을 접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언어 사용 능력은 신장된다. 또한 학생들 스스로 시를 창작하거나 작품을 비평하는 과정에서 언어 사용 능력 뿐만 아니라 사고력도 향상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좋은 시를 시 교육의 소재로 활용하는 것은 시 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 일임을 알게 된다.

본 논문은 고은의 시를 통한 교육의 교수-학습 단계를 ‘계획 단계(학습

목표 설정-학습 진행 방법 및 학습 과제 검토 및 설정-적절한 평가 방법 설정 및 공지), '지도 단계(시 읽기-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 파악-작품의 세부적 내용 및 표현 이해-작품의 세부적 내용 및 표현 이해-작품에 대한 총체적 감상 및 평가-시적 체험의 확장 및 내면화와 관련된 활동 실시)', '평가 단계(학습 목표 달성 및 작품 이해·감상 능력 평가, 시 창작 활동 평가)'로 설정하였다.

또한 시 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학습활동으로 비평적 글쓰기, 학생 의견 발표 및 토론, 시 창작 활동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학생들이 시 교육 목표를 내면화하기에 적합한 활동들이다.

고은의 작품 중 「문의 마을에 가서」, 「눈길」은 '길 이미지'를 통해 그의 비유적 표현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문의 마을에 가서」를 통해 고은 시의 상상력의 근거를 이루었던 죽음의 길의 이미지가 그 몽환적 세계로부터 점차 경험 세계의 현실감을 획득해 가는 과정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다음으로 「눈길」을 통해 고은의 문체론적 특징을 이해하고 그 시적효과를 이해하게 하였다. 부사어의 반복, 이질적인 수사어와 피수식어의 결합을 통해 화자의 의지가 강조되고 특정 서술어미를 사용하여 서술자의 태도를 일깨워 줌을 알게 하였다.

언어 사용 능력 신장이라는 언어 교육의 목표 달성하기 위한 소재로 적합한 작품들이다. 독특한 비유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감정과 상상력을 시적 표현으로 형상화하는 시도를 해 보는 시 창작 활동은 학생들의 언어 감각을 키워주고 시적 언어의 섬세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길 이미지'가 드러난 다른 고은 시들을 감상함으로써 고은 시의 이미지 제시 특성을 익혀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시로 표현하는 기

회를 갖도록 교수-학습 단계를 설정하였다.

문학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발달은 언어 사용 능력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는 시교육을 통해 섬세한 언어적 감각을 기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시에서는 인간의 정서와 세계와 인간 사이에서 오는 갈등 상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배우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정의적 발달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고은의 작품들은 ‘인지적·정의적 영역의 발달’이란 문학 교육의 일반적 목표를 달성하기에도 적합하였다. 고은의 시에 나타난 세련된 수사법과 이미지의 형상화 기법은 세계에 대한 인식 능력과 이를 언어로 표현해 내는 언어 감각의 향상을 위해 적절한 시 교육적 소재들이 되었다.

고은의 시에 나타난 주제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주제들을 주체적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학습 활동이 필요하였는데, 이는 고은의 시들을 감상하고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고은 시에 나타난 삶과 죽음의 문제들을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학습활동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바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지적·정의적 능력을 함양하게 된다.

이 작품과 관련하여 비평적 글쓰기와 같은 활동은 학생들의 주어진 학습 목표를 내면화하기에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물질적 풍요로움만이 아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인간이 물질적 풍요를 누리기 위해 스스로 인간다움을 상실해 가는 면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한 ‘시성(詩性)’을 지닌 작품들을 접하는 것이 인간의 품격을 높이는 좋은 방안이다.

고은의 시들은 시 교육을 통한 ‘인간 품격의 향상’이란 시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소재로서도 적합하였다. 특히 고은은 그의 삶과 그의 작품을

함께 다루어 볼 때, 그의 시정신을 깊게 느낄 수 있는 시인임을 알 수 있다.

그의 치열한 삶과 서정이 잘 드러난 작품을 함께 다루는 과정에서 고은의 시 정신을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폭 넓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날로 각종 과학 기술은 발전하고 이에 따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물질적 혜택은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발전을 통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품격까지 금전이라는 교환 가치와 쉽게 바꾸어 버린다. 그러면서 금전적 가치가 인간의 품격까지 함께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는 인간성 상실과 관련된 비보를 너무도 많이 접하고 있다.

문학 교육은 언어 사용 능력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인지적·정의적 능력의 발달과 인간의 품격 향상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다. 그 중에서도 시 교육은 이러한 교육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것이다.

고은의 시들은 그의 삶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한 부분으로만 평가받은 경향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고은의 작품들은 본 논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반적으로 시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적합하였고 이에 따라 고은의 시들이 두루 읽혀져 문학 교육의 현장에서 학습자들의 정서함양과 문학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활용되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I. A. 리처즈, 김영수 역 『문학이론의 원리』, 현암사, 1978.
- 고은, 「저자 서문」 고은전집 제1권, 『머리책』, 김영사, 2002.
- 구인환 외, 『문학 교사용 지도서(하)』, 교학사, 2003.
-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1998.
- 권영민 <한국 현대 문학사 2> 민음사 2009.
-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김대행, 『문학 교육 틀짜기』, 역락, 2000.
- 김대행,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김용직·장부일 공저, 『현대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5
- 김정환, 강선보 공저, 『교육철학』, 박영사, 2001.
- 김종철 외, 『문학 교사용 지도서(하)』, 디딤돌, 2003.
- 김주연, 「죽음과 행복한 잠-고은의 70년대」, 신경림·백낙청 엮음, 『고은 문학의 세계』, 창작과 비평사, 1993.
- 김현, 「시인의 상상적 세계」, 『한국문학의 이론』, 민음사, 1982.
- 김현자, 『한국시의 감각과 미적 거리』, 문학과 지성사, 1997.
- 남미영 외, 중학교 『생활국어 1-2』, 교학사, 2009.
- 노철, 『시교육 방법과 실제』, 보고사, 2002.
- 박철휘, 「선정과 세속의 거리」, 『고은을 찾아서』, 버팀목, 1995.
- 박호영 외, 『문학 교사용 지도서(상)』, 형설출판사, 2003.
- 방민호 외, 중학교 『국어 1-2』, 지학사, 2009.
- 신명경, 『한국 낭만주의 문학론』, 새문사, 2003.

- 염무웅, 「고은의 시 세계」, 시집 『부활』 해설, 민음사, 1975.
- 유종호, 『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2006.
- 윤영천, 「인물시의 새로운 가능성-만인보론」, 신경림·백낙청 엮음, 『고은 문학의 세계』, 창작과 비평사, 1993.
- 이남호, 「시와 시치미」, 유종호·최동호 편저, 『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현대문학, 1995.
- 이동순, 「존재의 전이에 대하여」, 『고은 문학의 세계』, 창작과 비평사, 1994.
- 이승훈, 『시론』, 태학사, 2005.
- 임규혁, 『교육심리학』, 학지사, 2000.
- 장경렬, 「문의마을과 청진동 또는 초월 세계와 인간 세계」, 『고은을 찾아서』, 버팀목, 1995.
- 최동호, 『시 읽기의 즐거움』, 고려대학교출판부, 2001.
- 최동호, 『한국현대시사의 감각』,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 최원식, 「에로스와의 해탈」, 『고은 문학의 세계』, 창작과 비평사, 1994.
- 최현섭 외, 『국어교육학개론』, 삼지사, 2002.
- 한철우 외, 『문학 교사용 지도서(상)』, 문원각, 2003.
- 황지우, 「귀소(歸巢)-고은과의 만남」, 황지우의 엮음, 『고은을 찾아서』, 1995.

<학술지 및 잡지>

- 김미혜, 「만인보의 시적 서사와 민중성 연구」, 국어교육연구, 제22집, 2008.

- 김종철, 「시와 긴장」, 『문학과 지성』, 1974 겨울호.
- 김주연, 「김춘수와 고은」, 『세계의 문학』, 1978 여름호.
- 김현, 「바다의 무덤에 대하여」, 『월간문학』, 1970 5월호.
- 박선희, 「고은 시의 시작방법에 관한 고찰」, 『문예시학』 제16집, 2005.
- 백낙청, 「한 시인의 변모와 성숙」, 『세계의 문학』, 1984 여름호.
- 손진은, 「독창적 창작 이전 단계로서의 모방시 쓰기」, 『시안』 29호, 2005.
- 손진은, 「독창적 창작 이전 단계로서의 모방시 쓰기」, 『시안』 29호, 2005.
- 손필영, 「현실반영 시의 가능성과 한계」, 『어문학논총』 제26집,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7.
- 오수연, 「고은 시의 낭만성 연구-초기시와 중기시를 중심으로」, Comparative korea studies Vol. 17 No. 2.
- 이경호, 「허무에서 역사로, 다시 새로운 삶으로의 질주」, 『문학정신』, 1992.
- 이남호, 「시와 시치미」, 유종호·최동호 편저, 『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현대문학, 1995.
- 이동순, 「존재의 전이에 대하여」, 『고은 문학의 세계』, 창작과 비평사, 1994.
- 이승훈, 「현실 인식의 두 경향」, 『현대시학』 1972.
- 이유경, 「고은과 60년대」, 『현대시학』, 1973.
- 임경순, 「총체적 언어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과 문학교육의 중요성」, 『문학교육학』 제19호, 2006.
- 정과리, 「민족을 발견하던 때의 고은」, 사이間SAI· 창간호, 2006.
- 정과리, 「부사성의 시학」, 『예술과 비평』, 서울신문사, 1984 가을,

진순애, 「남북한 통일시의 조국 심상과 평화의 정치성-고은과 박산운의 시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3집, 2008, 179-202쪽.

최원식, 「에로스와 해탈」, 『고은 문학의 세계』, 창작과 비평사, 1994.

한계전, 「작품과 세계와의 관계」, 『문학과 지성』, 1978, 320-328쪽.

<논문집>

강현정, 「고은 시 연구: 이미지 구조와 존재론적 전이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김근호, 「비평 논쟁 글쓰기의 방법 연구-‘1960년대 순수·참여 논쟁’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김근호, 「비평 논쟁 글쓰기의 방법 연구-‘1960년대 순수·참여 논쟁’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박병규, 「1960년대 순수참여논쟁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박정희, 「고은의 전반기 시세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정주환, 「고은 시의 고찰-시 경향의 변모양상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ABSTRACT

A Study on Ko Un's Poetry of educational values and teaching methods

Kim, Hyeon Ja

Dept. of Korean Literature and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an's University

In this paper, the perspective of literary education, especially for education in view of the general objectives and values of Ko Un's poems reveal what, in actual high school education and his major works in the field of what they discussed what could be used. Ko Un's poetry as works of high literary achievement seemed significant, as well as language teaching materials have also had to clarify that.

Ko Un, as well as look at the life and work together to find the spirit of his time to examine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in that it also was intended to evaluate with.

A variety of educational goals literature 'promotion of the use of language', 'Cognitive and affective development of the region',

'Increasing the level of the spirit of life' I could see the sun. On the basis of such general information literature with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of poetry found Ko Un. In addition, each of the items listed above can be found with regard to details on Ko Un's poetry educational significance and it can achieve good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was adopted.

Ko Un pretend the evil spirit of openness about the reality of injustice and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onscious and dynamic, creative and self-formative process of the formation of the poet shows his literary representative of South Korea is a writer. In the late 1950s was a poet and literary debut with the psychological horrors of war in Korea consciousness was in a time of despair and emptiness is. People have been flocking to the survival of the crisis, because the tragedy of war and subsequent human existential dilemma was difficult to get inside to be free mentally.

However, in the late 1950s came 'jeonhupa' Focusing on new vitality to the traditional dull paragraph was formed. They form the poetic language and try new experiments focused on the transformation of their traditional social perception and reality, and also at issue in a comprehensive evaluation by had demonstrated the expansion of awareness. South Korea 40 years after 1950 the center of literary activity in the space of imagination and brilliant intuition and seamless, unique language based on age and sensibility of a poet while in reality closely

combine their varying 's world, has deepened.

Based on these features when you view the type of poem and poetry spirit and the new methodology in terms of educational value to possess Ko Un's poetry was considered very good. However, in the present curriculum is covered extensively in the poem do not have many limitations that were not addressed. So, the 7th middle school textbooks, high school literature textbooks, and the 2007 amendments to the listed literature review of learning activities, and among his other specimens can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raining by choosing the works were discussed.

Textbook of more work "Going into Mountain Seclusion" "snowy road" the 'road image through'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his figurative representation. 'Road image' appreciation of poems by Ko Un literature revealed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image presented to the students learn to think of their own poetry can have a chance to express that thought.

Ko Un's poems and sleek shape of rhetoric and image recognition techniques for the world and it is expressed in a language appropriate for the improvement of language in a sense they can be educational materials were considered. Ko Un's poems and identify themes, these themes can be determined by subjective visual learning activities that foster skills were required, the poems of appreciation and understanding of Ko Un

on the basis of life and death issue of Poetry to cultivate the ability to criticize those that were learning. Through this process, students encounter in their lives immediately aware of the different challenges and respond to the intellectual · affective skills are encouraged.

Finally, due to material prosperity to humanity Looks at the situation these days, a true 'original nature poetry' is in contact with the works of human thought was a good idea to improve quality. Ko Un right here at the poems through the education of 'the improvement of human dignity' at Iran as a suitable material for educational objectives were achieved. In particular poet Ko Un, dealt with his life and work of view, the city can feel deeply original properties was found to be a poet.